통일부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변화 동향

김양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제1장 서 론 ····· 1
제2장 북한 통계데이터 및 대외무역 현황 ····· 8
제3장 북한무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적 용도별 수입실태 분석 ····· 26
제4장 주요 품목별 분석 ····· 53
제5장 결 론 ····· 112
[참고문헌] ····· 115

표 목차

<표 1-1> 북한무역통계의 형식과 내용 비교(2017년 6월 현재) ····· 7
<표 2-1> KOTRA와 UN의 북한무역통계 비교 ····· 13
<표 2-2> 북한의 무역의존도 ····· 15
<표 2-3> 북한의 주요 수입 상대국 현황 ····· 16
<표 2-4> 북한의 주요 수출 상대국 현황 ····· 17
<표 2-5> 대중 무역 추이 ····· 18
<표 2-6> 북한의 무역 규모 ····· 19
<표 2-7> 북한의 무역추이 ····· 20
<표 2-8> 북한의 수출입 품목수(HS 6단위 기준) ····· 22
<표 2-9> 북한무역 상위 10품목 ····· 25
<표 2-10> 북한 수입 상위 10품목 ····· 26
<표 2-11> 북한 수출 상위 10품목 ····· 27
<표 3-1> 산업-품목(HS 코드) 연계표 ····· 27
<표 3-2> 산업별 수입액 ····· 28
<표 3-3> 기술 수준별 공산품 분류 ····· 32
<표 3-4> 기술 수준별 공산품 수입액 ····· 33
<표 3-5> 기술 수준별 공산품 수입액 비중 ····· 34
<표 3-6> 북한의 용도별 수입액 추이 ····· 37
<표 3-7> 북한의 용도별 수입 비중 추이 ····· 38
<표 3-8> 북한의 주요 자본재 수입액 추이 ····· 42
<표 3-9> 북한의 핸드폰 및 컴퓨터 주요 품목 수입물량 추이 ····· 43
<표 3-10> 북한의 주요 수송기기 수입대수 추이 ····· 46
<표 3-11> 북한의 주요 산업용 중간재(공산품) 수입액 추이 ····· 47
<표 3-12> 북한의 주요 산업용 화학제품 수입액 ····· 48

<표 3-13> 북한의 주요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수입액 추이 ····· 49
<표 3-14> 북한의 주요 고무제품 수입액 ····· 50
<표 3-15> 북한의 주요 소비재(공산품) 수입액 추이 ····· 52
<표 4-1> HS 2단위 농수산물 품목분류 ····· 56
<표 4-2> HS 2단위 농수산물 수입현황 ····· 57
<표 4-3>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 동향 ····· 58
<표 4-4>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액 ····· 59
<표 4-5>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량 ····· 60
<표 4-6> 북한의 주요 수입 곡물 가격동향 ····· 60
<표 4-7>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량 ····· 61
<표 4-8>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 ····· 61
<표 4-9> 북한의 연도별 곡물 수급량 및 소요량 ····· 62
<표 4-10> 북한의 연도별 주요 곡물 공급량 ····· 62
<표 4-11>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액 ····· 65
<표 4-12>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량 ····· 66
<표 4-13> 북한의 주요 과실류 수입액 ····· 68
<표 4-14> 북한의 주요 과실류 수입량 ····· 69
<표 4-15> 북한의 커피·차·향신료 수입액 ····· 72
<표 4-16> 북한의 주요 주류 수입액 ····· 73
<표 4-17> 북한의 비료 수입액 ····· 75
<표 4-18> 북한의 비료 수입량 ····· 75
<표 4-19> 북한의 수입 비료 가격동향 ····· 76
<표 4-20>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 현황(HS 2단위 기준) ····· 77
<표 4-21>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HS 2단위 기준) ····· 78
<표 4-22>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량(HS 2단위 기준) ····· 78
<표 4-23> 북한의 원유(HS 2709) 수입 ····· 79
<표 4-24> 2007-2009 북한의 원유(HS 2709) 수입 ····· 80
<표 4-25> 에너지 관련 품목 현황(HS 2007·2012, 6단위 기준) ····· 85
<표 4-26> 북한의 에너지 수입액 비중 ····· 86

<표 4-27> 주요 에너지 관련 품목 수입액 ····· 87
<표 4-28> 주요 에너지 관련 품목 수입량 ····· 88
<표 4-29>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나타난 사치품 ····· 92
<표 4-30> 통일부 장관 고시 사치품 목록 ····· 93
<표 4-31>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세부품목 및 HS코드 ····· 95
<표 4-32> 주요 제재국 대북 사치품 목록 ····· 97
<표 4-33>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 비중 ····· 103
<표 4-34> 주요 제재국 대북 사치품 수입액 ····· 104
<표 4-35> 북한의 주요 귀금속 수입현황 ····· 108
<표 4-36> 북한의 스포츠용품(신발류) 수입현황 ····· 109
<표 4-37> 북한의 농림수산물, 에너지, 사치품 수입액 ····· 111

그림 목차

<그림 3-1> 북한의 용도별 수입 비중 ····· 39
<그림 4-1>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 비중 ····· 58
<그림 4-2> 북한의 주요 과실 수입 현황 ····· 7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사회주의적 경제체제가 확립된 이후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경제건설의 기본정책 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북한은 원료와 자원을 가능한 내부에서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꾀하는 전략으로 경제체제를 운영했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중소 대립 및 사회주의권 붕괴 속에서 북한의 존립기반이 되었지만, 이후 세계적인 경제 및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무역부분에서 고립되었고 경제침체는 심화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워 자본주의국가들과 무역 확대를 통한 무역의 다양화전략을 내세웠다.

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시작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중요성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대외무역의 목적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는 수입무역에 의해 직접적으로 실현된다고 말한다.[1] 또한 수입무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결정돼 나라의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2]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은 자립경제, 원료의 국산화 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직접 생산했을 때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경제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원자재들은 수입하는 것이 값이 저렴하면서도 기호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3] 이에 북한은 석유나 식량 등 부족한 자원은 물론이고 경공업 제품이나 원료 등도 수입을 통해 내부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

1) 최영옥,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32.
2)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 34.
3) 리명숙, 위 논문, p. 35.

한편 북한당국은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하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 무역법에서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 항목으로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무역법에 따르면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에 시달하여야 하고 무역계획은 승인 없이 변경시킬 수 없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또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4]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의 개혁개방 압력 속에서 북한은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해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는 대외무역의 통제로 나타났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2003년 북한당국이 종합시장 개설을 허용한 이후 국가에 의해서도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고, 북한의 기관, 단체, 기업소들까지 적극적으로 무역에 나서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무역권한권리인 '와크'권을 통해 전체 무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5] 북한당국은 기관, 기업소, 단체 등 공식기구에 와크권을 제공하고, 와크권을 갖고 있는 기구가 직접 무역을 하거나 돈주들에게 투자를 받아 돈을 벌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당국에 상납하도록 한다. 또한 와크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수출입을 제한하는 상품을 승인 없이 수출입하였거나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사후 정권을 계승한 김정은은 북한 사회의 안정과 경제회생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김정일 정권에서 시행하였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보다 한 단계 진보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6.28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자율적 경영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허용과 제재를 반복했던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며 시도된 시장친화적 정책에 의해 더욱 발달해 허용된 종합시장[6]이 400개가 넘을 정도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념은 다르겠지만 그 시장의 규모가 우리가 흔히 가는 대형마트 이상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

---

4)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www.unilaw.go.kr, 검색일= 2017년 6월 6일).

5) 북한은 2002년 7.1조치 시행을 계기로 무역의 분권화 조치가 추가로 취해졌다. <조선신보>는 "지난 시기 조선에서 무역활동은 전문기관만이 담당, 수행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별적인 공장·기업소들도 필요에 따라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무역활동을 벌일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 2003년 9월 22일. 기사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자율적으로 무역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모두 무역성 등 국가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6) 북한의 종합시장 개수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홍민,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3호(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7) 참조.

재 속에서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3.9% 성장했다고 밝혀서 관심을 끈 바 있다. 보도되는 뉴스화면 속에서의 북한에서도 평양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는 려명거리의 화려함은 차치하고라도,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핸드폰의 사용 등이 김정일 시대와는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종편TV 등에서 패널로 나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 국제구호단체 등에서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영양실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호소들은 많은 이들에게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에서는 무역이 국가의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이 연구에서는 북한경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히 북한의 수입품목에 주목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북한당국이 허용하고, 주민들의 요구 속에서 발생하는 북한 내부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의 수입품목수는 적어도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산업 등의 최소한의 중요 물자의 수만큼은 되어야 할 것[7]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10년간의 북한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양상을 엿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연구들은 북한 대외경제정책변화의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써 무역을 다루거나, 통계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무역현황 및 무역구조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북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기관별로 제공되는 통계데이터를 이용해 북한경제 현황 등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무역통계에서 자본재 무역현황을 분석해 북한경제 현황을 추론한 연구로는 Eberstadt(1998)[8]와 김석진(2007)[9]의 연구가 있다. 이들 두 연구는 북한무역통계 수치를 SITC 분류법으로 구분, 산업별 수출입 내역을 분석해 북한의 자본재 수출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Eberstadt의 연구는 1970～1995년을 분석기간으로 잡았는데 비해 김석진은 1996~200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김석진의 연구는 Eberstadt의 연구에 비해 품목별 패턴을 다양화 했고, 자본재 무역 외에 공산품 수출 현황, 남북교역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Eberstadt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김석진의 연구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남한이 북한의 자본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에서 어떤

7)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75.
8) Eberstadt. N., “The DPRK's International Trade in Capital Goods, 1970~1995: Indications from ‘Mirror Statistic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12 No.1*, 1998.
9)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서울: 산업연구원, 2007).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중국 및 남한 의존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가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2008년에는 북한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남북경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되기도 했다. 고일동 외(2008)[10]의 연구는 1) 북중무역과 중국의 물밑 대북지원 가능성 2) 북일무역의 북중/남북교역에 대한 대체성 효과 3) 북한무역에 있어 남북교역의 영향력 정도 등을 분석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고일동은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독점 거래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가격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교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2002년 이후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북일무역의 감소는 남북교역의 증가에는 인과적 영향력을 미쳤지만, 북중무역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2000년 후반 이후 북한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루트는 한국이라는 점 등을 분석했다.

한편 북한무역의 결정요인과 변동요인 등을 알아보는 연구들로는 이석 외(2013)[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무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 무역통계데이터를 활용해 북·중 무역의 총량, 지역별, 산업별 세부구조를 살펴보고 북·중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북·중무역의 결정요인으로 중국과 북한의 수요·공급요인, 거래가격, 중국 동북 3성과의 거래비중, 일본과 한국의 제재 등을 꼽았다.

임호열 외(2015)[12]는 1990~2013년의 기간 동안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저해요인을 살펴보았다. 임호열은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정책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저해요인으로 중국의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볼 수 있는 북한무역형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최장호 외(2016)[13]와 이정균 외(2016)[14]는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무역 형태의 변화를 주목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의 상황에서 중국과의 중계무역 등에 주력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것을 결과로 도출, 관련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10) 고일동 외, 『북한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11)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12) 임호열 외,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3) 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 대체 효과" 『KIEP정책연구브리핑』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4) 이정균 외,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접경 지역에서의 무역 거래 관행 변화』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이석(2007), (2010), (2014)[15]은 북한의 무역통계데이터에 주목하고 통계데이터의 신뢰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무역통계데이터의 오류와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했다.

이석은 1948년부터 2007년까지 시기별로 활용 가능한 북한의 통계를 분석하면서 신뢰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북한 통계의 통계적 결함으로 ① 통계 정의의 모호성 ② 통계 수집 및 생산, 공표과정에서의 기술적, 구조적인 과장과 왜곡의 가능성 ③ 빈번한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④ 통계의 의도적 조작의 개연성 등을 꼽았다. 이석 외(2010)는 북한무역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다. 이석은 재구성된 통계로 북한의 대외무역 추세와 구조, 특징 등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북한무역통계데이터 연구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북한의 무역구조나 산업발전 현황 등 다양한 북한경제 상황을 추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존의 북한의 무역통계와 관련한 연구들은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북한의 수입 품목 분석을 전면에 내세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북한은 여전히 자립적 경제체제를 내세우며 최근에도 원료의 국산화 등을 강조[16]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 확산에 따른 시장화의 영향으로 국산제품만으로 시장의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화 대체가 불가능한 여러 품목들의 경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해 북한무역에서 수입규모와 품목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외무역에서 수입이 북한의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15) 이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차 통일학세미나 발표자료), 2007.(http://tongil.snu.ac.kr/xe/sub440/14114);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이석 외, 『북한 사회경제통계 분석과 재구축』(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4).

16) 『로동신문』은 2010년도 이후에도 "경공업 원료의 국산화와 그 전망"(2011년 6월 11일), "첨단 기술제품의 국산화 실현"(2011년 12월 7일),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원료, 자제의 국산화와 화학공업"(2013년 11월 24일), "세차게 타번지는 국산화 열풍"(2014년 1월 12일), "국산화는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2017년 7월 21일) 등의 기사를 통해 "국산화를 실천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을 높이 올리기 위한 절실한 여구이다"며 국산화를 독려하고 있다.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2016년까지 최근 10년으로 한정하고, 동기간 북한의 대외무역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북한의 수입품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년은 북한의 최근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김정일과 김정은 두 시기에 걸쳐있어 정권에 따른 변화를 구분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와 대외무역 등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등의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북한의 수입이 북한 내부경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양적연구를 위한 무역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되도록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이는 2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경우 공식적으로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무역거래국과의 통계에 기반한 거울통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연구자가 그러한 오류와 문제점을 일일이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원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수입품목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의 무역통계 중 수입품목의 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UN Comtrade 무역통계 자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북한 대외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KITA)의 북중무역통계자료 등이 있다. IMF의 경우에도 북한의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상품별 분류가 아닌 수출입액만을 발표하고 있어 수입품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이들 통계데이터 가운데 KITA의 경우 상품별 최대 HS 8단위까지 세부통계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주로 북중무역통계자료에 치중하여 북한의 전체적인 대외무역에서의 수입상품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UN과 KOTRA의 경우 상품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HS 4단위까지를 공개하는 KOTRA와 달리 UN의 데이터는 HS 6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UN의 Comtrade 데이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UN 통계 외에도 KOTRA, KITA의 통계자료를 보조 통계 수치로 사용할 계획이다.

<표 1-1> 북한무역통계의 형식과 내용 비교(2017년 6월 현재)

구분	통계분류	세부 통계내역			시계열의 범위
		시기별	상품별	지역별	
KITA	수입액 수출액	월별, 분기별, 연별	최대 HS 8단위	중국 각 성별 분류	1998~2016
UN Comtrade	수입액 수출액	연별	최대 HS 6단위	세부분류 없음	1990~2016
IMF DOT	수입액 수출액	연별	세부분류 없음	세부분류 없음	1990~2015
KOTRA	수입액 수출액	연별	주로 HS 2단위	세부분류 없음	1990~2016

자료 : KITA 및 UN, IMF, KOTRA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 부분으로 1절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절에서는 연구방법 및 구성 등을 서술했다.

2장은 북한 통계데이터 및 대외무역 현황을 소개하는 장으로 1절은 북한무역통계데이터 현황과 신뢰성을 2절은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중심으로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2장 1절 북한무역통계데이터 현황과 신뢰성은 현재 북한무역통계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기관별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들의 신뢰성 등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어떤 북한 통계데이터들을 선택해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서술했다. 2장 2절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의존도,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목 등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와 수출입 추이를 분석했다.

3장은 북한무역의 산업별 구조 및 경제적 용도별 수입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산업구조별 분석과 용도별 분석을 했다. 특히 3장 1절에서는 북한무역의 산업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상품을 농림수산, 광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등 8개 산업과 21개 품목으로 구분해 분류했다. 또한 전체 수입액 중 70~80% 정도를 차지하는 공산품을 기순수준별로 구분해 북한의 수입구조를 분석했다. 아울러 3장 2절에서는 경제적 용도에 따라 무역상품을 음식료, 산업용 원자재·중간재,

연료, 자본재 및 그 부품, 수송기기, 소비재로 분류해 분석했다.

북한의 수입품목을 산업구조 및 용도별로 수입실태를 분석하면 북한이 수입한 품목이 어떤 산업 등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전략적으로 어떤 수입품을 활용해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시켰는지를 살펴보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북한의 정책적 노력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은 주요 품목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식량, 에너지, 사치품 등 북한 경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주요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식량, 에너지, 사치품 등 주요 품목군의 분석 역시 UN 통계데이터를 활용, HS코드 6단위 이상의 세부코드까지 분석해 상품의 다양성 등까지 살펴보았다.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품들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연관이 있고 상류층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추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품목들이며 따라서 북한당국이 전략물자로 관리하는 중요한 품목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치품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북한의 상류층이 전체 북한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치품을 수입하고 이를 소비하는지 알아보고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경우 연구범위 기간 대부분의 교역이 개성공단에 한정되어 있고, 개성공단 생산 완제품이 다시 남한으로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 산업이나 주민생활 등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이후 5장 결론에서는 4장까지의 분석내용을 종합해 현재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들이 북한경제 변화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대북제재나 남북경협 같은 북한경제 관련 정책을 펼칠 때 고려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제2장 북한 통계데이터 및 대외무역 현황

제1절 북한무역통계데이터 현황과 신뢰성

1. 북한무역통계데이터 현황

북한에서는 통계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중앙통계국이 관할해서 취급한다. 그러나 북한당

국은 통계를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각종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 대외거래 총량 등의 수치만 간단히 밝힌 적이 있는데, 이는 북한당국이 스스로 공개한 유일한 통계자료이다.[17]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당국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외원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통계수치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인 통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통계의 과장 등 신뢰도에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외부에서 북한 통계를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무역통계의 경우 거래하는 상대국이 존재해야 이루어지는 무역의 속성상 상대국이 제공하는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근접한[18]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잠시 언급했듯 북한의 무역통계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요기관은 KITA, KOTRA, IMF, UN Comtrade Datebase 등이다.

KITA는 세계 59개국 61종의 국내 최대 무역통계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세계 주요국의 관세청 자료를 구입하여 합산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이나 개별 통계기관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주로 UN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북중무역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KITA는 중국 세관의 통계데이터를 그대로 받아 공표한다. 이는 해관총서 등 중국 세관의 각종 출판물에 나타나 있는 북중무역통계와 사실상 동일한 통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중국 해관통계 사이트 등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중국을 비롯해 상위 몇 개국의 무역통계 수치를 확인하면 전체 무역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KOTRA는 매년 해외 각국에 위치한 지부와 사무소의 무역관 등을 통해 해당국가와 북한과의 무역거래 내역을 수집해 무역통계를 만들고 있다. 199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70여 개국의 자료가 취합되어 수출입 총량, 국가별, 상품별, 지역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에게 매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이라는 발간물로 공개된다.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이 특정국가에 편중돼 KOTRA의 해외 사무소가 있는 나라들의 자료만 수집해도 거의 대부분 북한의 무역통계를 취합할 수 있는 반면에 KOTRA 통계는 품목별로 보면 HS 2단위까지만 구분을 하고 있어 세분화된 품목을 알고자 할 때는 한계가 있다.

UN과 IMF 등은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기구들로 회원국가들이 제출한 무역통계를 근거로 북한무역통계를 거울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UN은 1988

17) 북한이 당시에 발표한 자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통계집(1946~1960)』 (평양: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61)이다.

18) 북한무역통계는 거래 상대국의 오류(북한의 실제 거래상대국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와 거래 내역의 오류(북한의 실제 거래 내역을 잘못 보고하는 오류) 등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22~24.

년, IMF는 1981년 이후부터 북한의 무역을 시계열대로 수출입총액, 국가별, 지역별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IMF 통계는 교역상대국별 수출입 총액만을 제공하고 품목별 통계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기 어렵다. 반면에 UN통계는 상품별 데이터를 HS 6단위까지 제공하고 BEC, SITC 등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해 분석하는 성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무역통계데이터는 HS(Harmonized System),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 등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의 성질과 형태들을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번호표상의 구분에 따른 분류로 각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19]

2. 북한 통계데이터의 선택 및 활용

북한의 무역통계가 거울통계로 다른 경제통계데이터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무역통계데이터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북한의 무역통계데이터는 발표하는 각각의 기관마다 다른 산출방식으로 인해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별로 자료를 취합하는 대상국가들 수와 수출입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다르고 일부 오류를 보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수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을 보면, 북한의 무역총액에 대해 2007년 UN comtrade date는 48억5,200만 달러라고 추정했지만 KOTRA는 29억4,100만 달러라고 추정해 15억 달러가 넘게 차이가 났고, 2008년에는 UN은 65억5,900만 달러, KOTRA는 38억1,600만 달러라고 추정해 그 차이는 더욱 커졌다. 그러다가 2009년에는 UN은 44억7,100만 달러, KOTRA는 34억1,400만 달러라고 추정해 두 기관 간 북한의 무역총추정액의 차이는 작아지기 시작한다. 특히 2014년에는 UN이 발표한 무역총액이 74억6,400만 달러인데 반해 KOTRA는 76억1,100만 달러라고 발표해 처음으로 KOTRA 무역총액의 양이 UN보다 많게 추정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KOTRA는 해외사무소가 있는 50여 개국의 자료를 취합해서 무역총액을 산출하고 UN은 회원국의 보고를 기반으로 수치를 추정해서 지난 10년간 무역총액은 항상 UN이 더 크게 발표되었으나 2014년의 경우 KOTRA의 수치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북한과 무역을 하는 UN의 회원사가 ① 필요에 의해 일부 무역액을 축소해 보고를 했거나[20] ② 착오로 인해 수치를 잘못 보고를 했을 수 있다. 또한 UN 회원사가 보고한

1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의 무역통계 분류내용 (http://stat.kita.net/stat/guide/guide_14.screen) 참조.

수치의 오류 외에 가능성은 낮지만 KOTRA의 보고도 ① 국가별 관세 수치의 축소나 확대 보고 ② 단순착오로 인한 오류 등으로 인해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북한무역통계데이터는 거울통계 이기 때문에 무역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수출의 경우 과대평가의 우려가, 무역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해서 산출하는 수입의 경우 수치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1]

이러한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무역통계는 통계 수치를 작성하는데 있어 오류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22] 이석 등에 따르면 자료의 취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통계 오류 및 신뢰성 문제 가능성으로 첫째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개별 국가가 한국과 북한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통계적 오류, 둘째 북한무역통계에 국가별 대북 원조 포함 여부의 불일치에 의한 오류, 셋째 국제 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 북한무역통계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있다.[23]

UN과 IMF의 자료는 잘못된 무역통계를 포함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실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해 북한 상황에 맞지 않는 수치를 제공하기도 한다.[24] 또한 무역통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국의 통계 자료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KOTRA의 무역통계 자료는 실제 발생한 거래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대북 원조는 무상원조, 차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역통계에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대북경

---

20) 2014년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무역통계 수치를 축소해 보고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17일, 북중무역통계에서 발표 시기(2016.12, 2017.1)에 따라 무역액의 수정(총 무역의 10%)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북한경제전문가, 관련 정부당국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21) 자세한 내용은 이찬도,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참고, 이찬도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정해 북한의 대외무역 금액을 추정한 바 있다.

2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차 통일학세미나 발표자료, 2007)을 참고할 것.

23) 이석, 위의 글 참고.

24) UN Comtrade data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7년 북한의 대외교역국 중 1위를 앙골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앙골라는 북한으로부터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품목을 약 10억 달러 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당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HS 6단위 기준 단일품목으로 북한이 1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앙골라가 UN에 자료를 제출 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의 경우에는 인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보고된 물품 중 면역 관련 제품 및 광학용 렌즈, 정밀기기 등 북한의 경제능력으로는 해외에 수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북한의 수출제품으로 볼 수 없는 제품들이 인도의 전체 대북 수입액 가운데 무려 36%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한이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북한으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28~31 참조.

제제재 대상인 무기류나 사치품의 무역통계는 국가별 목적에 의해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특히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북한의 수입 통계는 실제 북한으로 유입된 물자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석의 설명이다.[25]

이처럼 북한무역통계데이터의 신뢰성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오류의 보정 등을 통해 북한무역통계를 재구성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도 북한통계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사용할 경우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으나, 북한의 수백 개 거래상대국이 발표하는 수십만 건의 세관통계 내역 모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무역통계데이터의 정확한 예측보다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통계를 기준으로 놓고 시계열에 따라 변화한 북한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통계데이터를 보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2007년 UN의 데이터 중 앙골라의 대북수입 품목인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의 경우에는 HS 6단위의 단일품목의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오류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했다.[26]

또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경제 분석을 하는데 있어 현재의 제한적인 정보 하에서 북한의 무역통계는 한편으로 가장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통계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무역 상대국들이 보고하는 통계데이터들을 통해 거울통계로나마 북한 경제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UN comtrade 통계를 주로 이용하되, KOTRA, KITA 통계 등을 교차해 통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활용하고자 했다. 이석(2010)[27]이 지적했듯, 북한무역과 관련된 집계거울통계의 오류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이를 담당하는 개별연구자가 동 통계에 나타난 수백 개 국가의 수십만 건의 대북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 진위를 따져 보기 어려워 오류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수치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UN 데이터 중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처럼 현재 북한의 상황이나 국가별 무역형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상이 있어 보이는 통계데이터는 북한무역통계전문가나 북한무역과 관련한 실무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제외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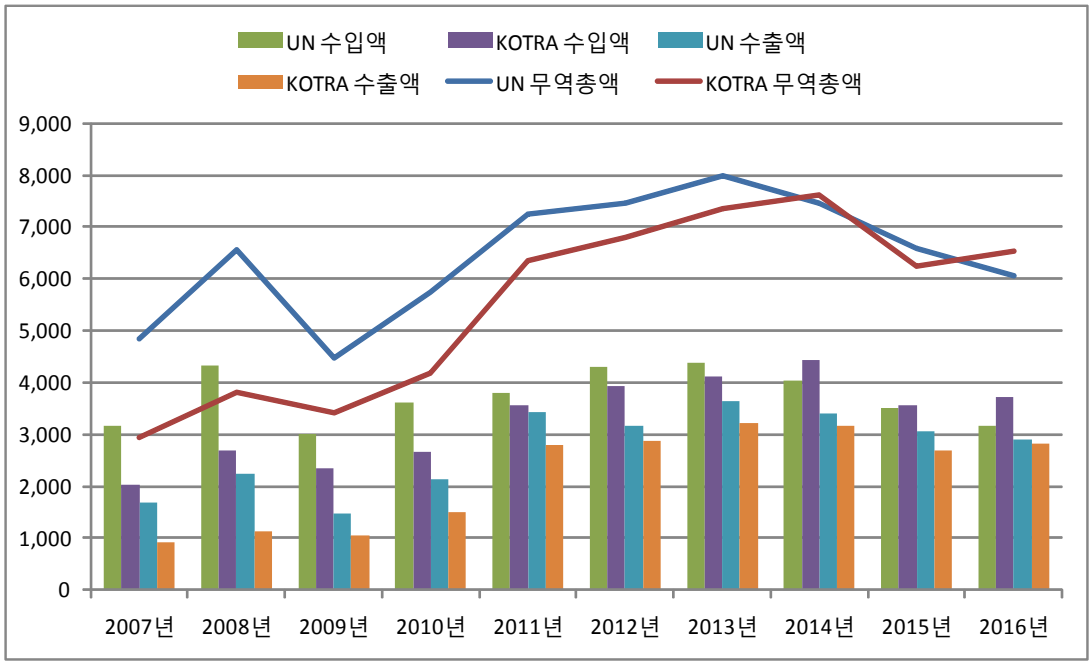
25)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28~31.

26) UN 통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60억 달러이고 총 수입액이 3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도 아닌 HS 6단위의 중간재 단일품목의 수입액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28~31 참조.

27) 이석 외, 위의 책, pp. 28~31.

<표 2-1> KOTRA와 UN의 북한무역통계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2007[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UN 무역총액	4,852	6,559	4,471	5,751	7,239	7,457	8,002	7,464	6,579	6,061
KOTRA 무역총액	2,941	3,816	3,414	4,174	6,357	6,811	7,345	7,611	6,252	6,547
UN 수입액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KOTRA 수입액	2,022	2,685	2,351	2,661	3,568	3,931	4,126	4,446	3,555	3,726
UN 수출액	1,695	2,230	1,475	2,126	3,425	3,162	3,631	3,413	3,065	2,901
KOTRA 수출액	919	1,130	1,063	1,514	2,789	2,880	3,218	3,165	2,697	2,821

자료 : UN 무역총액은 UN Comtrade Database, KOTRA 수입액은 각 년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연도별 GDP는 UN 통계국(UNSD)발표 내용임.

주 : UN은 2007년 북한의 무역규모를 58억 달러로 발표했으나, 앙골라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의 수입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수치임.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1. 대외무역 추이

북한은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우호가격제로 대외무역을 추진하다가 1990년대 초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위축돼 1990년대 중반 무역총액은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이전의 절반 수준인 20억 달러의 규모로 정체했었다.[28] 그러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북한은 제3국과의 대외무역 추진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역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른다.

<표 2-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UN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2006년 이미 사회주의권 붕괴 직전의 무역 규모(42억 달러 정도)를 넘어섰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09년 잠시 금액이 축소됐으나 곧이어 상승하기 시작해 2013년 최대 금액인 80억200만 달러를 기록했다.[29] 이후 2014년에는 74억6,400만 달러, 2015년에는 65억7,900만 달러 등으로 잠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지난 10년간의 수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대외무역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흔히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즉 무역의존도가 사용된다. 무역의존도 개념을 사용할 때 통상적인 시장환율 기준 GDP에 대비하여 계산된 수출입비율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입비율을 크게 과대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시장환율은 그 나라 통화의 실제 구매력을 크게 과소평가하며, 따라서 시장환율로 환산된 달러 표시 GDP는 그 나라의 진정한 경제규모를 크게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해 최근의 보다 엄밀한 연구들에서는 무역의존도를 시장환율 GDP 대비 비율이 아니라 PPP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달러 표시 GDP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30]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UN통계국에서 발표하는 현물가격 기준 GDP 자료를 활용했다 <표

---

28)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서울: KOTRA, 199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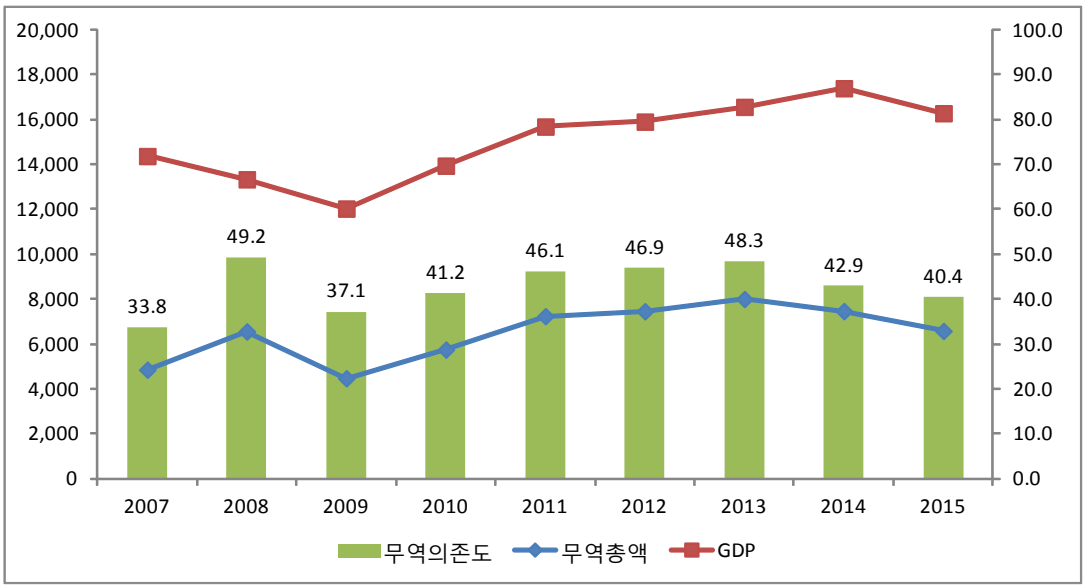
29) 2009년 대외무역액이 축소된 이유는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액이 감소된데 이어 대부분 품목의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물량은 증가했으나 국제시세 등의 영향에 의해 가격이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13년 북한대외무역액이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광물성 생산품과 섬유생산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최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 2013년 각년호.

30) 김석진, "통계 재구성의 시사점분석2 -북한 대외무역의 구조와 특징-",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162 참조.

2-2> 북한의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의 무역의존도가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부터는 GDP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GDP의 증가와 함께 무역의존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재재 조치로 등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북한무역의존도의 증가 추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북한의 무역의존도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2007[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역총액	4,852	6,559	4,471	5,751	7,239	7,457	8,002	7,464	6,579
GDP	14,375	13,337	12,035	13,945	15,689	15,907	16,565	17,396	16,283
무역 의존도	33.8	49.2	37.1	41.2	46.1	46.9	48.3	42.9	40.4

자료 : 무역총액은 UN Comtrade Database, 연도별 GDP는 UN 통계국(UNSD) 현물가격 USD 기준.
주 : UN은 2007년 북한의 무역규모를 58억 달러로 발표했으나, 앙골라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의 수입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수치임.

북한의 GDP는 2007년 143억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133억3,700만 달러, 120억3,500만 달러 등 잠시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에는 173억9,6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는 162억8,300만 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무역의존도 역시 2008년에는 5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지난 2015년에는 40% 정도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입 상대국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수입대상 국가 1위는 모두 중국이 차지했다. 북한의 무역규모에서 총 수입액 중 중국과의 수입교역 부분의 비중은 2007년 44.1%에서 2009년에는 63%를, 2011년에는 83%를 돌파했고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86.9%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5년에는 83.9%로 수치가 다소 줄었다. 또한 상위 5개 주요 수입 상대국과의 교역의 비중은 수입의 경우 2007년에 이미 80%를, 2011년부터는 90%를 상회하여 대부분의 수입이 주요 수입상대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 북한의 주요 수입 상대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국가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금액	1,392	2,032	1,888	2,277	3,165	3,532	3,630	3,520	2,947
	비중	44.1	47.0	63.0	62.8	83.0	82.2	83.0	86.9	83.9
2	국가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태국	인도
	금액	639	1,094	311	427	174	230	239	107	111
	비중	20.2	25.3	10.4	11.8	4.6	5.4	5.5	2.6	3.2
3	국가	콩고	브라질	브라질	이집트	러시아	태국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금액	214	205	119	270	99	96	103	82	78
	비중	6.8	4.7	4.0	7.4	2.6	2.2	2.4	2.0	2.2
4	국가	태국	페루	카타르	남아공	남아공	러시아	태국	인도	태국
	금액	184	179	118	220	47	58	100	75	74
	비중	5.8	4.1	4.0	6.1	1.2	1.4	2.3	1.9	2.1
5	국가	남아공	남아공	남아공	싱가포르	온두라스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필리핀
	금액	137	151	93	48	32	57	59	48	53
	비중	4.4	3.5	3.1	1.3	0.8	1.3	1.4	1.2	1.5
상위 5개국	금액	2,567	3,661	2,529	3,243	3,516	3,974	4,132	3,834	3,264
	비중	81.3	84.6	84.4	89.5	92.2	92.5	94.5	94.6	92.9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다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 상대국 현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수출대상 국가 1위는 모두 중국이 차지했으며 북한의 무역규모에서 총 수출액 중 중국과의 수출교역 부분의 비중은 2007년 21.4%에서 2011년에는 72.3%를, 2013년에는

80%를 돌파했고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84%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5년에는 81.8%로 수치가 다소 줄었다. 또한 상위 5개 주요 수출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은 2007년 60%, 2009년부터는 70%, 2011년에는 85%, 2014년도에는 90%까지 증가하여 수출국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한의 수출 역시 주요 수출 상대국과의 교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 북한의 주요 수출 상대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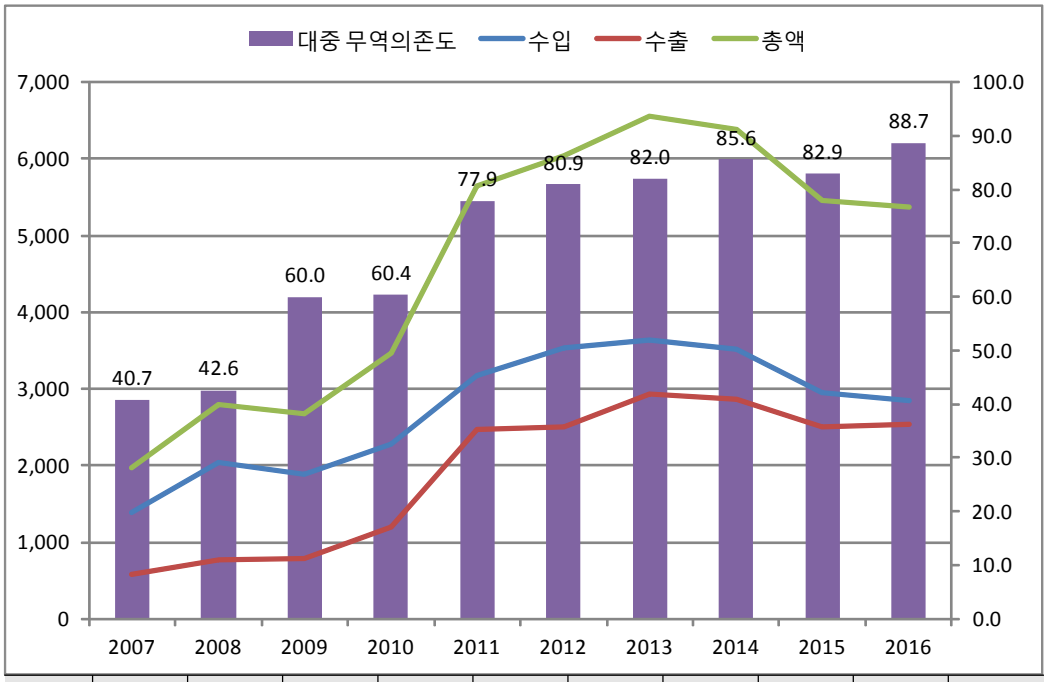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국가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금액	584	760	793	1,195	2,475	2,503	2,927	2,868	2,507
	비중	21.4	34.1	53.8	56.2	72.3	79.2	80.6	84.0	81.8
2	국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바레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인도	인도
	금액	212	227	96	147	236	62	130	109	99
	비중	7.8	10.2	6.5	6.9	6.9	1.9	3.6	3.2	3.2
3	국가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브라질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금액	167	176	65	121	98	53	76	42	46
	비중	6.1	7.9	4.4	5.7	2.8	1.7	2.1	1.2	1.5
4	국가	브라질	인도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파키스탄	브라질	대만	앙골라
	금액	109	109	52	86	51	52	69	40	44
	비중	4.0	4.9	3.6	4.0	1.5	1.7	1.9	1.2	1.4
5	국가	나이지리아	그리스	사우디	이집트	독일	대만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금액	54	95	51	66	50	42	43	26	36
	비중	2.4	4.3	3.4	3.1	1.5	1.3	1.2	0.7	1.2
상위 5개국	금액	1,127	1,368	1,057	1,614	2,911	2,711	3,246	3,084	2,731
	비중	66.5	61.4	71.7	75.9	85.0	85.8	89.4	90.4	89.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북한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표 2-5> 대중무역 추이와 같다. 2007년 40.7%에 불과했던 북중교역의 전체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60%를 넘어서고, 2012년부터는 매년 80%를 넘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대중 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	1,392	2,032	1,888	2,277	3,165	3,532	3,630	3,520	2,947	2,841
수출	584	760	793	1,195	2,475	2,503	2,927	2,868	2,507	2,537
총액	1,976	2,793	2,681	3,472	5,640	6,035	6,558	6,388	5,454	5,379
비중	40.7	42.6	60.0	60.4	77.9	80.9	82.0	85.6	82.9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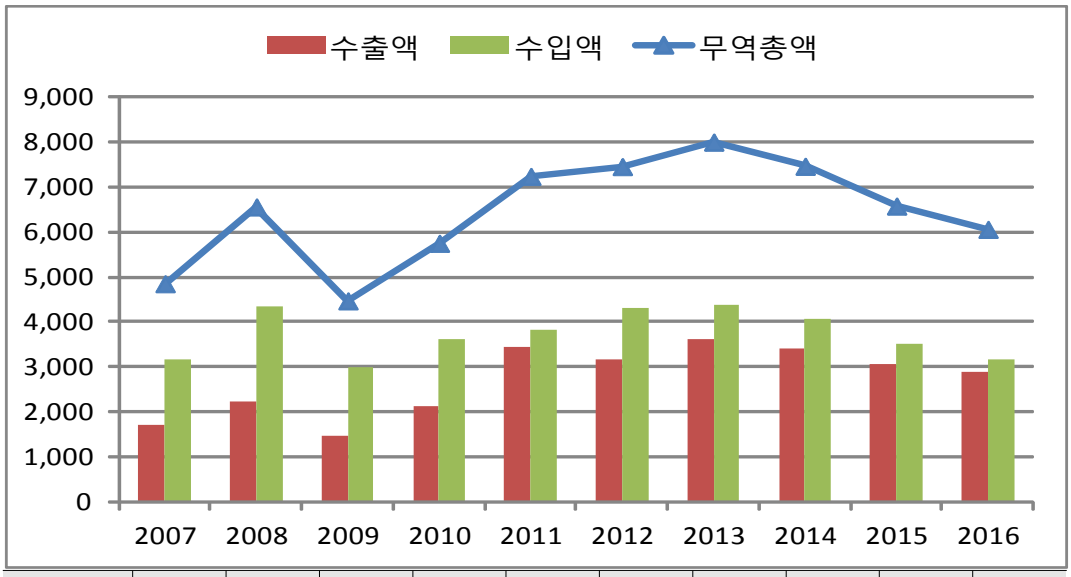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2. 수출입추이

북한의 전체적인 무역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6> 과 같다. 북한 수출입의 특징은 북한의 수출입 규모 변화에서 보듯이 전 기간 북한의 수입이 수출 규모를 훨씬 앞지른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수출과 수입액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표 2-6> 북한의 무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2007[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1,695	2,230	1,475	2,126	3,425	3,162	3,631	3,413	3,065	2,901
수입액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무역총액	4,852	6,559	4,471	5,751	7,239	7,457	8,002	7,464	6,579	6,06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UN은 2007년 북한의 무역규모를 58억 달러로 발표했으나, 앙골라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의 수입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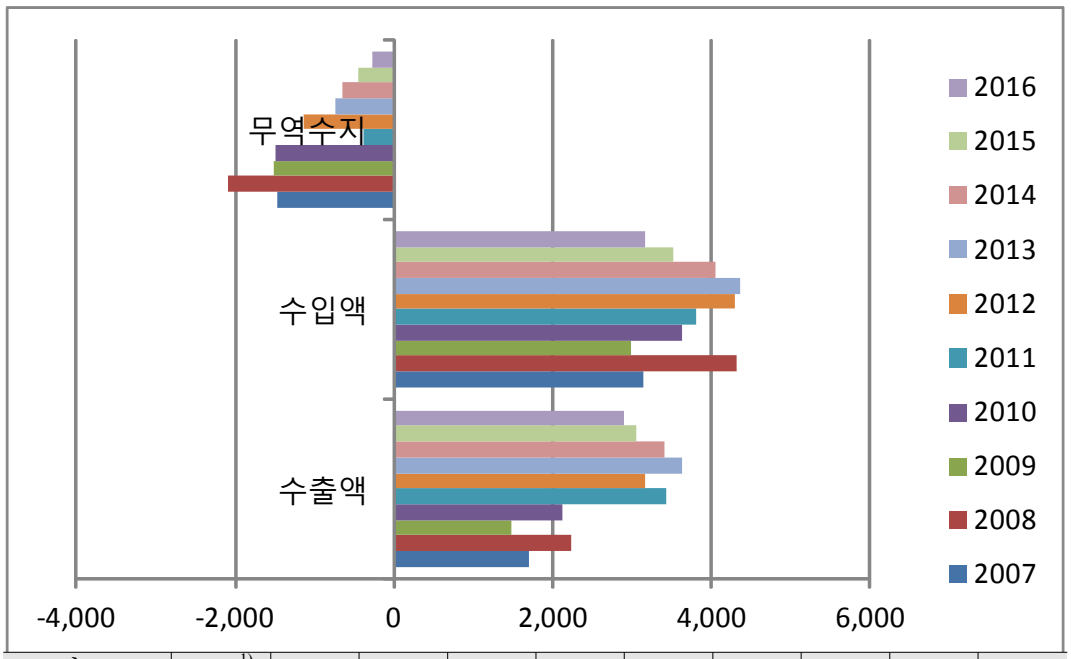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앞서 살펴본 수출입 총액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수출보다 수입을 우선시하는 북한은 수출을 수입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최근 외화벌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 경제침체와 생산 기술의 저하로 1차 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수출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소폭 하락했고 이어 2013년에는 최고액(36억3,1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후 북한 수출액은 하향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29억100만 달러에 이른다.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금액은 더 크지만 그 추이는 수출액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수출액이 2011년 대비 2012년 소폭 하락한 것과 달리 수입액은 상승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수출액과 수입액이 가장 큰 2013년의 무역 총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앞서 설명한대로 수출액과 수입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의 북한무역수지(2억5,900만 달러 적자)는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2008년 20억 달러까지 적자규모가 증가하였다가, 2011년 이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2012년 제외)

<표 2-7>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2007[1)]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1,695	2,230	1,475	2,126	3,425	3,162	3,631	3,413	3,065	2,901
수입액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무역수지	-1,463	-2,098	-1,521	-1,498	-388	-1,134	-741	-638	-450	-259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UN은 2007년 북한의 무역규모를 58억 달러로 발표했으나, 앙골라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HS 843149)의 수입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수치임.

<표 2-8>은 북한의 수출입 품목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북한의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것과 같이 품목수도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생산능력의 제한으로 수출 품목이 한정된 데 반해 산업과 주민 수요로 인해 수입품목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원료와 생산에 있어서의 주체화' 등 자력갱생을 내세운 정책을 펼쳐왔으나 수입 품목수의 변동이 소폭이고 그나마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여파를 무시할 수 없을 때 수입품목수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품목수는 일부 예외년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무역의 중국의존도도 높아지지만 수출입 국가수도 줄어들어 2007년에는 수출국가수와 수입국가수가 각각 138개국, 92개국 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87개국, 64개국에 이를 정도로 감소했다.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역의 다각화 정책을 펼쳤으나 실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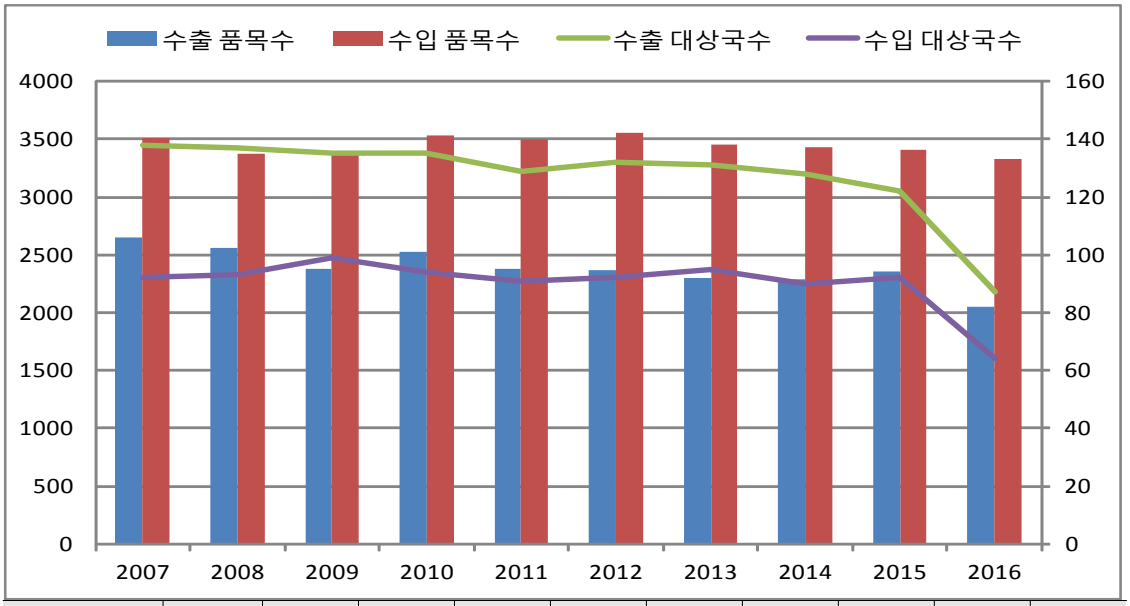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소련의 원조 등이 줄어들자 사회주의 시장에 우선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했다. 19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의 다각화를 고민하기 시작한 김일성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켜서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31]고 말하며 무역 대상국 확대를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김정일 이후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져 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대외무역의 다각화·다변화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32]

31) 김일성,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조선로동당 5차대회, 1980. 10. 10)", 『김일성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pp. 335~336.
32)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표 2-8> 북한의 수출입 품목수(HS 6단위 기준)

(단위 : 개)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품목수	2,650	2,560	2,377	2,526	2,373	2,368	2,295	2,289	2,352	2,046
수입 품목수	3,506	3,378	3,374	3,527	3,497	3,550	3,452	3,432	3,410	3,333
수출 국가수	138	137	135	135	129	132	131	128	122	87
수입 국가수	92	93	99	94	91	92	95	90	92	64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수출입 국가수는 각종 군소·군도 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임.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상위 10개 품목을 HS 2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액 기준으로 모두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특히 무역액을 보면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품목의 경우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는데 비해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는 매해 1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1~2013년 시기에는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와 <표 2-11>을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는 북한의 수출품에도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수입품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무역총액에서 1위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등의 에너지원을 수입해야하는 북한의 수입액은 2007년에는 12억 7,800만 달러, 2008년에는 17억5,900만 달러에 이르나 지속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2016년에는 2억9,7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수출이 많은데 이로 인해 무역 1위 품목을 광물연료 및 에너지가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원자재 붐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광물자원 수출을 늘릴 수 있었으며 대중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무연탄이다.[33]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품목은 2013년 이후 무역상위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이다. 의류는 2007년 10위(8,500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2008년 8위(1억4,100만 달러), 2009년 9위(1억800만 달러)정도 였다가 2010년 6위(2억900만 달러), 2011년 5위(4억2,100만 달러), 2012년 4위(4억900만 달러)에 이어 2013년(5억4,400만 달러), 2014년(6억8,200만 달러), 2015년(6억7,200만 달러)까지 계속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류 부문은 수입과 수출 모두 상위권에 올리고 있는데, 편물 등을 주로 수입 하지만 수출에서는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편물제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의류 원자재를 중국 등에서 들여와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위탁임가공형식의 산업이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34]

의류는 2007년에도 수출상위 순위로 7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2015년에는 6억3,8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이 급증한 것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원가경쟁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국 섬유업체들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받는 가공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교역을 하는 이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근로자들을 북중국경으로 이동시켜 의류 위탁임가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증언들을 미뤄봤을 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중간의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33) 북한의 광물무역과 관련해서는 남진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 분석: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9호(한국개발연구원, 2016) 참고.

34) 최장호는 2002~2015년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2006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의 대북 금수조치가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보세무역구를 통과하여 수출하는 우회무역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의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 총우회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동북 북·중 국경지역의 보세구역에 수입하는 의류 품목들인 HS코드 61번과 62번 중 대부분기간 동안 99% 이상은 북한산이었으며, 이는 같은 관세구역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수출되는 HS코드 61번, 62번류(하부단위 포함) 품목들이 실제로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가는 구도라는 것이다. 또한 우회무역, 즉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의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그 절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이 의류가공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중국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등지로 우회무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KIEP 정책연구 브리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 4~5.

<표 2-9> 북한무역 상위 10품목

(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567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054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05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546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115
2	26류 광, 슬랙, 회	346	26류 광, 슬랙, 회	521	84류 보일러·기계류	318	26류 광, 슬랙, 회	523	26류 광, 슬랙, 회	506
3	84류 보일러·기계류	343	85류 전기기기·TV·VTR	460	85류 전기기기·TV·VTR	288	85류 전기기기·TV·VTR	389	84류 보일러·기계류	473
4	85류 전기기기·TV·VTR	287	84류 보일러·기계류	452	26류 광, 슬랙, 회	231	84류 보일러·기계류	383	85류 전기기기·TV·VTR	447
5	87류 일반차량	265	72류 철강	357	72류 철강	201	72류 철강	327	62류 의류(편물제외)	421
6	72류 철강	200	87류 일반차량	218	62류 의류(편물제외)	157	62류 의류(편물제외)	209	87류 일반차량	355
7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3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6	87류 일반차량	151	87류 일반차량	191	72류 철강	311
8	10류 곡물	118	62류 의류(편물제외)	14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3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8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69
9	29류 유기화합물	99	29류 유기화합물	139	61류 의류(편물제)	108	73류 철강제품	137	73류 철강제품	132
10	62류 의류(편물제외)	85	89류 선박	113	03류 어패류	91	99 기타	128	10류 곡물	128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292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446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436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42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430
2	85류 전기기기·TV·VTR	437	62류 의류(편물제외)	544	62류 의류(편물제외)	682	62류 의류(편물제외)	672	62류 의류(편물제외)	526
3	84류 보일러·기계류	433	84류 보일러·기계류	440	85류 전기기기·TV·VTR	574	85류 전기기기·TV·VTR	474	85류 전기기기·TV·VTR	360
4	62류 의류(편물제외)	409	26류 광, 슬랙, 회	436	84류 보일러·기계류	420	84류 보일러·기계류	332	84류 보일러·기계류	311
5	26류 광, 슬랙, 회	372	85류 전기기기·TV·VTR	399	26류 광, 슬랙, 회	381	61류 의류(편물제)	265	87류 일반차량	281
6	87류 일반차량	299	87류 일반차량	300	87류 일반차량	263	26류 광, 슬랙, 회	232	03류 어패류	275
7	72류 철강	256	72류 철강	238	72류 철강	248	87류 일반차량	228	26류 광, 슬랙,회	233
8	29류 유기화합물	204	03류 어패류	199	61류 의류(편물제)	235	03류 어패류	218	61류 의류(편물제)	206
9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8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230	72류 철강	208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4
10	10류 곡물	169	40류 고무와 그 제품	186	03류 어패류	229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204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77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2-10> 북한 수입 상위 10품목

(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27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759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75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030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828
2	84류 보일러·기계류	181	26류 광, 슬랙, 회	307	84류 보일러·기계류	198	26류 광, 슬랙, 회	271	84류 보일러·기계류	313
3	26류 광,슬랙,회	180	84류 보일러·기계류	193	85류 전기기기·TV·VTR	176	84류 보일러·기계류	270	85류 전기기기·TV·VTR	283
4	10류 곡물	118	72류 철강	162	87류 일반차량	116	85류 전기기기·TV·VTR	218	87류 일반차량	233
5	85류 전기기기·TV·VTR	87	85류 전기기기·TV·VTR	142	61류 의류(편물제)	98	87류 일반차량	167	10류 곡물	128
6	72류 철강	83	29류 유기화합물	112	26류 광, 슬랙, 회	91	72류 철강	15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16
7	29류 유기화합물	68	61류 의류(편물제)	91	72류 철강	90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90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11
8	40류 고무와 그 제품	64	10류 곡물	86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78	29류 유기화합물	81	31류 비료	105
9	87류 일반차량	64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86	24류 담배	72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79	72류 철강	104
10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63	87류 일반차량	80	10류 곡물	68	10류 곡물	69	26류 광, 슬랙, 회	10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949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860	85류 전기기기·TV·VTR	449	85류 전기기기·TV·VTR	357	85류 전기기기·TV·VTR	297
2	84류 보일러·기계류	325	84류 보일러·기계류	321	84류 보일러·기계류	329	84류 보일러·기계류	272	87류 일반차량	255
3	85류 전기기기·TV·VTR	310	85류 전기기기·TV·VTR	275	87류 일반차량	23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69	84류 보일러·기계류	252
4	87류 일반차량	241	87류 일반차량	25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31	87류 일반차량	198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02
5	10류 곡물	169	40류 고무와 그 제품	16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9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5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80
6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6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67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52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75
7	29류 유기화합물	135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46	61류 의류(편물제)	115	72류 철강	118	61류 의류(편물제)	120
8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30	73류 철강제품	107	40류 고무와 그 제품	115	15류 동식물성유지	107	72류 철강	99
9	40류 고무와 그 제품	108	29류 유기화합물	103	15류 동식물성유지	114	03류 어패류	102	03류 어패류	79
10	72류 철강	98	72류 철강	101	72류 철강	112	61류 의류(편물제)	98	15류 동식물성유지	78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2-11> 북한 수출 상위 10품목

(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84류 보일러·기계류	1,202	85류 전기기기·TV·VTR	314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30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516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287
2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82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294	26류 광, 슬랙, 회	140	26류 광, 슬랙, 회	252	62류 의류(편물제외)	410
3	87류 일반차량	201	84류 보일러·기계류	257	62류 의류(편물제외)	128	62류 의류(편물제외)	196	26류 광, 슬랙, 회	405
4	85류 전기기기·TV·VTR	198	26류 광, 슬랙, 회	214	84류 보일러·기계류	119	72류 철강	173	72류 철강	207
5	26류 광, 슬랙, 회	166	72류 철강	195	72류 철강	111	85류 전기기기·TV·VTR	157	85류 전기기기·TV·VTR	161
6	72류 철강	117	87류 일반차량	138	85류 전기기기·TV·VTR	106	84류 보일러·기계류	112	84류 보일러·기계류	159
7	62류 의류(편물제외)	80	89류 선박	107	03류 어패류	59	99 기타	103	87류 일반차량	121
8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72	62류 의류(편물제외)	93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53	73류 철강제품	80	03류 어패류	84
9	73류 철강제품	34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90	25류 토석류·소금	4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68	25류 토석류·소금	77
10	29류 유기화합물	31	25류 토석류·소금	44	99 기타	41	03류 어패류	65	79류 아연과 그 제품	67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품목	무역액
1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337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585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585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153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227
2	62류 의류(편물제외)	394	62류 의류(편물제외)	521	62류 의류(편물제외)	521	62류 의류(편물제외)	638	62류 의류(편물제외)	478
3	26류 광, 슬랙, 회	358	26류 광, 슬랙, 회	415	26류 광, 슬랙, 회	415	26류 광, 슬랙, 회	205	26류 광, 슬랙, 회	227
4	72류 철강	158	72류 철강	132	03류 어패류	118	61류 의류(편물제)	167	03류 어패류	196
5	84류 보일러·기계류	107	03류 어패류	118	72류 철강	132	03류 어패류	115	99 기타	91
6	85류 전기기기·TV·VTR	107	84류 보일러·기계류	118	85류 전기기기·TV·VTR	118	85류 전기기기·TV·VTR	113	61류 의류(편물제)	86
7	03류 어패류	103	85류 전기기기·TV·VTR	118	61류 의류(편물제)	89	72류 철강	89	72류 철강	76
8	29류 유기화합물	69	61류 의류(편물제)	89	08류 과실·견과류	32	71류 귀석, 반귀석, 귀금속	69	85류 전기기기·TV·VTR	64
9	61류 의류(편물제)	69	79류 아연과 그 제품	52	84류 보일러·기계류	118	99 기타	61	84류 보일러·기계류	58
10	87류 일반차량	54	25류 토석류·소금	46	99 기타	44	84류 보일러·기계류	59	08류 과실·견과류	5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제3장 북한무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적 용도별 수입실태 분석

제1절 산업구조별 분석

1. 산업별 분석

북한에서 무역의 최우선순위는 산업발전을 위한 원료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 북한당국은 “수입무역을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원료와 자재 그리고 기계설비를 대주는 문제이다”며 “나라의 경제발전은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의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35] 이처럼 북한의 수입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을 산업별로 분류해서 분석해보는 일은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 수입품목의 산업별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적인 호환성이 확보된 HS 코드를 기초로 산업을 재분류하는 방법을 택해 구분했다. HS 코드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해당 품목의 산업적 특성이 고려되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특성이 고려되는 측면이 강하다.[36] 따라서 통상 무역통계를 가지고 이를 산업통계로 재분류할 경우 연구 또는 분석 목적에 따라 산업의 계층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고일동[37] 등은 산업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산업을 이루는 기초단위 품목을 HS 2단위 수준에서 결정해 산업-품목(HS 코드) 연계표를 만들었다. 이 표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농림수산, 광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등 8개로 구분하고 총 21부로 코드로 나눴다.<표 3-1 참조>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해 북한 수입품의 산업별 분석을 했다.

35)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 34.
36) 고일동 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20.
37) 고일동 외, 위의 책, p. 21.

<표 3-1> 산업-품목(HS 코드) 연계표

산업	HS 부코드	품목명	HS 2단위 코드
농림수산	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05
	2부	식물성 생산품	06~14
	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
	4부	조제 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16~24
광산	5부	광물성 생산품	25~27
	13부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및 그 제품, 도자 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68~70
	14부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 입힌 금속과 그 제품, 진주,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71
화학·플라스틱·고무	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28~38
	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39~40
섬유·가죽	8부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품, 동물거트의 제품	41~43
	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50~63
	12부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그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4~67
목재·펄프·종이	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로토, 기타 조물재료제품, 농, 지조 세공물	44~46
	10부	목재펄프,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및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그 제품	47~49
철강·금속	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72~83
기계·전기전자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	84~85
	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89
	18부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그 부분품	90~92
잡제품	19부	무기, 총포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
	20부	잡품	94~96
	21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7

자료 :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21.

<표 3-2> 산업별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산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수산	440	430	449	408	495	677	627	666	529	400
광산	1,521	2,150	892	1,341	1,002	1,032	970	381	406	292
화학·플라스틱·고무	297	404	310	377	504	583	611	527	471	413
섬유·가죽	232	411	434	374	518	613	739	841	692	741
목재·펄프·종이	61	67	49	51	58	68	78	89	91	80
철강·금속	177	278	214	285	263	270	310	319	281	213
기계·전기전자	364	457	525	708	888	949	940	1,074	884	837
잡제품	28	80	66	57	75	86	89	127	147	92
합계	3,120	4,276	2,939	3,600	3,803	4,279	4,364	4,024	3,501	3,068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1 :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21를 참조하여 작성

주2 : HS 2단위 기준 품목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99류(기타)는 제외

북한의 산업별 수입액은 <표 3-2> 와 같다. 북한의 전체 산업별 수입액은 2007년(31억2,000만 달러) 이후 2013년에 43억6,40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2013년을 전후로 해 2012~2014년 동안 수입액이 정점을 찍었다. 이후 북한의 전체 산업별 수입액은 소폭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금액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2013~2014년에는 광산부문은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2013년 섬유·가죽 부문의 수입액은 중국과의 위탁무역 등에 힘입어 2007년 대비 수입액이 3배 이상 늘었고, 기계·전기전자 부문도 북한의 경공업 산업 육성[38] 등에 힘입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화학·플라스틱·고무, 철강·금속 부문은 2012년을 전후로 있었던 북한의 건설 붐에 의해, 농림수산 부문은 시장 확대로 인한 북한 주민의 수익증대로 소비수준이 상승한 것 등으로 인해 2007년 대비 수입액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광산 부문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석탄의 수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관련 산업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8) 김정은은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려면 농업 전선과 함께 경공업 전선에 힘을 집중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10년 만에 개최된 경공업대회에 직접 참석해 육성연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9일.

2. 기술수준별 분석

북한의 수입액 중에서는 공산품 수입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표 3-5> 참조. 전체 수입액 중 공산품의 수입액 비중은 2007년 64.2%였으나 2008년 71.2%, 2015년 81.6%까지 늘었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80.9%에 이른다. 이에 공산품의 수입품 분석이 북한 경제변화 동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해 KOTRA가 밝힌 분류기준에 근거해 북한의 수입 공산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다.<표 3-3 참조>

북한의 산업 업종을 기술수준으로 구분해보면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고위기술수준에는 의약품, 우주항공, 전자통신, 정밀계측 · 사무용기기 등이 속하고 중고위기술 수준에는 화학원료 · 제품, 화학섬유, 일반기계, 특수목적기계, 전기기기 · 장비,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저위기술수준에는 석유가공 · 코크스,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자전거 등이, 저위기술에는 음식료품 · 담배, 가죽 · 모피, 섬유, 의류 · 섬유제품, 목재 · 가구, 종이 · 인쇄, 기타 공산품 등이 속한다.

이에 근거한 북한의 수입액 중 공산품 수입액은 2007년 19억7,068만 달러였으나 2014년 32억9,17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이후 2015년 28억6,953만 달러, 2016년에는 25억5,727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공산품 업종 중 수입액이 많은 순서는 중고위기술>저위기술>중저위기술>고위기술 순이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중고위기술은 2007년 4억9,156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2012년에는 11억8,035만 달러까지 수입액이 증가했고 이후 2016년에는 9억1,048만 달러로 수입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위기술 중 화학섬유 업종은 2007년에는 화학원료·제품(1억5,164만 달러)보다 낮은 수입액(8,567만 달러)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역전해 화학원료·제품(1억4,020만 달러)보다 높은 수입액(2억4,482만 달러)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기타운송기기의 수입액 증가도 눈에 띈다. 자동차는 2007년 5,792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2009년에는 1억1,151만 달러, 2013년에는 2억3,195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이후 수입액이 소폭 감소해 2016년에는 2억886만 달러를 수입한 바 있다. 기타운송기기도 2007년 수입액은 285만 달러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1,078만 달러, 2012년에는 3,237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2016년 2,413만 달러로 감소하긴 했으나 2007년에 대비해서는 수입액이 646%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기기기·장비도 2007년 수입액이 5,832만 달러였으나 2010년 1억384만 달러, 2014년에는 2억1,847만 달러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1억3,114만 달러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2007년에 비하면 2016년 수입액은 125% 증가한 것이다.

저위기술부문도 2007년 수입액이 3억2,903만 달러였으나 2014년 9억3,064만 달러까지 증가했고, 2016년에는 7억2,562만 달러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중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하는 업종은 섬유 부문이다. 섬유부문은 2007년 수입액이 8,967만 달러에서 2008년 1억8,781만 달러, 2009년 2억3,026만 달러, 2012년 3억864만 달러, 2014년 4억4,077만 달러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16년 3억9,705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죽·모피제품도 2016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115% 상승했으며, 의류·섬유제품도 488% 증가했다. 북한 노동력 중심의 섬유 임가공으로 인해 섬유 및 의류 가공 업종의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외에도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목재·가공부문도 157%, 종이·인쇄 부문도 62% 증가했다. 업종별로 수입이 늘고, 관련 산업도 최근 원재료의 수입 등으로 10여년 전과 달리 좀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저위기술부문은 수입액이 2007년 10억3,231만 달러에서 2008년은 16억4,34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에는 6억1,197만 달러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위기술부문의 수입액 감소를 이끈 것은 석유가공·코크스 업종의 수입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07년(7억5,836만 달러) 대비 2016년 수입액(1억2,730만 달러)은 8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위기술부문에서도 자전거 업종은 2016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536% 늘어났으며 플라스틱과 비금속 광물 부문도 각각 185%, 184% 증가했으나 전체 중저위기술부문의 수입액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고위기술부문은 전체 공산품 중 수입액이 아직은 가장 적지만 2007년(1억1,777만 달러) 대비 2016년 수입액(3억921만 달러) 성장률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2014년 전체 공산품 중 고위기술부문의 수입액은 4억1,08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49% 늘었다.

고위기술부문의 수입액이 대폭 상승한 것은 전자통신 업종에 의한 것으로 2007년 수입액은 7,768만 달러였으나 2014년 3억4,289만 달러까지 증가했고, 이후 2016년 수입액이 줄긴 했으나 2억6,198만 달러로 2007년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주항공 업종은 2016년에는 10만 달러 정도 수입을 했으나 연도별로 증감이 커 2013년에는 2,325만 달러, 2015년에는 2,296만 달러를 수입하기도 했다.(<표 3-4>참고)

비중별로 살펴보면 고위기술은 공산품 수입액 전체에서 2007년 6.0%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 10.1%를 돌파하고, 2015년에는 12.6%, 2016년에는 12.1%에 이른다. 전체 기술수준별 공산품 수입액 중 고위기술부문은 아직 비중은 낮지만 수입액 성장률은 가장 높았다. 고위기술의 성장을 이끈 것은 전자통신업종이다. 전자통신업종은 전체 공산품 중에서 2007년 3.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10.4%를, 2016년에는 10.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섬유(1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중고위기술부문도 전체 공산품 중 비중이 2007년 24.9% 정도였으나 2010년 31.0%, 2011년 42.9%까지 늘었고, 이후 소폭씩 감소하다가 2016년에는 35.6%로 증가했다. 중고위기술부문은 특정 업종의 비중이 높지 않고 10%이내에서 업종별로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학원료 · 제품은 전체 공산품 중 비중이 2007년 7.7%에서 2011년 11.2% 상승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여서 2016년에는 비중이 5.5%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화학섬유의 경우 전체 공산품 중 비중이 2007년 4.3%에서 2016년 9.6%까지 상승했고, 자동차도 2007년 비중이 2.9%였으나 2016년 8.2%, 기타운송기기도 2007년 0.1%에서 2016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섬유와 자동차 업종의 성장세가 전체 중고위기술의 비중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중저위기술부문에서는 자전거와 플라스틱 등의 전체 공산품 수입액 중 비중이 2007년 대비 2016년 각각 400%, 119% 증가했으나 워낙 전체 공산품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0.1~7% 정도로 작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가공 · 코크스 업종의 수입액이 전체 공산품 수입액 중 2007년 38.5%, 2008년 40.2%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17.7%, 2011년 9.9%, 2014년 6.0%, 2016년 5.0%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석유가공 · 코크스 업종의 비중 감소는 전체 중저위기술 부분의 비중 축소로 이어졌다. 중저위기술은 2007년 당시 공산품 전체 중에서 비중이 절반 이상(52.4%)이었고 2008년도 53.3%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09년은 32.9%, 2011년 27.3%, 2013년은 25.5%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도 23.9%에 그쳤다. 북한의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이 중심이었으나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위기술 부문은 2007년 수입액 비중이 전체 공산품 수입액 비중의 16.7%였으나, 2008년 20.1%로, 2009년과 2016년 각각 28.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중 성장을 이끈 것은 섬유업종으로 2007년 전체 공산품 수입액 비중의 4.6%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10.9%, 2014년에는 13.4%, 2016년에는 15.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섬유제품의 비중도 2016년에는 2007년(0.5%) 대비 320% 확대되었다.<표 3-5>참고.

2016년 기준, 전체 북한 공산품 중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은 섬유(15.5%)>전자통신(10.2%)>화학섬유(9.6%)>자동차(8.2%)>플라스틱(7.0%)>철강(6.1%)>화학원료·제품(5.5%)>전기기기·장비(5.1%) 등이다. 그러나 2007년에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은 단연 석유가공・코크스(38.5%)였다. 이 외에 철강(5.9%), 음식료품·담배(5.4%) 등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5% 이내로 수입업종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16년 북한의 공산품 수입은 특정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목이 다양해졌고 섬유, 전자통신, 화학섬유, 자동차 등의 수입은 북한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 기술 수준별 공산품 분류

기술수준	업종	HS 코드
고위기술	의약품	30
	우주항공	88
	전자통신	8517, 8525, 8526, 8471, 847330, 8540, 8541, 8542, 8518, 8519, 8520, 8521, 8522, 8523, 8524, 8527, 8528, 8529, 850431, 850450, 850490, 8530,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3
	정밀계측·사무용기기	8469, 8470, 8472, 8473(847330 제외),90,91
중고위기술	화학원료·제품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화학섬유	54, 55
	일반기계	8401-8431(8415, 8417, 8418, 8419 제외),8480-8485
	특수목적기계	8432-8468, 8474-8479, 93(무기)
	전기기기·장비	8415, 8417-8419, 8450, 8509-10, 8516, 8501-08(850431, 850450, 850490 제외), 8512-8513, 8544-8548, 9405
	자동차	8701-8710
	기타운송기기	86, 8711, 871410, 871420, 8713, 8715, 8716
중저위기술	석유가공·코크스	2704-2708, 2710-2715
	플라스틱	39
	비금속광물	68, 69, 70
	철강	72, 73
	비철금속	74-81
	금속제품	82, 83
	조선	89
	자전거	8712, 8714(871410, 871420 제외)
저위기술	음식료품·담배	16-19, 21, 22, 24
	가죽·모피	41(4101-4103, 411520 제외),42, 43(4301 제외),6401,6403,6405(640521제외),6406(640691,640699제외)
	섬유	50-53(5001, 5002, 5104, 5105, 5201, 5202, 5301-05 제외),56-60,61,63,9404
	의류·섬유제품	62, 6404, 640520, 640691, 640699, 65
	목재·가구	44(4401, 4403, 4404 제외),45,46,9401-9403
	종이·인쇄	47, 48, 49
	기타 공산품	92, 9501,9503, 9504, 9506, 9507, 9608-9612, 66, 67, 71, 9406, 9502, 9505, 9601-9607, 9613-18, 9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2006년 한중무역구조 분석 –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무역구조를 중심으로』(한국무역협회, 2007), p. 32.

<표 3-4> 기술 수준별 공산품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기술수준	업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위기술	의약품	17,404	13,432	24,751	24,841	19,314	28,622	28,746	30,715	34,046	19,147
	우주항공	1,314	263	254	16	228	708	23,248	1,057	22,958	102
	전자통신	77,682	124,997	152,515	209,818	217,973	233,223	213,536	342,886	279,406	261,982
	정밀계측·사무용기기	21,372	26,924	27,058	40,025	24,956	30,954	50,402	36,140	25,819	27,976
	소계	117,772	165,616	204,578	274,700	262,471	293,507	315,932	410,799	362,229	309,206
중고위기술	화학원료·제품	151,640	259,348	171,420	206,557	289,018	304,895	261,685	182,538	172,697	140,201
	화학섬유	85,669	97,754	104,251	138,713	207,010	216,215	244,343	263,271	215,437	244,818
	일반기계	83,321	82,551	74,074	93,637	134,604	137,578	148,449	135,110	107,342	102,749
	특수목적기계	51,840	61,471	66,355	82,243	113,740	107,123	91,542	93,249	71,282	58,576
	전기기기·장비	58,320	68,700	78,316	103,839	130,255	162,011	147,040	218,469	175,220	131,138
	자동차	57,922	75,820	111,512	155,988	218,936	220,163	231,946	189,315	159,045	208,862
	기타운송기기	2,852	8,772	9,587	10,781	18,460	32,368	13,608	26,346	14,988	24,131
	소계	491,564	654,416	615,514	791,758	1,112,021	1,180,354	1,138,613	1,108,298	916,011	910,475
중저위기술	석유가공·코크스	758,362	1,240,793	375,460	645,559	255,691	311,672	215,569	198,150	209,613	127,295
	플라스틱	63,081	85,971	78,035	78,035	115,820	142,036	155,513	199,134	175,048	179,617
	비금속광물	22,585	31,014	27,299	26,663	44,642	49,590	65,488	83,080	85,802	64,106
	철강	116,487	209,554	145,874	210,703	171,333	174,500	208,394	184,454	181,818	155,739
	비철금속	54,086	49,383	50,536	58,384	73,157	73,771	76,655	103,582	75,689	38,076
	금속제품	6,365	19,170	17,203	16,043	18,836	21,247	24,478	30,486	23,791	18,972
	조선	7,344	5,401	833	4,545	17,198	12,190	3,682	13,724	2,894	2,684
	자전거	4,005	2,118	2,602	8,940	11,633	16,818	20,226	29,350	28,908	25,484
	소계	1,032,314	1,643,404	697,842	1,048,872	708,312	801,823	770,005	841,961	783,564	611,974
저위기술	음식료품·담배	107,046	165,016	186,674	113,520	83,933	145,494	154,610	177,046	125,874	79,742
	가죽·모피	16,677	40,630	23,245	23,865	41,211	51,999	67,321	70,854	40,274	35,842
	섬유	89,672	187,806	230,257	186,019	238,975	308,641	381,657	440,770	380,784	397,050
	의류·섬유제품	9,003	51,210	40,586	17,162	13,400	22,352	30,541	46,129	39,764	52,944
	목재·가구	16,879	19,517	15,087	18,530	23,272	27,571	34,179	50,958	45,591	43,147
	종이·인쇄	38,960	56,077	42,087	42,559	47,838	58,201	64,494	70,043	69,112	63,097
	기타 공산품	50,793	99,395	63,224	38,701	59,772	57,469	64,665	74,843	106,331	53,796
	소계	329,031	619,652	601,161	440,356	508,401	671,727	797,468	930,644	807,730	725,619
공산품 전체		1,970,680	3,083,088	2,119,095	2,555,686	2,591,205	2,947,412	3,022,018	3,291,702	2,869,534	2,557,274
전체수입액		3,157,367	4,328,460	2,995,816	3,624,480	3,813,180	4,295,314	4,371,089	4,051,055	3,514,526	3,159,763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3-5> 기술 수준별 공산품 수입액 비중

(단위 : %)

기술수준	업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위기술	의약품	0.9	0.4	1.2	1.0	0.7	1.0	1.0	0.9	1.2	0.7
	우주항공	0.1	0.0	0.0	0.0	0.0	0.0	0.8	0.0	0.8	0.0
	전자통신	3.9	4.1	7.2	8.2	8.4	7.9	7.1	10.4	9.7	10.2
	정밀계측·사무용기기	1.1	0.9	1.3	1.6	1.0	1.1	1.7	1.1	0.9	1.1
	소계	6.0	5.4	9.7	10.7	10.1	10.0	10.5	12.5	12.6	12.1
중고위기술	화학원료·제품	7.7	8.4	8.1	8.1	11.2	10.3	8.7	5.5	6.0	5.5
	화학섬유	4.3	3.2	4.9	5.4	8.0	7.3	8.1	8.0	7.5	9.6
	일반기계	4.2	2.7	3.5	3.7	5.2	4.7	4.9	4.1	3.7	4.0
	특수목적기계	2.6	2.0	3.1	3.2	4.4	3.6	3.0	2.8	2.5	2.3
	전기기기·장비	3.0	2.2	3.7	4.1	5.0	5.5	4.9	6.6	6.1	5.1
	자동차	2.9	2.5	5.3	6.1	8.4	7.5	7.7	5.8	5.5	8.2
	기타운송기기	0.1	0.3	0.5	0.4	0.7	1.1	0.5	0.8	0.5	0.9
	소계	24.9	21.2	29.0	31.0	42.9	40.0	37.7	33.7	31.9	35.6
중저위기술	석유가공·코크스	38.5	40.2	17.7	25.3	9.9	10.6	7.1	6.0	7.3	5.0
	플라스틱	3.2	2.8	3.7	3.1	4.5	4.8	5.1	6.0	6.1	7.0
	비금속광물	1.1	1.0	1.3	1.0	1.7	1.7	2.2	2.5	3.0	2.5
	철강	5.9	6.8	6.9	8.2	6.6	5.9	6.9	5.6	6.3	6.1
	비철금속	2.7	1.6	2.4	2.3	2.8	2.5	2.5	3.1	2.6	1.5
	금속제품	0.3	0.6	0.8	0.6	0.7	0.7	0.8	0.9	0.8	0.7
	조선	0.4	0.2	0.0	0.2	0.7	0.4	0.1	0.4	0.1	0.1
	자전거	0.2	0.1	0.1	0.3	0.4	0.6	0.7	0.9	1.0	1.0
	소계	52.4	53.3	32.9	41.0	27.3	27.2	25.5	25.6	27.3	23.9
저위기술	음식료품·담배	5.4	5.4	8.8	4.4	3.2	4.9	5.1	5.4	4.4	3.1
	가죽·모피	0.8	1.3	1.1	0.9	1.6	1.8	2.2	2.2	1.4	1.4
	섬유	4.6	6.1	10.9	7.3	9.2	10.5	12.6	13.4	13.3	15.5
	의류·섬유제품	0.5	1.7	1.9	0.7	0.5	0.8	1.0	1.4	1.4	2.1
	목재·가구	0.9	0.6	0.7	0.7	0.9	0.9	1.1	1.5	1.6	1.7
	종이·인쇄	2.0	1.8	2.0	1.7	1.8	2.0	2.1	2.1	2.4	2.5
	기타 공산품	2.6	3.2	3.0	1.5	2.3	1.9	2.1	2.3	3.7	2.1
	소계	16.7	20.1	28.4	17.2	19.6	22.8	26.4	28.3	28.1	28.4
공산품 전체		100.0/64.2	100.0/71.2	100.0/70.7	100.0/70.5	100.0/68.0	100.0/68.6	100.0/69.1	100.0/81.3	100.0/81.6	100.0/80.9
전체수입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제2절 용도별 분석

북한 수입품목의 용도별 분류는 UN comtrade database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중 BEC 코드에 의한 분류를 활용해 경제적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39]

BEC는 경제적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여주는 코드로 수입품목을 음식료, 산업용 원자재·중간재(industrial supplies), 연료, 자본재 및 그 부품, 수송기기, 소비재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또 2~3개로 세분화해서 나타낸다. <표 3-6>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BEC 2단위에 따라 북한의 용도별 수입구조를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의 주력 수입품인 음식료품(BEC 11, 12)은 전체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연료(BEC 31, 32, 북한의 경우 주로 석유)는 2014년에는 1차, 가공 연료 모두 급감하다가 2015년 가공 연료 부문에서 수입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는 1차산품과 가공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산품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5년 수입액과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가공품의 경우 수입액이 2008년, 2010년 2억 달러를 간신히 넘기고 2014년 3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만큼 수입하기도 하는 등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용도별 수입품중 비중은 연도별로 큰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료는 1차산품과 가공품 모두 2007년에 비해 2016년 현재 수입액과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전체 수입품목 중 본 논문의 4장, 주요 품목별 분석에서 살펴보는 음식료와 연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업용 원자재·중간재, 자본재, 수송기기, 소비재 등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과 수입액 등이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산업용 중간재의 경우 수입액은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본재도 2014년 수입액이 5억5,000만 달러에 이르러 2007년 수입액(1억6,000만 달러)에 비해 3배가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3.6%를 기록해, 2007년(5.1%)에 비해 2.67배 상승하는

39) 김석진 등은 본래의 BEC 코드에서 옥수수(HS 1005)가 식품가공업의 원료로서 BEC 12, 즉 산업용 원자재(1차)로 분류되지만 북한의 실정에 맞게 BEC 11(음식료(1차))에 포함했다. 김석진, "제조업 분야 북중무역 분석,"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182.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하는 북한 식량수급량 추정 등의 자료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글에서도 BEC 12 옥수수를 BEC 11에 포함시켰다.

정도에 그쳤다. 북한의 소비재 수입액 비중에 비해 가격상승이 더욱 높은 것을 미루어볼 때 전반적인 공산품 수입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자본재 부품은 금액으로 보면 2013, 2015,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2007년(7,832만 달러)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지난 10년 간 큰 변동 없이 2% 내외를 기록했다.

승용차의 수입액은 2007년 785만 달러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250만 달러, 4,519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금액으로는 대폭 상승했다. 반면에 전체 용도별 수입품중 비중에서 보면 아직 1%미만인 상황에서 2007년(0.2%)에 비해 2008년 2배 상승했으며,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용도별 수입품중 0.9~1.1% 사이의 비중을 보여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2015년, 2016년 용도별 수입품중 비중은 각각 0.7%, 0.6%, 0.8%를 기록했다.

기타 수송기기와 수송용 수송기기 부품도 수입액과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타수송기기는 2007년 수입액이 5,241만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2억1,805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1억7,000만~1억8,000만 달러 선으로 소폭 하락했다.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2007년 1.7%였으나 2009년 2.7%, 2010년 3.5%, 2011년 5.2% 등 상승추세에 있다가 2012년 이후로는 5% 정도를 유지하고 2016년에는 6.9%로 상승했다.

수송기기부품의 수입액도 2007년(3,352만 달러)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4년 최고액인 1억2,729만 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2015년 1억645만 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수송기기부품도 2011년 이후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2%였으나 2014년 이후 3%로 상승했다.

아울러 식품을 제외한 소비재는 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반내구재의 용도별 수입액중 비중은 2007년에 비해 금액과 비중 등이 각각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도 용도별 수입액과 비중이 2007년에 비해 각각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북한의 용도별 수입액 추이

(단위 : 천 달러)

코드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53	61	62	63	7	합계
범주명	음식료 (1차)	음식료 (가공)	산업용 원자재 (1차)	산업용 중간재 (가공)	연료 (1차)	연료 (가공)	자본재	자본재 부품	승용차	기타 수송 기기	수송 기기 부품	내구 소비재	반(半)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기타	
2007	71,760	293,924	358,526	590,538	519,549	755,818	160,922	78,321	7,849	52,409	33,523	49,074	59,524	88,139	30,079	3,149,955
2008	78,567	217,134	515,628	1,099,830	516,831	1,018,152	227,148	82,059	16,588	66,551	31,200	48,160	192,481	164,386	38,957	4,313,673
2009	74,137	247,576	260,790	789,147	381,386	327,712	263,344	85,448	33,811	81,811	32,146	48,966	168,279	179,541	21,660	2,995,754
2010	57,523	215,191	360,085	1,017,373	384,215	616,707	387,769	82,989	32,000	127,648	55,462	53,874	95,918	112,502	25,380	3,624,637
2011	88,434	249,959	226,585	1,278,136	571,320	249,115	450,185	104,033	38,148	200,120	71,206	59,105	99,963	116,575	10,295	3,813,180
2012	95,574	287,698	226,368	1,408,551	636,003	309,188	472,454	100,954	42,498	214,140	87,350	78,539	140,077	178,692	17,065	4,295,152
2013	112,232	331,743	214,431	1,486,195	642,956	214,005	451,251	88,360	45,194	218,045	90,603	88,139	184,274	195,748	7,913	4,371,089
2014	148,586	361,829	157,599	1,509,012	27,765	192,695	550,797	107,305	26,928	188,500	127,293	146,235	246,391	233,385	26,736	4,051,055
2015	141,031	295,363	88,436	1,341,092	53,726	202,086	446,661	99,875	21,630	176,699	106,451	146,592	188,927	196,888	8,971	3,514,427
2016	128,696	204,422	43,892	1,219,502	71,974	124,425	383,576	70,914	25,718	212,365	100,649	120,515	186,402	177,497	5,264	3,075,813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3-7> 북한의 용도별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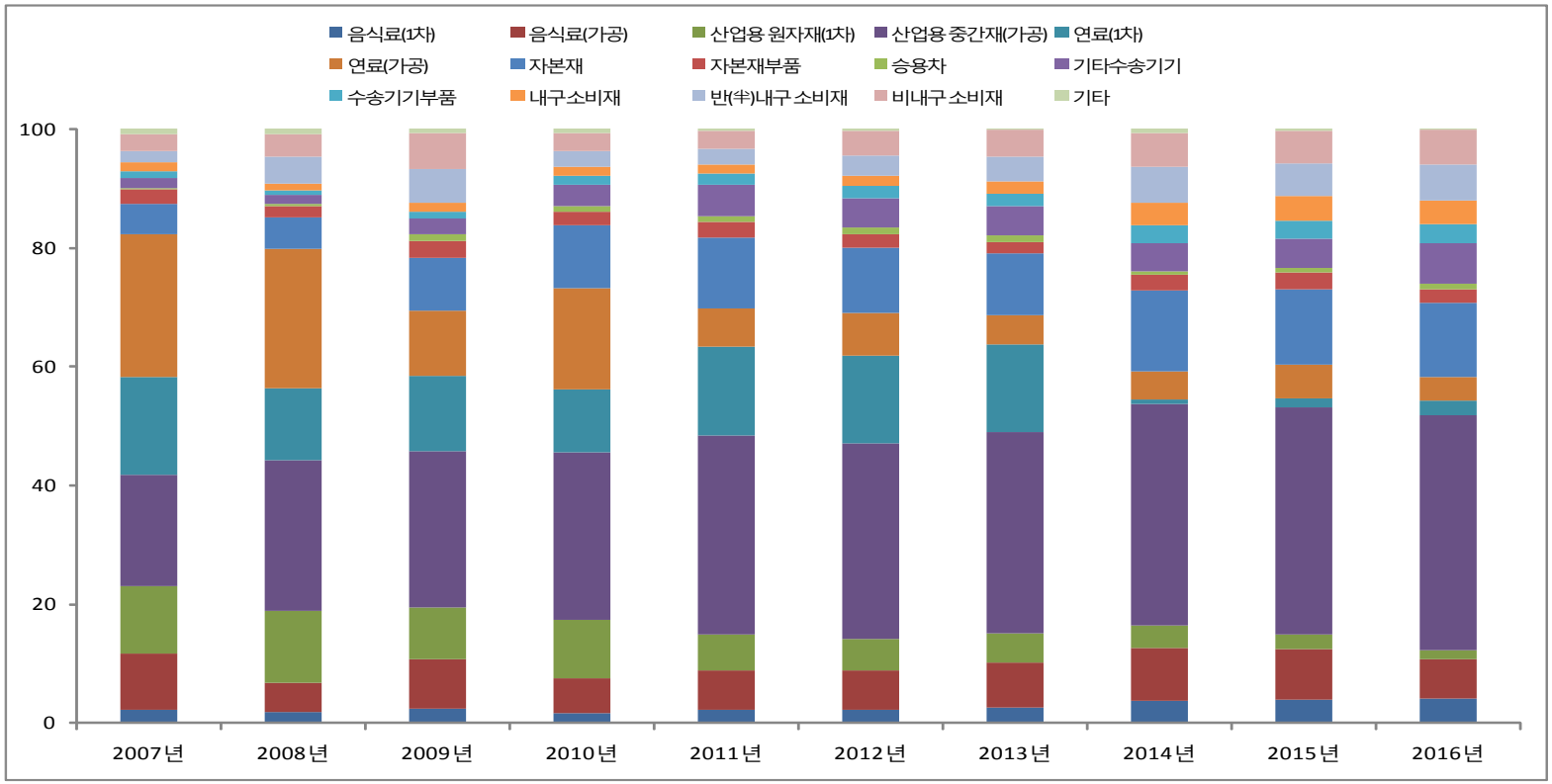
(단위 : %)

코드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53	61	62	63	7	합계
범주명	음식료 (1차)	음식료 (가공)	산업용 원자재 (1차)	산업용 중간재 (가공)	연료 (1차)	연료 (가공)	자본재	자본재 부품	승용차	기타 수송 기기	수송 기기 부품	내구 소비재	반(半)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기타	
2007	2.3	9.3	11.4	18.7	16.5	24.0	5.1	2.5	0.2	1.7	1.1	1.6	1.9	2.8	1.0	100.0
2008	1.8	5.0	12.0	25.5	12.0	23.6	5.3	1.9	0.4	1.5	0.7	1.1	4.5	3.8	0.9	100.0
2009	2.5	8.3	8.7	26.3	12.7	10.9	8.8	2.9	1.1	2.7	1.1	1.6	5.6	6.0	0.7	100.0
2010	1.6	5.9	9.9	28.1	10.6	17.0	10.7	2.3	0.9	3.5	1.5	1.5	2.6	3.1	0.7	100.0
2011	2.3	6.6	5.9	33.5	15.0	6.5	11.8	2.7	1.0	5.2	1.9	1.6	2.6	3.1	0.3	100.0
2012	2.2	6.7	5.3	32.8	14.8	7.2	11.0	2.4	1.0	5.0	2.0	1.8	3.3	4.2	0.4	100.0
2013	2.6	7.6	4.9	34.0	14.7	4.9	10.3	2.0	1.0	5.0	2.1	2.0	4.2	4.5	0.2	100.0
2014	3.7	8.9	3.9	37.2	0.7	4.8	13.6	2.6	0.7	4.7	3.1	3.6	6.1	5.8	0.7	100.0
2015	4.0	8.4	2.5	38.2	1.5	5.8	12.7	2.8	0.6	5.0	3.0	4.2	5.4	5.6	0.3	100.0
2016	4.2	6.6	1.4	39.6	2.3	4.0	12.5	2.3	0.8	6.9	3.3	3.9	6.1	5.8	0.2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그림 3-1> 북한의 용도별 수입 비중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1. 자본재

자본재는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재화로 정의되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투자를 많이 할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자본재 수입 추세와 경제성장 추세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수송장비 등의 자본재는 자본·기술집약 품목이어서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생산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따로 수입을 할 필요가 없고 1인당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나라에서는 저축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별로 없는데다, 수출능력도 빈약해서 자본재 수입을 위한 외화를 충분히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40] 특히 국가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 가능한 자본재의 범위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재의 수입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큰 상황이다.[41] 북한도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인데다가 1960년대 이후 자립경제노선을 견지하며 자체 생산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자본재 등은 북한의 산업 재건 노력 등을 엿볼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 간 북한의 자본재에 속하는 주요 품목(HS 4단위 기준)의 수입 동향은 다음 <표 3-8>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에 정리된 주요 자본재들의 수입액은 전체 자본재 수입액의 5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본재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통신기기와 비디오카메라로 2007년을 제외하고 그 이후는 매년 1위를 차지했다. 2007년 북한의 자본재 수입액 중 비중 1위를 차지한 컴퓨터는 통신기기, 비디오카메라 등에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벗어나면서 2000년대 이후 자본재와 수송기기 등의 수입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수입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42] 이 연구의 연구기간인 2007년부터는 이미 수입이 늘어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본재, 수송기기, 핸드폰 등의 수입은 2007년 대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제품은 핸드폰으로 2007년에는 1만4,000대 정도 수입했으나 2008년 3만대, 2009년 6만9,000대에서 2010년에는 43만5,000대, 2011년에는 68만8,000대, 2012년에는 94만9,000대를 수입했다. 이후 2013년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40)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 산업의 재건 실태”, 『Issue Paper』 (서울: 산업연구원, 2007), pp. 32~34.
41) 위의 책, pp. 33.
42) 김석진, “제조업 분야 북중무역 분석”,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186.

의해 북한경제 성장이 주춤한 이유로 추정되는데 핸드폰 수입이 58만7,000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07만7,000대 수입으로, 한해 수입만으로도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2015년, 2016년도에도 각각 75만대 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알려진 바로는 2017년 3월 현재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370만명(전체 북한 인구 대비 15% 수준)이며 북한 주민의 핸드폰 보급률은 평양에 국한할 경우 70% 전후에 달한다고 한다.[43] 특히 이 수치는 북한당국의 공인 단말기 이용자 수 기준이며, 이와 별개로 불법으로 반입된 중국 통신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에서 핸드폰은 단순한 통화의 목적 외에도 인터넷쇼핑몰 구매 등으로도 활용하는 등 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 조사 등을 보면 주민들은 주로 핸드폰을 장사 등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제품이나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44] 실제 북한에서는 국가 경제의 자동화와 컴퓨터, 태블릿 PC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에 필요한 각종 S/W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식 운영체계인 '붉은별'과 CNC기술 지원 프로그램(공작기계, 자동화), 공장 및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다국어문자인식, 기계번역기, 게임 등이 있다. 또한 내부 인트라넷과 단말기 보급 확대를 활용해 평양을 중심으로 통신판매와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전자인증법(2011년) 등의 법령을 제정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통신판매는 중국산 전기제품이 많은데, 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전자결제 수단으로 수수료 없이 상점과 호텔 등의 다양한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없이 재발급이 가능한 비밀번호 4자리의 '나래카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45]

---

43) 최근 KOTRA가 IT Media News, Harbor Business Online, 동양경제 및 KOTRA 후쿠오카무역관 자료를 종합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핸드폰 가입자는 370만명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마케팅 기업 'We are social'사와 캐나다의 IT기업 'Hootsuite'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17년 3월 현재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 수는 3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인구(약 2,500만명) 대비 약 1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북한 정보』 http://news.kotra.or.kr.

44) 북한은 자체 인트라넷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를 다수 개발, 일반 주민이 이를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이나 학습,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높은 온라인 쇼핑몰 '옥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제품이나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북한 정보』 http://news.kotra.or.kr.

45) 이춘근, 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pp. 13~14.

<표 3-8> 북한의 주요 자본재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HS	8517 + 8525	8471	8474	8429	8544	8504	8414	8413	8502	8537	주요 자본재 수입액	전체 자본재 수입액[1]
품명	통신기기,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광업용 기계류	건설용 기계류	전선, 케이블	변압기, 변환기	펌프, 압축기, 팬	액체 펌프	발전 세트와 회전 변환기	배전용 기반		
2007	10,013	22,196	9,256	10,416	6,639	7,572	12,123	6,393	2,185	2,859	89,653	167,561
	6.0	13.2	5.5	6.2	4.0	4.5	7.2	3.8	1.3	1.7	53.5	100.0
2008	28,965	20,273	15,193	16,156	10,836	10,457	16,407	4,627	4,426	3,358	130,701	237,984
	12.2	8.5	6.4	6.8	4.6	4.4	6.9	1.9	1.9	1.4	54.9	100.0
2009	38,399	24,848	23,302	11,109	9,774	14,979	10,139	6,307	5,392	10,222	154,473	273,118
	14.1	9.1	8.5	4.1	3.6	5.5	3.7	2.3	2.0	3.7	56.6	100.0
2010	76,168	58,809	24,619	23,729	15,816	21,386	13,097	8,642	7,046	7,898	257,212	403,585
	18.9	14.6	6.1	5.9	3.9	5.3	3.2	2.1	1.7	2.0	63.7	100.0
2011	97,003	24,753	27,816	38,207	34,293	24,153	15,779	12,677	8,713	10,461	293,857	484,478
	20.0	5.1	5.7	7.9	7.1	5.0	3.3	2.6	1.8	2.2	60.7	100.0
2012	109,241	29,026	26,934	40,974	32,470	47,200	12,003	10,070	13,249	9,432	330,601	504,925
	21.6	5.7	5.3	8.1	6.4	9.3	2.4	2.0	2.6	1.9	65.5	100.0
2013	78,123	33,933	22,686	34,621	28,331	30,403	11,808	8,918	11,829	7,521	268,176	479,582
	16.3	7.1	4.7	7.2	5.9	6.3	2.5	1.9	2.5	1.6	55.9	100.0
2014	115,570	39,678	23,016	26,072	29,609	32,374	16,989	10,183	17,577	7,898	318,967	580,406
	19.9	6.8	4.0	4.5	5.1	5.6	2.9	1.8	3.0	1.4	55.0	100.0
2015	75,456	53,776	12,007	21,613	22,312	32,938	12,681	9,870	25,840	4,505	271,002	468,974
	16.1	11.5	2.6	4.6	4.8	7.0	2.7	2.1	5.5	1.0	57.8	100.0
2016	68,750	49,718	12,135	19,541	17,184	16,021	11,606	6,559	12,204	2,044	215,764	400,760
	17.2	12.4	3.0	4.9	4.3	4.0	2.9	1.6	3.0	0.5	53.8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전선, 케이블(HS 8544)은 BEC 코드에서는 22(산업용 중간재)에 속하지만, 다른 전력부문 설비와의 관련성이 높아 여기서는 자본재로 간주했다 따라서 전체 자본재 수입액은 BEC 기준 자본재 수입액에 전선, 케이블(HS 8544)을 합친 금액

<표 3-9>을 살펴보면, 핸드폰 외에 노트북(휴대용 컴퓨터)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7년 북한의 노트북 수입량은 1,000대 수준이었으나 2009년 1만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2013년에는 10만대를 넘겼으며, 2015년 23만9,000대에 이어 2016년 30만5,000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일 시기부터 추진하던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과 'CNC화', '인트라넷 구축' 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전당 신설과 사이버교육, 사이버진료, 전자결제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수준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46] 반면에 데스크탑 컴퓨터는 북한이 정보화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그 수입량이 미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데스크탑은 지난 2007년 4만6,000대 정도를 수입한 데 이어 2008년, 2010년 각각 최대 수입량인 6만대 가량을 수입했으나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 2015년에는 1만9,000대, 2016년에는 1만3,000대까지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북한의 핸드폰 및 컴퓨터 주요 품목 수입물량 추이

(단위: 천대)

HS 코드	품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51712	핸드폰	14	30	69	435	688	949	587	1,077	753	749
847130	휴대용 컴퓨터	1	3	10	19	25	59	108	127	239	305
847141, 49	컴퓨터	46	60	56	60	43	29	21	23	19	13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핸드폰과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재는 대체로 기계류이며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광업용 기계, 건설용 기계, 전력설비, 펌프 등이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히 광업, 건설업, 전력 부문 등을 주력해서 육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광업용 기계류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을 손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광산들을 산하에 보유하고 있거나 권력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당 또는 군 기관들이 특권부문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이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석탄이나 철광석 등 자원 생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47]

46) 이춘근, 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p. 3.

200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탄광 개발보다는 기존 탄광들에 대한 생산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광산에서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선광장 개건, 룡양광산 채굴장 건설 등 기존 광산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었다.[48]

이와 같이 북한당국의 광업에 대한 지원으로 광산에 대한 생산량은 증대되었고, 이에 힘입어 광업용 기계류의 수입액은 2007년 926만 달러였으나 2011년 2,782만 달러로 최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01만 달러, 1,214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 후반 이후 건설용 기계류의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이 시기 북한이 대규모 주택 건설, 발전소 건설 등 건설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일환으로 '국토관리 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열며 도시건설 및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49] 특히 김정은은 2012년 4월 27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50]에서 국토관리와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표 3-8>를 보면 알 수 있듯, 실제 건설용 기계류의 수입액은 2007년 1,042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는 소폭 상승한 금액을 기록했으나 2010년은 2,373만 달러, 2011년은 3,821만 달러, 2012년은 4,097만 달러로 급격히 상승하다가 2013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016년 1,954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는 북한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축물 등을 대거 건설하면서 강성대국 건설 달성이라는 명분을 만들었고, 명분 달성이 끝난 2012년 이후에는 건설, 건축 등에 대한 배분이 점차 축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며, 지난 2011년 김정은도 전력난 해결을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이후 2013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생산을 도모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지난 2016년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도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전력공업 부문의 투자를 위해 2007년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례성강청년1호발전소, 태천 4호발전소, 2008년에 원산청년발전소, 2009년 녕원발전소, 2010년 례성강 청년2호발전소를 준공하고 2013~2015년간 어랑천2호발전소, 백두산영

47) 심완섭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세종: 산업연구원, 2015), pp. 30~31.
48) 심완섭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세종: 산업연구원, 2015), pp. 41~42.
49) 『조선중앙TV』, 2012년 5월 8일.
50)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

웅청년발 전소 그리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3개의 신규 중대형 발전소 완공했다. 또한 북한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등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활발히 진행했다.[51]

이 같은 이유로 북한당국은 전선케이블, 변압기, 변환기 등의 각종 전력설비, 송배전용 설비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들은 수입액이 2007년 대비 2016년 2~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수입액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부터는 2007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송기기 관련 수입량은 전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편의성 증대, 물류 등 화물수송 능력 확대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승용차의 수입량은 2007년 711대에서 2008년 1,593대, 2009년 3,341대 등 매년 2배씩 정도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4,119대 수입했고 이후에도 계속 2,000대 이상씩 수입하고 있어 북한의 당국자나 돈주 등 상류층의 경제적인 여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에는 수익성 부족으로 1999년부터 남한의 통일그룹이 북한과 합작 투자해 설립한 평화자동차가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3년 이후에는 중국산 승용차 수입에 의존해야해 수입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톤 이상, 5톤 이하 트럭의 수입이 2007년 대비 2016년에 2~3배씩 증가한 것 역시 건설붐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도 2017년 대비 2016년에 2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의 농업부문 투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3-10 참조>

51) 심완섭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세종: 산업연구원, 2015), pp. 41~42.

<표 3-10> 북한의 주요 수송기기 수입대수 추이

(단위: 대)

HS 코드	8601~8606	8701	8702	8703	870410	870421 + 870431	870422 + 870423 + 870432	8705
품명	각종 철도차량	트랙터	버스	승용차	덤프트럭	5톤이하 트럭	5톤이상 트럭	특수용도 차량
2007	194	715	594	711	73	784	2,685	58
2008	274	639	478	1,593	28	354	1,219	115
2009	214	681	346	3,341	187	488	2,469	96
2010	399	1,204	935	3,222	9	929	3,099	126
2011	646	1,029	688	3,732	111	1,826	3,970	123
2012	1,183	808	880	3,687	60	2,775	3,965	139
2013	655	1,898	946	4,119	31	2,426	3,934	179
2014	503	3,330	800	2,234	23	2,064	2,945	263
2015	159	1,608	895	2,004	24	2,458	3,259	179
2016	327	1,413	1,993	2,488	86	2,925	5,192	15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2. 산업용 중간재

북한 공산품 수입품목 중 용도별로 분류할 때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산업용 중간재이다. <표 3-11>에는 북한에서 수입하는 주요 산업용 중간재를 분류해 놓았으며 이들은 연도별로 전체 산업용 중간재 수입 중 82~9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된 산업용 중간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섬유, 직물(HS 50~60) 등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이다. 이는 전체 산업용 중간재 수입품목 중 2008년(18.1%)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20%대의 비중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30%대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는 40.2%까지 증가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시행된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위탁가공교역이 금지되면서 북한은 전체 무역의 1/3에 이르던 남북간 교역 대신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했다. 의류 가공교역은 이의 일환이며,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적극적으로 주력해 비중이 40%까지

높아진 것이다.

<표 3-11> 북한의 주요 산업용 중간재(공산품)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HS 코드	28~38 (30,31, 33,34 제외)	31	39	40	48	50~60	72	73	주요 산업용 중간재 수입액	전체 산업용 중간재 수입액
품명	산업용 화학제품	비료	플라스틱	고무	종이	섬유, 직물	철강	철강 제품		
2007	128,331 21.7	9,964 1.7	63,081 10.7	64,412 10.9	27,548 4.7	162,993 27.6	82,912 14.0	33,575 5.7	572,816 97.0	590,538 100.0
2008	218,919 19.9	21,981 2.0	85,971 7.8	45,122 4.1	30,220 2.7	199,483 18.1	162,176 14.7	47,378 4.3	811,251 73.8	1,099,830 100.0
2009	120,113 15.2	27,515 3.5	78,035 9.9	35,475 4.5	34,954 4.4	227,613 28.8	89,656 11.4	56,218 7.1	669,579 84.8	789,147 100.0
2010	142,547 14.0	42,797 4.2	89,763 8.8	55,800 5.5	38,688 3.8	261,201 25.7	154,666 15.2	56,037 5.5	841,499 82.7	1,017,373 100.0
2011	158,729 12.4	104,555 8.2	115,820 9.1	80,182 6.3	43,979 3.4	385,553 30.2	103,702 8.1	67,632 5.3	1,060,152 82.9	1,278,136 100.0
2012	209,960 14.9	70,000 5.0	142,036 10.1	107,926 7.7	56,310 4.0	435,910 30.9	97,980 7.0	76,520 5.4	1,196,641 85.0	1,408,551 100.0
2013	173,460 11.7	61,935 4.2	155,513 10.5	164,920 11.1	58,969 4.0	521,205 35.1	100,943 6.8	107,451 7.2	1,344,396 90.5	1,486,195 100.0
2014	117,299 7.8	32,315 2.1	199,134 13.2	114,761 7.6	66,997 4.4	554,111 36.7	111,926 7.4	72,527 4.8	1,269,071 84.1	1,509,012 100.0
2015	126,978 9.5	19,672 1.5	175,048 13.1	88,869 6.6	67,439 5.0	467,697 34.9	117,943 8.8	63,876 4.8	1,127,520 84.1	1,341,092 100.0
2016	82,516 6.8	37,836 3.1	179,617 14.7	74,479 6.1	62,006 5.1	490,660 40.2	98,764 8.1	56,975 4.7	1,082,853 88.8	1,219,502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북한의 주요 산업용 중간재 수입품 중 2008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용 화학제품(HS 28~38, 의료용품(30), 비료(31), 화장품(33), 비누, 왁스, 양초(34) 제외)은 2007년, 2009년, 2011~2013년까지 2위를, 그 외에는 대부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회석, 무연탄 및 유화철을 주원료로 하는 기초화학부문과 기초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와 화학비료 등을 생산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말 경제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화학공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화학공업성 책임 하에 화학공장들의 중간제품 생산시설들이 복구되기 시작했다.[52] 2006년부터는 생산설비들의 가동 정상화를 위한 개보수작업이 내각의 개별 성 차원을 넘어

52) 심완섭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세종: 산업연구원, 2015), p. 113.

국가급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2006년 5월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회의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생산 공정을 무연탄가스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국가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53] 이 같은 이유로 2007년과 2008년에는 북한의 산업용 화학제품이 주요 산업용 중간재 수입액 비중의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에서 화학공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화학공업에 대규모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화학제품의 수입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화학제품 중 주요 수입품목은 무기화학품(28), 유기화학품(29), 염료(32), 기타 화학품(38) 등인데, 이들은 2007년 전체 산업용 중간재 중 21.7%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그 비중이 6.5%로 줄었고 금액도 각각 1억2,833만 달러에서 8,252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한의 주요 산업용 화학제품의 수입액으로 살펴보면 무기화학품과 유기화학품,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등은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수입액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염료는 전체 산업용 화학제품 중 그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2011년 이후 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가공으로 인해 의류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패턴과도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 섬유 등의 가공에 필요한 염료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3-12 참조>

<표 3-12> 북한의 주요 산업용 화학제품 수입액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8	무기화합물	27,163	56,198	30,149	27,224	24,562	26,560	24,249	22,922	19,231	18,835
29	유기화합물	68,350	111,564	51,922	81,091	87,657	134,768	102,592	39,059	61,955	29,555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8,433	10,157	11,320	12,817	20,913	19,288	19,040	23,663	19,685	13,326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6,481	19,260	13,276	12,666	16,751	21,006	18,914	22,333	17,435	13,428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또한 최근 수입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플라스틱(HS 39)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산업용 중간재 수입액 중 13~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섬유, 직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3>의 플라스틱 수입품목의 세부 내역을 보면 플라스틱제 바닥깔개(HS

53) 심완섭 외, 위의 책, p. 113.

3918),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박(HS 3920),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HS 3917) 등 건설자재 및 기타 자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주요 플라스틱 제품들 중 플라스틱제 바닥깔개는 2012년 수입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당국이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양 10만호 건설 등 건설업 등에 집중 투자한 시기와 일치해 건설자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자재 외에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박 등은 제조업용 원자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공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2007년 대비 2011년 이후 수입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산업용 중간재로의 플라스틱 수입품목 중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박 등의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표 3-13> 북한의 주요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플라스틱관, 파이프, 호스 (HS3917)	5,699	4,377	7,474	7,771	8,901	8,406	8,754	9,428	9,642	9,929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HS3918)	15,501	17,720	18,566	20,569	26,036	36,315	33,861	34,109	27,789	35,047
플라스틱제 판, 쉬트, 필름, 박 (HS3920)	7,340	14,119	12,646	15,905	21,234	23,408	23,361	29,816	29,938	29,183
합계	28,540	36,216	38,686	44,245	56,171	68,129	65,976	73,353	67,370	74,159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플라스틱제 잡제품(HS 3926)은 중간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속하는 품목으로 이 표에서는 제외함.

이 외에 고무 및 그 제품(HS 40)도 수입규모가 매우 커졌지만, 그중 약 절반은 수송기기 부품(BEC 53) 범주에 속하는 타이어이다. 2007년과 2013년 예외가 있긴 하지만 타이어의 수입액 비중이 어떤 고무제품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타이어는 특히 2010년, 2012년을 계기로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송기기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 부속인 타이어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4> 북한의 주요 고무제품 수입액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001	천연고무	36,338	9,255	9,422	9,254	17,102	28,321	87,769	37,022	17,919	4,908
4002	합성고무	3,214	6,779	2,183	4,802	11,045	8,430	4,067	1,238	2,081	678
4010	컨베이어 벨트	5,325	2,088	2,489	4,463	6,059	5,582	7,316	4,036	3,594	3,749
4011	타이어	14,974	12,155	16,106	30,758	36,219	54,525	53,412	59,521	53,650	56,89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타이어(HS 4011)는 산업용 중간재(BEC 22)가 아닌 수송기기 부품(BEC 53)에 속함.

철강 및 철강제품(HS 72, 73)의 수입액은 2010년까지 전체 산업용 중간재 수입액 비중의 약 20% 정도를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10% 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표 3-11 참조>

북한의 철강산업은 제조업 설비 복구에 도움을 주지만 2010년 이후 북한의 철강 부문 수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난의 행군시기 붕괴된 산업이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소비재

북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은 2016년 기준, 4억8,441만 달러 정도로 산업용 중간재에 비해서는 1/2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핸드폰,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적 소비재의 수입도 2000년 중후반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범주와 달리 소비재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이지 않아서 2008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했고, 그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일반적 소비재의 주요 수입품목은 <표 3-15>에서 볼 수 있듯, 의류, 신발, 기타 섬유제품, 가구·침구류, 잡제품, 냉장고, TV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주요 소비재 수입액은 전체 소비재 수입액 중 비중이 2007~2009년에는 60%대였으나 2010~2015년에는 70%대였고, 2016년에는 84.1%에 이른다. 이중 수입액이 가장 큰 것은 의류(HS 61)와 기타 섬유제품(HS 63, 65~67)이다.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은 각각 2007년 수입액이 3,102만 달러, 2,372만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1억6,765만 달러, 3,933만 달러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의류부문은 북한 전체 소비재 수입액중 비중도 2007년 15.8%였으나 2008년 34.6%로 급상승하고 이후에 약간 주춤했다가 2016년에는 34.6%를 차지하기도 했다. 머플러 등 의류를 제외한 기타 섬유제품 등은 2014년 수입액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3,812만 달러~3,933만 달러 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에는 북한에서 상행위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들이 늘면서 주민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형 꾸미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몇 달씩 돈을 모아서라도 비싼 옷을 사며, 중국옷 등을 사서 중국풍으로 하는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54]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 등에서 수입한 고급의류 등이 북한에서 상류층은 물론이고 중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급의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침구류 등도 마찬가지로 2007년 대비 2016년에는 약 2~3배 이상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역시 주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으로 주민생활향상으로 인한 고급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들 중 특히 TV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소비재 수입액 중 비중이 11~12%를 차지하며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수량이 수입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좋은 가정을 중심으로 LCD TV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세계의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바람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LCD TV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1년 초 유엔 산하 전기통신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디지털 방송의 전환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난 2012년에는 디지털 TV의 시험방송을 시작하기도 했다.[55]

54)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에 따르면 시장화로 인한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먹는 것보다 주변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신경을 쓰게 돼 입는 옷 등에 많은 돈을 쓰기도 한다고 한다.

55) 『연합뉴스』, 2011년 6월 22일.

<표 3-15> 북한의 주요 소비재(공산품)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HS 코드	61, 62	64	63, 65~67	94	96	8418	8528	주요 소비재 수입액	전체 소비재 수입액
품명	의류	신발	기타 섬유제품	가구 침구류	잡제품	냉장고	TV		
2007	31,024	10,398	23,715	12,901	11,015	16,063	17,933	123,048	196,737
	15.8	5.3	12.1	6.6	5.6	8.2	9.1	62.5	100.0
2008	140,314	10,280	27,458	32,568	21,570	13,720	18,683	264,592	405,028
	34.6	2.5	6.8	8.0	5.3	3.4	4.6	65.3	100.0
2009	126,872	11,422	52,830	22,977	20,428	14,127	21,366	270,022	396,787
	32.0	2.9	13.3	5.8	5.1	3.6	5.4	68.1	100.0
2010	61,920	19,730	20,638	28,587	26,549	19,717	19,629	196,771	262,295
	23.6	7.5	7.9	10.9	10.1	7.5	7.5	75.0	100.0
2011	63,783	28,066	20,590	30,552	33,139	22,776	20,038	218,944	275,644
	23.1	10.2	7.5	11.1	12.0	8.3	7.3	79.4	100.0
2012	81,691	39,229	33,170	42,940	37,030	25,915	29,684	289,659	397,308
	20.6	9.9	8.3	10.8	9.3	6.5	7.5	72.9	100.0
2013	110,675	57,778	26,270	36,407	43,014	29,469	38,827	342,440	468,161
	23.6	12.3	5.6	7.8	9.2	6.3	8.3	73.1	100.0
2014	155,464	64,780	44,150	57,053	58,618	31,728	77,818	489,611	626,010
	24.8	10.3	7.1	9.1	9.4	5.1	12.4	78.2	100.0
2015	132,353	35,341	38,120	43,496	48,738	21,160	59,683	378,892	532,406
	24.9	6.6	7.2	8.2	9.2	4.0	11.2	71.2	100.0
2016	167,650	28,009	39,330	40,613	44,690	26,273	60,958	407,523	484,414
	34.6	5.8	8.1	8.4	9.2	5.4	12.6	84.1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제4장 주요 품목별 분석

제1절 식량[56]

북한은 의식주를 식의주라고 고쳐 부를 정도[57]로 식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품목이다. 북한에서는 2002년 7·1조치 이후 쌀 가격을 전반적 가격제정에서 기준물자로 정할 정도로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고도 쌀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시기에도 이어져, 김정은은 후계자 신분이었던 2010년 한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3년 내에 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58] 북한 경제사정이 안정적이라는 분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식량은 중요한 물자임에 틀림없다. 이에 전략물자로 꼽히는 북한의 식량 수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식량 수입 분석을 위해 HS 코드 2단위로 농수산물을 분류한 내용은 다음 <표 4-1>과 같다.

1. 농수산물의 수입동향 분석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2~2014년으로 6억2,695만~6억7,688만 달러를 수입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수입액이 줄어 2016년(4억45만 달러)에는 오히려 2007년(4억3,981만 달러)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그러나 북한에서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수입 외에도 직접 생산과 원조 등이 있으며

56) 북한의 식량부문 분석을 위해 <표 4-1>과 같이 농림수산물을 HS 품목분류 2단위를 기준으로 1류에서 24류까지 구분했다. 이중 3단위는 수산물이며, 3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림산물 및 식품가공품이다. 이 절에서 비료는 농림수산물은 아니지만 북한 농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별도로 분석한다. 한편, 북한의 곡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체 곡물 생산량, 외부의 지원 등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자체곡물생산량+외부의 지원+수입량을 '북한의 곡물 공급량'이라고 하며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7) 김일성은 1985년 10월 22일 정무원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서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옷이나 집 같은 것은 부족하여도 좀 참을수 있지만 배고픈것과는 타협할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말을 식의주라고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 "공산주의적시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85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207.

58) 『요미우리신문』, 2010년 12월 6일.

이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의 수입량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 실제 북한의 곡물 수입량을 곡물생산량, 외부 지원(원조량) 등과 함께 살펴보면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곡물 생산량과 원조량의 합산량에 맞춰 최소한의 곡물 수요량에 맞게 수입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4-9 참조> 자료가 확보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에서 수입량이 가장 낮았던 2008년의 경우 수입량은 전년대비 43.5%까지 하락했으나 곡물생산량은 19.5% 상승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년대비 원조량과 수입량이 총 67만5,786톤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곡물 공급량은 전년대비 11만6,105톤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5만935톤)에는 곡물생산량이 2008년과 비슷한 수준(487만11톤)이었으나 대신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도(40만4,816톤) 했다.

이런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북한에서 연간 최소한 필요로 하는 곡물소요량은 520만톤 이상이다. 현재 보고된 2014년까지의 북한 곡물생산량과 원조량, 수입량을 분석해 보면 북한당국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최소 소요량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 맞게 수입량을 조절한 것을 볼 수 있다.[59] 2012년 이후에는 최소 소요량 보다 많은 양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식생활이 단순히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질 등도 고려하는 등 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농수산물 연평균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10류(곡물)로 8,139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15류(동물성 유지)가 6,999만 달러로 2위, 3류(수산물)이 5,262만 달러로 3위, 24류(담배)가 5,050만 달러로 4위, 11류(곡물분)이 4,091만 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8류(과실 및 견과류) 2,405만 달러, 23류(조제사료 등) 2,370만 달러, 16류(육류 및 어류 조제품) 2,294만 달러, 9류(커피 등 기호품) 2,009만 달러, 22류(음료 및 알코올 등) 1,874만 달러, 17류(당류 및 과자) 1,834만 달러,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587만 달러, 19류(곡물 등의 조제품) 1,395만 달러, 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1,184만 달러, 2류(육류) 1,119만 달러, 7류(식용뿌리 채소 등) 1,065만 달러 등 수입액이 연평균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도 총 16개류에 이른다.<표 4-2 참조>

농수산물 수입단위중 가장 비중이 높은 10류(곡류)는 2007년 1억1,752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이후 2010년까지는 수입액이 대폭 감소했고 그 뒤로 다시 상승해 2012년 최고 정점(1억

59) 마커스 놀랜드 등은 북한당국이 외부 지원을 국내 식량생산과 수입의 보완적인 것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수입대체 또는 밀어내기(crowdedout)요인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Stephan Haggar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Redux?”,JournalofAsianEconomics,Vol.20,ELSEVIER,(2009), p. 42; 이 외에도 김양희는 북한의 식량 수입은 원조 등으로 최대한 외부에서 획득한 후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의 제5장 북한 식량정치의 특징과 전망, 4절 원조식량의 의존과 후순위의 대외식량 확보 내용 참조.

6,906만 달러)을 찍기도 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수입액이 각각 1,638만 달러, 2,617만 달러 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는 26.7%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6.5% 정도로 낮아졌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도에서는 10류(곡류)가 농수산물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9년과 2013~2016년에는 24류(담배), 15류(동물성 유지), 3류(어류) 등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특히 2015년에는 10류(곡류)의 수입액이 11류(곡물분)의 수입액보다 높은 다른 해와 달리 10류(곡류)의 수입액(1,638만 달러)보다 11류(곡물분)의 수입액(2,115만 달러)이 더 높았다.

지난 10년 간 특히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난 단위는 8류(과실 및 견과류)이며 이는 전체 농수산물 연평균 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정도로 많진 않지만 2016년에는 17.3%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금액으로도 2007년 수입액이 315만 달러인데 비해 2016년에는 6,912만 달러로 수입액이 22배 정도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5~2016년에는 10류(곡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 및 견과류는 곡류처럼 필수로 꼭 먹어야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량이 급격히 늘은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류(어류)도 2007년에는 수입액이 2,177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수입액이 7,905만 달러로 3배 이상 상승하고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정도로 늘었다. 어류도 2013~2016년까지 10류(곡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와 15류(동물성 유지), 21류(각종 조제식품 등)도 2007년 대비 2016년 2~3배 이상 수입액이 상승했다. 특히 15류(동물성 유지)는 2013~2015년까지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1위를 차지했고 2016년에도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외에도 13류(식물성 액즙 등)는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중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미량이긴 하지만 2007년(36만 달러)에 비해 2016년(637만 달러)에는 17배 정도 높은 수입액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에 10류(곡류) 외에도 11류(곡물분)의 수입액이 2007년(3,659만 달러) 대비 2016년(740만 달러로) 5배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는 8.3%였으나 2016년에는 1.8%까지 하락했다. 또한 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도 2007년 수입액이 2,002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비중이 4.6%였으나 2016년에는 수입액이 236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비중이 0.6%까지 줄었다. 이 외에 1류(살아있는 동물)도 수입액이 2007년 45만 달러에서 2016년 2만 달러까지 감소했으며 6류(산수목 및 장식용 잎 등)도 2007년 197만 달러에서 29만 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4류(담배)는 2009년 10류(곡류) 수입액(6,788만 달러)보다 더 높은 수입액(7,175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 해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연도에서 2007년 수입액(4,019만 달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2016년에는 2,965만 달러로 급감했다. 담배의 수입액이 급감한 것은 북한당국의 국산화 정책과 함께 금연정책이 지속된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은 2007년부터 금연연구보급소를 설치하고 각도에 분소를 설치하며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60] 이에 힘입어 신문 등 언론에서도 최근 금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61]

<표 4-1> HS 2단위 농수산물 품목분류

구분	품목명
01류	산동물
02류	육, 식용설육
0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류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7류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류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0류	곡물
11류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류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 및 의약용 식물, 짚, 사료식물
13류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8류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9류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 조제품
21류	각종 조제식료품
22류	음료, 알코올, 식초
23류	식품공업 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4류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베이스.

60) 『로동신문』, 2017년 7월 2일.
61) 『로동신문』, 2017년 7월 30일.

<표 4-2> HS 2단위 농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01류	454	35	211	261	261	696	199	402	350	20	289
02류	42,825	11,905	1,253	1,818	3,122	14,900	7,246	13,440	8,845	6,582	**11,193**
03류	21,773	27,319	31,985	17,275	35,631	48,253	80,798	81,704	102,461	79,045	**52,624**
04류	8,420	5,727	4,506	5,508	2,007	6,549	6,898	7,966	6,816	6,111	6,051
05류	3,203	1,923	2,799	6,778	10,176	15,200	24,430	27,437	13,866	12,556	**11,837**
06류	1,967	1,687	4,510	16,021	2,091	2,930	241	870	1,083	288	3,169
07류	11,863	18,051	22,286	12,248	4,820	4,347	9,048	8,254	12,464	3,137	**10,652**
08류	3,152	2,914	4,119	7,073	9,354	16,164	26,595	41,775	60,248	69,117	**24,051**
09류	20,181	4,877	20,557	13,741	21,494	22,518	27,431	40,535	15,372	14,235	**20,094**
10류	117,523	86,074	67,881	69,298	127,633	169,058	72,914	61,014	16,377	26,165	**81,394**
11류	36,585	7,556	33,624	42,397	56,512	73,633	83,013	47,213	21,149	7,403	**40,909**
12류	20,021	30,146	14,106	18,683	19,314	18,970	16,643	10,570	7,848	2,356	**15,866**
13류	365	243	183	588	1,607	2,685	2,340	3,433	5,245	6,366	2,305
14류	702	1,364	759	350	1,690	1,930	464	363	232	339	819
15류	35,218	54,716	43,649	40,208	58,401	81,213	88,176	113,909	106,651	77,755	**69,990**
16류	38,120	45,568	38,737	12,525	4,785	7,006	13,096	34,982	26,488	8,106	**22,941**
17류	8,997	35,523	52,452	33,514	15,690	7,353	9,847	8,506	6,344	5,199	**18,342**
18류	1,092	820	1,902	874	1,304	1,340	2,136	2,768	2,101	1,738	1,607
19류	4,660	16,595	8,569	12,433	18,378	21,564	17,315	17,644	14,057	8,247	**13,946**
20류	3,727	4,217	2,447	3,971	2,635	1,148	4,290	2,148	5,524	1,933	3,204
21류	3,442	3,435	2,597	2,821	3,312	5,064	11,038	14,679	19,628	12,128	7,814
22류	10,543	10,548	10,669	8,632	13,718	36,838	34,481	31,543	15,799	14,671	**18,744**
23류	4,790	6,092	7,879	37,923	54,076	51,190	21,610	27,524	18,651	7,300	**23,703**
24류	40,193	52,527	71,750	42,722	26,746	66,330	66,697	66,925	41,458	29,652	**50,500**
합계	439,813	429,862	449,430	407,661	494,756	676,880	626,945	665,604	529,053	400,450	512,045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굵은색 음영표시는 연평균 천만 달러 이상 표기.

<표 4-3>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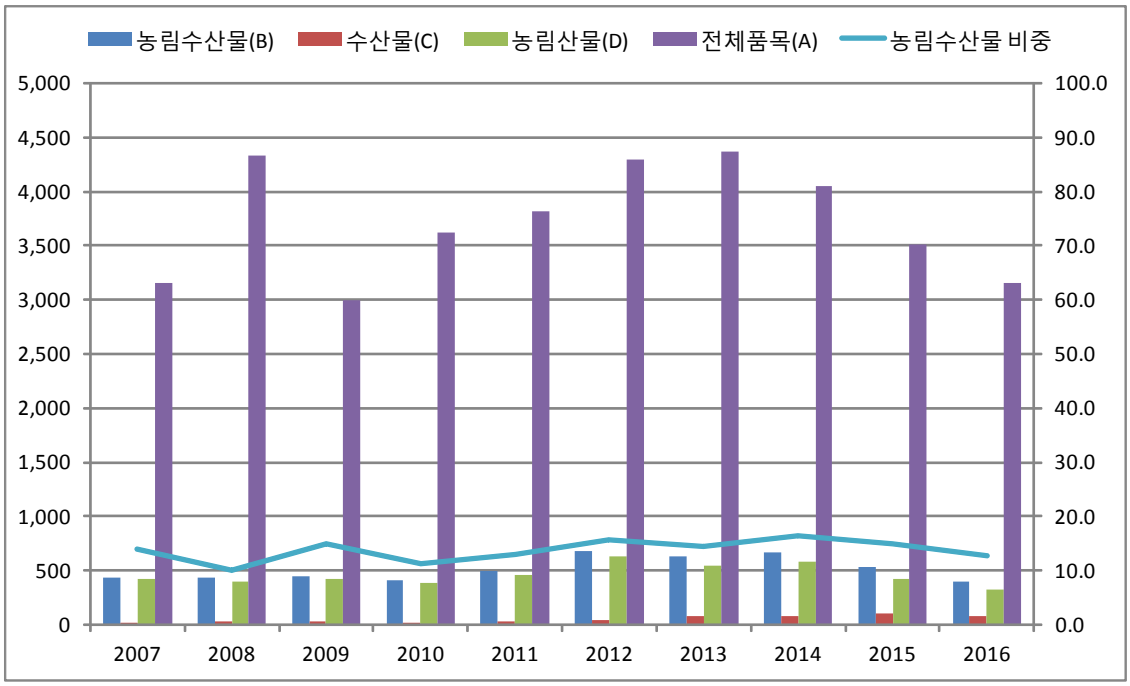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수산물(B)	440	430	449	408	495	677	627	666	529	400
수산물(C)	22	27	32	17	36	48	81	82	102	79
농림산물(D)	418	403	417	390	459	629	546	584	427	321
전체품목(A)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B/A(%)	**13.9**	**9.9**	**15.0**	**11.2**	**13.0**	**15.8**	**14.3**	**16.4**	**15.1**	**12.7**
C/B(%)	5.0	6.4	7.1	4.2	7.2	7.1	12.9	12.3	19.4	19.7
C/A(%)	0.7	0.6	1.1	0.5	0.9	1.1	1.8	2.0	2.9	2.5
D/A(%)	13.2	9.3	13.9	10.8	12.0	14.6	12.5	14.4	12.1	10.2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그림 4-1>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북한의 농수산물 중, 농림수산물은 2007년 4억4,000만 달러 정도를 수입했으나 이후 수입액이 증가해 수입액이 가장 많은 해는 2011~2014년으로 이 시기에는 매년 6억2,700만~6억7,700만 달러 정도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다른 품목들의 수입도 많아서 전체수입액 중 농림수산품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해는 2014년(16.4%)이었으며 그 뒤를 2012년(15.8%), 2009년(15.0%) 등이 이었다. 지난 10년 간 전체 수입액 중 농림수산물 비중은 9.9%부터 16.4%까지 기록했다. 수산물의 수입액은 2007년 2,200만 달러였으나 2009년 3,200만 달러, 2012년 4,800만 달러, 2013년 8,10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에는 수입액이 7,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자 전체 수입액 중에서 수산물의 수입비중도 높아져 그 비중이 가장 높은 해는 2015년(2.9%)이고 그 다음은 2016년(2.5%)이 차지했다. 또한 농림수산물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 정도였으나 점차 증가해 2013년 10%를 넘기고(12.9%)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9.4%, 19.7%를 기록하는 등 20%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표 4-3 참조>

<표 4-4>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품목	보리	옥수수	쌀	잡곡	밀가루	두류	합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7-1008	1101	1201	
2007	8	12,917	94,924	561	35,898	15,343	159,651
2008	160	60,342	12,402	363	4,984	26,727	104,978
2009	122	29,906	30,844	190	32,779	10,900	104,740
2010	360	23,516	35,690	502	41,602	15,137	116,807
2011	1	49,193	55,530	1,415	55,163	15,755	177,056
2012	387	121,238	27,292	404	70,970	15,891	236,183
2013	76	40,141	28,578	622	79,651	13,354	162,422
2014	1	6,056	39,608	504	44,763	2,155	93,087
2015	0	3,016	10,561	80	18,717	6,378	38,752
2016	0	1,010	24,885	5	5,924	1,242	33,067
연평균	111	34,733	36,031	465	39,045	12,288	122,674
비율(%)	0.1	28.3	29.4	0.4	31.8	10.0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5>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량

(단위: 톤)

품목	보리	옥수수	쌀	잡곡	밀가루	두류	합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7-1008	1101	1201	
2007	28	71,188	292,980	1,552	146,099	43,332	555,179
2008	390	219,312	34,281	869	10,445	48,661	313,958
2009	350	134,748	79,369	448	98,864	25,909	339,687
2010	1,021	87,637	84,540	1,042	117,879	25,766	317,886
2011	1	148,379	93,287	3,302	133,557	26,291	404,816
2012	690	335,261	50,270	637	170,879	21,646	579,383
2013	258	105,732	49,613	960	175,722	15,877	348,162
2014	1	17,233	69,047	791	109,421	3,467	199,960
2015	0	9,890	17,143	120	61,689	9,537	98,380
2016	0	3,125	41,926	10	14,044	1,572	60,676
연평균	274	113,251	81,246	973	103,860	22,206	321,809
비율(%)	0.1	35.2	25.2	0.3	32.3	6.9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6> 북한의 주요 수입 곡물 가격동향

(단위: 달러/톤)

품목	보리	옥수수	쌀	잡곡	밀가루	두류	합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7-1008	1101	1201	
2007	270.8	181.5	324.0	361.5	245.7	354.1	287.6
2008	410.4	275.1	361.8	417.8	477.2	549.3	334.4
2009	348.0	221.9	388.6	423.1	331.6	420.7	308.3
2010	352.8	268.3	422.2	481.4	352.9	587.5	367.4
2011	700.0	331.5	595.3	428.6	413.0	599.3	437.4
2012	561.4	361.6	542.9	634.3	415.3	734.2	407.6
2013	293.7	379.7	576.0	647.5	453.3	841.1	466.5
2014	750.0	351.4	573.6	636.8	409.1	621.7	465.5
2015	830.8	304.9	616.0	664.9	303.4	668.8	393.9
2016	808.2	323.2	593.6	529.6	421.9	790.0	545.0
연평균	532.6	299.9	499.4	522.6	382.3	616.7	401.4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톤당 가격.

<표 4-7>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량

(단위: 톤)

품목	보리	옥수수	쌀	밀	두류	합계
2007	75,000	1,587,000	1,869,500	195,000	345,000	4,073,507
2008	65,000	1,411,390	2,862,000	175,000	350,000	4,865,398
2009	63,000	1,705,000	2,336,000	169,000	350,000	4,625,009
2010	80,000	1,683,000	2,426,000	160,000	350,000	4,701,010
2011	55,000	1,857,000	2,479,000	127,000	350,000	4,870,011
2012	29,000	2,040,000	2,861,000	74,000	350,000	5,356,012
2013	30,300	2,002,000	2,901,000	75,000	350,000	5,360,313
2014	32,466	2,349,100	2,626,000	45,000	350,000	5,404,580

자료 : FAO STAT.

<표 4-8>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

(단위: 톤)

연도	쌀	옥수수	옥수수 제품	밀	밀가루	Corn Soya Blend	기타 및 분류불능	합계
2007	491,581	57,688	0	8,423	197,111	0	0	754,803
2008	20,527	241,392	0	37,270	14,874	6,175	0	320,238
2009	35,447	98,737	0	134,619	29,206	0	0	298,009
2010	11,206	25,637	0	49,261	8,739	0	446	95,289
2011	547	2,065	37	45,294	757	2,235	0	50,935
2012	33,428	270,217	77	43,505	8,743	2,003	0	357,973

자료 : WFP INTERFAIS.

<표 4-9> 북한의 연도별 곡물 수급량 및 소요량

(단위: 톤)

연도	곡물생산량(a)	원조량(b)	수입량(c)	합계(a+b+c)	최소 곡물 소요량
2007	4,073,507	754,803	555,179	5,383,489	5,240,000
2008	4,865,398	320,238	313,958	5,499,594	5,240,000
2009	4,625,009	298,009	339,687	5,262,705	5,200,000
2010	4,701,010	95,289	317,886	5,114,185	5,230,000
2011	4,870,011	50,935	404,816	5,325,762	5,350,000
2012	5,356,012	357,973	579,383	6,293,368	5,400,000
2013	5,360,313	-	348,162	7,708,475	5,430,000
2014	5,404,580	-	199,960	5,604,540	5,370,000

주1 : 단, 2013, 2014년 합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조량을 제외한 곡물생산량과 수입량의 단순 합계임 (a+c).

주2 : 북한의 연도별 최소 곡물 소요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기구 등이 발표한 성인 1인 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 열량과 북한 인구 등을 감안해 추정한 수치이다. 출처는 KERI북한 농업동향(2006~2013년 각 연도 4호).

<표 4-10> 북한의 연도별 주요 곡물 공급량

(단위: 톤)

연도	옥수수	쌀	밀	합계
2007	1,715,876	2,654,061	546,633	4,916,570
2008	1,872,094	2,916,808	237,589	5,026,491
2009	1,938,485	2,450,816	431,689	4,820,990
2010	1,796,274	2,521,746	335,879	4,653,899
2011	2,007,481	2,572,834	306,608	4,886,923
2012	2,645,555	2,944,698	298,916	5,889,169
평균	1,995,961	2,676,827	359,522	5,032,340
비중	39.7%	53.2%	7.1%	100%

주1 : 각 곡물 당 연도별 곡물공급량은 곡물생산량과 수입량, 원조량의 단순 합계로 계산함.

주2 : 옥수수는 옥수수제품을, 밀은 밀가루를 포함한 양임.

쌀, 옥수수, 밀가루 등 북한이 주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곡물 공급량(곡물생산량+원조량+수입량)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465만톤에서 588만톤 정도였다. 그런데 매년 북한에서 주요 곡물의 필요량은 평균적으로 500만톤 정도이다. 옥수수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007년 대비 2012년 쌀의 공급량은 증가했으나 밀은 감소했다. 2007년 이후 쌀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원조량과 수입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량은 2008년과 2012년에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밀은 2007년 이후 곡물 생산량과 원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의 공급량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입량이었으며 수입량의 증감은 가격의 증감과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밀은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쌀과 밀의 수입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쌀과 밀 사이에도 공급량의 증감은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쌀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 해 밀의 공급량이 감소했고 밀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쌀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한 쌀은 수입과 원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늘어 곡물 가격 상승여부와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곡물공급 비중으로 봤을 때는 북한당국이 쌀과 옥수수의 평균 비중(각각 53.2%, 39.7%) 정도를 기준으로 원조량과 자체생산량 등을 고려해서 옥수수와 쌀의 수입량을 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밀은 가격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의 양만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원조량이 2007년 이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수입액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2012년에는 전년대비 곡물생산량, 원조량, 수입량 모두가 늘어 최소 곡물소요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곡물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해로 이 시기 주민들의 지지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상관없이 식량을 대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수입하는 주요 곡물은 보리, 옥수수, 쌀, 잡곡, 밀가루, 두류 등이며 수입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은 밀가루(31.8%)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쌀(29.4%), 옥수수(28.3%), 두류(10.0%)순이며 잡곡과 보리는 1%미만이다. 반면에 수입량으로 보면 옥수수(35.2%)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을 밀가루(32.3%), 쌀(25.2%), 두류(6.9%), 잡곡(0.3%), 보리(0.1%) 순이었다.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액은 연도별로 보면 2012년(2억3,618만 달러)이 가장 많았으며 2011년(1억7,706만 달러), 2007년(1억5,965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4~2016년에는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로 감소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875만 달러, 3,307만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곡물의 수입량은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2012년(57만

9,383톤)과 가장 많았던 것은 동일하지만 2007년(55만5,179톤)이 2위, 2011년(40만4,816톤)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수입액 순위와 차이가 난다. 또한 2016년에는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545.0달러/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인해 2015년(3,875만 달러)과 2016년(3,307만 달러)의 곡물 수입액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2016년의 곡물 수입량이 2015년 대비(9만8,380톤) 40% 가까이 감소(6만676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곡물의 가격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일부년도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저렴한 품목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실제 보리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입가격이 상승해도 톤당 수입가격이 400달러 선이었으나 2011년에는 700달러로 상승했고 2014년~2016년에는 750~830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북한은 보리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만 달러~37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기도 했으나 2011년과 2014년에는 1,000달러, 2015년과 2016년에는 1,000달러 미만을 수입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곡류인 쌀은 2007년 수입량이 29만3,000톤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3만4,000톤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기도 했으나 2015년에는 1만7,000톤 정도까지 다시 하락했고, 2016년 8만1,000톤 정도로 상승했다. 이를 가격과 살펴보면 쌀 가격은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수입량은 일부 예외년도가 있지만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리 등 다른 곡물이 곡물가격에 의해 수입량 등이 영향을 받았지만 쌀은 수입가격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표 4-6> 곡물의 가격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모든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잡곡을 제외하고 전 품목에서 급격한 가격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추세는 2016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2007년 대비 2016년 보리는 3.9배, 옥수수는 1.9배, 쌀은 1.8배, 잡곡은 1.5배, 밀가루는 1.7배, 두류는 2.2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곡물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주요 곡물 수입량 중 연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실제 수입한 양은 품목별 가격이 저렴한 순인 옥수수>밀가루>쌀 순이었다. 잡곡과 보리, 두류까지 살펴보면 가격과 수입량 순서가 바뀌기도 했으나 북한당국은 수입량의 90% 이상 되는 대부분의 곡물을 가격이 저렴한 순서대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도의 가격과 수입량, 수입액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북한이 더 이상 먹고사는 것에 급급해 가격이 저렴한 품목 순서대로만 찾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간 북한의 주요 수입곡물의 평균 가격은 옥수수(299.9달러)<밀가루(382.3달러)<쌀(499.4달러)<잡곡(522.6달러)<보리(532.6달러)<두류(616.7달러) 순이다. 주요 곡물 수입량 비중을 보면 주로 가격이 저렴한 순인 옥수수(35.2%)>밀가루(32.3%)>쌀(25.2%)>두류

(6.9%)>잡곡(0.3%)>보리(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액 비중으로 보면 그 순위는 밀가루(31.8%)>쌀(29.4%)>옥수수(28.3%)>두류(10.0%)>잡곡(0.4%)>보리(0.1%) 순이었다. 이는 북한당국이 가격이 싼 순으로 곡물을 수입하긴 하지만 가격대비 그 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쌀이나 밀가루 등 옥수수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곡류를 더 많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는 쌀 가격(593.6달러)이 밀가루 가격(421.9달러)과 옥수수 가격(323.2달러) 보다도 훨씬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량은 각각 4만1,926톤, 1만4,044톤, 3,125톤 등으로 쌀 수입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북한이 먹고 사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질을 위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싼 곡물을 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4-11>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활어	신선 또는 냉장어류	냉동 어류	피레트 및 기타어류	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합계
HS코드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2007	122	1	3,174	523	11,824	3,801	2,328	21,775
2008	85	23	1,913	82	15,814	5,019	4,382	27,321
2009	65	40	3,426	29	22,316	3,052	3,057	31,987
2010	19	0	8,346	12	6,007	1,509	1,099	16,995
2011	68	38	18,140	1,410	9,168	880	5,895	35,601
2012	49	74	31,021	2,154	8,574	1,947	4,435	48,255
2013	210	1	45,933	1,893	9,317	12,645	10,799	80,800
2014	3	1	46,525	344	8,866	1,643	24,323	81,706
2015	0	1,166	48,352	1,393	16,081	2,878	32,592	102,464
2016	3	0	36,033	1,273	14,770	1,327	25,636	79,045
연평균	63	134	24,287	911	12,274	3,470	11,455	52,595
비율	0.1	0.3	46.2	1.7	23.3	6.6	21.8	1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12>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량

(단위: 톤, %)

품목명	활어	신선 또는 냉장어류	냉동어류	피레트 및 기타어류	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합계
HS코드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2007	11	0	3,251	285	1,633	637	921	6,739
2008	2	21	1,169	22	2,187	1,129	2,189	6,717
2009	1	27	2,725	6	2,506	744	1,418	7,426
2010	1	0	6,872	1	891	373	324	8,461
2011	11	25	15,005	433	1,577	87	1,300	18,437
2012	2	1	25,348	617	1,360	306	3,085	30,718
2013	11	0	34,962	694	1,207	1,429	7,078	45,381
2014	0	0	40,650	195	926	233	16,831	58,834
2015	0	525	42,419	477	1,572	325	24,968	70,285
2016	0	0	35,645	501	1,750	173	22,111	60,181
연평균	4	60	20,805	323	1,561	544	8,022	31,318
비율	0.0	0.2	66.4	1.0	5.0	1.7	25.6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북한이 수입하는 주요 수산물의 수입액은 냉동어류>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갑각류>피레트 및 기타어류>신선 또는 냉장어류>활어 순으로 높았다. 가장 수입액이 많았던 냉동어류의 경우 2007년 수입액이 317만 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4,835만 달러까지 올랐고 2016년 수입액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2007년 대비 11.4배나 증가했다. 피레트 및 기타어류도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2배 이상 늘었으며 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도 2015년, 2016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갑각류와 활어의 수입액은 감소하기도 했지만 신선 또는 냉장어류의 수입액은 2007년에는 1,000달러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117만 달러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액은 2013년도부터 급격히 늘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8,080만 달러) 2015년에는 1억 달러 이상(1억246만 달러)을 수입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수입액이 소폭 감소(7,905만 달러)하기도 했지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의 수입액이 상위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북한의 수산물 수입액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량은 냉동어류>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갑각류>피레트 및 기타어류>신선 또는 냉장어류>활어 순이었다. 수입액에서

는 ·염장·염수·훈제어류가 2위를 차지했으나 수입량으로 보면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이 2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 등은 가공을 통해 가격은 더 높아졌으나 무게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수입이 많았던 냉동어류의 경우 2007년 수입량이 3,251톤이었으나 2015년에는 4만2,419톤까지 상승했고 2016년 수입량도 소폭 감소(3만5,645톤)하긴 했으나 2007년 대비 6.4배 증가했다. 피레트 및 기타어류도 2007년 대비 수입량이 13% 정도 늘었으며 건조·염장·염수·훈제어류도 2015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수입량은 2011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수입량이 소폭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수입량은 상위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북한의 수산물 수입량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수입량이 많은 해는 2015년(7만285톤)이며 그 뒤를 2016년(6만181톤), 2014년(5만8,834톤), 2013년(4만5,381톤), 2012년(3만781톤)이 이었다. 품목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량에 비해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당국이 수산물의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량을 늘인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비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12 참조>
앞서 김정은은 2014년 1월 7일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을 시찰하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愛育院, 고아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물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으라고 지시하며 이 사업을 진행할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62] 이후에도 김정은은 수산물사업소 등을 현지지도 하거나 생산 확대 등을 독려 했고 이에 힘입어 북한당국은 김정은 시대 들어 '황금해', '사회주의바다향기', '이채어경'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 수립 초기 체제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주민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생활향상 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북한의 주요 수산물 수입액과 수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2) 『조선중앙통신』, 2014년 1월 7일.

2. 기호식품 및 비료 수입동향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과실류의 수입액도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참조> 북한의 주요 과실류 수입액은 사과>감귤류 잡종>바나나>코코넛>구아바, 망고, 망고스틴>오렌지>파인애플 순으로 많았다.

<표 4-13> 북한의 주요 과실류 수입액

(단위: 달러)

품목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오렌지	감귤류 잡종	사과	합계
HS코드	080111	0803	080430	080450	080510	080520	080810	
2007	57,385	2,385	10,197	31,660	1,185	180,879	1,611,972	1,895,663
2008	0	49,725	6,102	0	122,739	469,563	1,297,462	1,945,591
2009	0	41,620	4,994	0	19,654	585,778	1,883,308	2,535,354
2010	13,505	135,910	1,195	24,107	6,300	692,561	2,568,179	3,441,757
2011	37,788	229,533	7,614	24,733	59,447	1,088,108	4,015,178	5,462,401
2012	136,094	1,915,030	22,664	20,970	50,289	1,762,362	6,919,601	10,827,010
2013	149	4,550,595	95,775	12	35,302	2,904,106	14,352,274	21,938,213
2014	4,900	4,672,489	5,097	225,174	0	10,369,811	20,836,424	36,113,895
2015	227,494	2,284,349	81,294	25,297	0	14,580,784	38,534,687	55,733,905
2016	25,764	2,305,542	2,782	65,754	15,680	11,535,773	53,550,736	67,502,031
연평균	50,308	1,618,718	23,771	41,771	31,060	4,416,973	14,556,982	20,739,582
비율	0.2	7.8	0.1	0.2	0.1	21.3	70.2	1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가장 수입이 많았던 사과는 2007년 수입액이 161만1,972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5,355만 736달러까지 올라 33배 이상 상승했고 감귤류 잡종도 2016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2007년 대비 2015년에는 수입액이 80배 이상 늘었다. 바나나의 상승세는 더욱 커서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은 약 1,000배 가까이(966.7배)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오렌지의 수입액도 다른 과일류에 비해 소폭이긴 하지만 2007년 대비 2016년 13배 정도 늘었다. 다만 코코넛과 파인애플의 경우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소폭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5년에는 각각 4배, 8배 정도 수입이 늘었다.

<표 4-14> 북한의 주요 과실류 수입량

(단위: 톤)

품목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오렌지	감귤류 잡종	사과	합계
HS코드	080111	0803	080430	080450	080510	080520	080810	
2007	47	12	17	17	2	652	11,950	12,696
2008	0	46	4	0	155	1,554	6,830	8,589
2009	0	63	7	0	21	1,578	8,210	9,878
2010	5	247	1	19	4	1,337	6,159	7,772
2011	17	331	16	40	55	1,995	7,995	10,448
2012	111	7,171	76	14	53	2,768	13,353	23,547
2013	0	17,215	325	0	33	3,443	16,486	37,502
2014	2	17,929	19	99	0	12,740	26,262	57,050
2015	76	7,586	439	16	0	16,162	39,751	64,029
2016	8	6,124	4	54	10	18,878	52,027	77,104
연평균	27	5,672	91	26	33	6,111	18,902	30,862
비율	0.1	18.4	0.3	0.1	0.1	19.8	61.2	1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주요 과실류 수입액은 200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000만 달러(1,082만7,010달러)를 달성하고 2015년에는 5,000만 달러대(5,573만3,905달러), 2016년에는 6,000만 달러대(6,750만2,031달러)를 달성했다. 다른 품목의 수입액은 10년 동안 수입이 늘어나면서도 증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과실류 수입액은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과일의 수입량도 수입액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연도별 수입량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역순으로 1~5위를 차지한 것은 수입액과 같지만 2007년이 6위, 2008년이 7위를 차지하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순위가 수입액과 차이가 난다. 이는 북한당국에서 과일이 비싸도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늘린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사과는 2011년 바레인에서 73달러(50kg) 정도를 수입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전량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한 감귤류도 2007년 일본 2,043달러(1,500kg), 2011년 프랑스 4,736달러(1,235kg) 규모를 수입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대부분의 과일을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바나나는 중국과 함께 필리핀에서 수입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한 바나나가 필리핀산에 비해서 고가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산 바나나 수입량은 1,673톤, 수입액은 118만1,000달러로 1kg당 0.70달러에 수입되었으나, 필리

핀산 바나나의 경우 4,410톤을 109만5,000달러에 수입해 1kg당 0.25달러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만을 보면 중국산 바나나가 더 높았으나 수입량은 필리핀산 바나나가 중국산을 2.6배 이상 압도했다.

이처럼 과일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선 북한 주민들의 소비수준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주민들의 식생활 등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63] 특히 북한 시장 등이 급격히 확대 되면서 2010년에는 단순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과일바구니 등이 등장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64]

또한 김정은이 주민생활 향상 등에 적극 노력하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김정일의 생일 등에 특별공급품이나 선물들을 제공하곤 하는데 여기에도 남방과일(열대과일) 등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65] 쉽게 구할 수 없는 선물 등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들어 시장이 확산되면서 감귤 역시 북한에서 이전보다는 좀 더 접하기 쉬워 이 같은 의미가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에게 귤선물을 받고 감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66]

---

6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직전 식생활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2015년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2017년 조사에서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86.4%였고 고기를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먹는 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24.4%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조사대상이 거주지역이 편중된 북한이탈주민들임을 고려할 때 평양 등의 지역에서는 식생활 수준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미,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2017. 8. 30) 발표자료집), p. 108.

64) YTN은 2010년 8월 초에 촬영된 북한 채하시장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규제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시장은 상품을 거래하는 인파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박과 바나나는 물론이고 선물용 과일바구니까지 등장했다. 『YTN』, 2010년 8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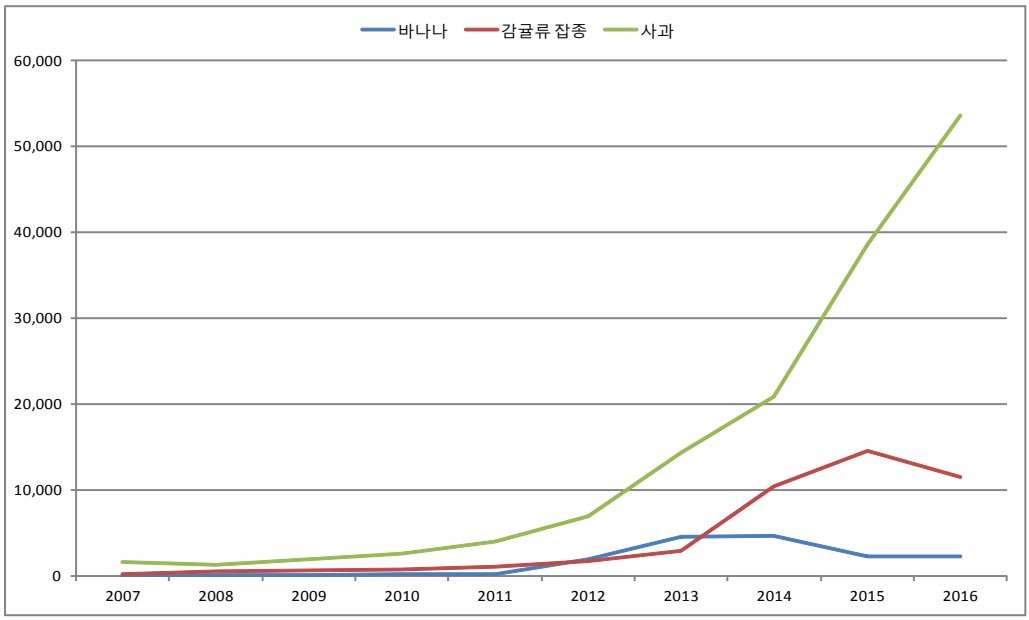
65) 북한에서는 2010년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도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명의의 선물상자가 전달되는 등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16일 통화에서 "지난 13일 도당에서는 책임비서, 보안서장, 보위부 책임비서, 대의원 등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이름이 쓰인 선물상자가 전달되는 '선물수여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물상자에는 남방과일, 당과류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YTN』, 2010년 8월 19일.

66) 평양사범대 교수였다가 탈북해 현재는 조지메이슨대 연구교수로 소속되어 있는 김현식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도 수령의 선물을 받아보았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김일성은 해마다 학자나 과학자, 문화 예술인 중에서 공로가 큰 사람들을 뽑아 환갑이나 진갑(북한에서는 진갑이 칠순임)을 맞으면 환갑상과 진갑상을 내린다. 환갑이나 진갑상을 받는 사람들은 수령님께 열렬한 감사와 칭송을 올림으로 수령님의 은혜에 답한다. 공로자로 뽑힌 사람들에게는 설날에 귤 한 상자씩을 선물로 주는데 그 귀한 선물이 내게 온 것이다.(중략) 어찌나 감격에 겨웠던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가슴떨림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다. 선물전달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귤 선물은 이미 자동차에 실려 있었다. 대학으로 돌아와 대학당 비서실로 갔다. 귤 선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당 비서와 부비서들, 당원들, 학부장, 강좌장들이 빼곡히 둘러섰다. 당 비서와 학장부터 차례로 나와서 귤을 하나씩 꺼내 들고 껍질을 까먹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대학 내 모임이 끝난 후에는 연구소 사람들이 모여 귤 반쪽씩을 맛보며

결국 경제적 안정을 통한 주민생활향상, 북한 시장의 확산, 김정은의 선물을 통한 지지세력 관리 등에 의해 북한의 과일소비가 확대됐고, 이 같은 이유로 과일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북한의 주요 과실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지난 10년 간 북한이 수입한 커피의 수입액은 증가세였다가 최근 소폭 감소했으나 차류, 후추 및 고추류 등의 수입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커피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하여 배척했으나 북한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을 통해 유입된 '커피믹스'가 유통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었다. 커피는 2007년 1,841만 3,000달러가 수입됐으나 2008년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2014년은 지난 10년간 중 최고치인 1,606만6,000달러를 수입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복합편의시설인 '해맞이 식당'의 개관을 기념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해맞이식당' 내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도[67]되면서 커피 시장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커피 수입액은 2015년과 2016년에

감격했다. 집으로 돌아가니 시집간 딸과 사위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우리 가족은 수령의 초상화 앞에 서서 정중히 결의모임을 한 후 사랑의 귤선물을 맛보았다." 김현식,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예일학교에서 보내온 평양교수의 편지』 (서울: 김영사,2007), pp. 64~66.

는 2014년 대비 감소하기도 했으나 2007년 대비는 13.2%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에 차는 초고속 성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2007년 수입액이 4,000달러였으나 2015년에 99만 7,000달러로 최고점을 찍고 2016년에도 48만2,000달러를 기록해 2007년 대비 1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차류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지만 아직은 기호식품 중 수입액 비중이 미약한 상황인데 반해 특히 커피는 같은 기호 식품인 차류에 비해서 그 수입액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눈길을 끈다. 연도별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매년 커피 수입액이 차류 수입액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커피의 수요가 큰 이유는 2012년 9월 빵·커피 전문점을 내세운 평양 창전거리 해맞이식당(해맞이커피숍)이 오픈하는 등 최근 북한에서 평양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커피숍이 속속 등장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북한은 커피의 인기에 힘입어 묘향세휘합영회사에서 출시한 '삼복커피' 등 자체적으로 커피믹스를 제조해 지난해부터 본격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당국의 향신료 수입도 증가해 2007년 후추 및 고추류의 수입액은 166만1,000달러였으나 2013년 2,371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 2016년에는 1,080만2,000달러로 일부 감소하기도 했으나 2007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이뤘다. 향신료는 음식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인 만큼 수입액 증가가 주민들의 소비생활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15> 북한의 커피·차·향신료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품목명	커피	차류	후추 및 고추류	합계
HS코드	0901	0902	0904	
2007	18,413	4	1,661	20,079
2008	2,832	18	2,007	4,857
2009	17,654	5	2,873	20,532
2010	5,797	77	7,773	13,647
2011	7,184	88	13,914	21,186
2012	1,754	182	19,674	21,610
2013	1,661	157	23,710	25,528
2014	16,066	110	22,880	39,057
2015	2,492	997	11,636	15,125
2016	2,428	482	10,802	13,712
연평균	7,628	212	11,693	19,533
비율	39.1	1.1	59.9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67) 『조선중앙TV』, 2012년 9월 1일.

지난 10년 간 북한의 주류 품목중 수입액은 에틴알콜1>맥주>에틴알콜2>포도주 순으로 많았다.<표 4-16 참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류 중 에틴알콜과 맥주 등의 수입이 2007년 대비 2016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류 중 단일 품목으로는 맥주 수입액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을 대표하는 맥주 '대동강'은 2000년 폐업한 영국 양조업체(Ushers brewery of Trowbridge)의 설비를 인수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며 해외 비평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품질의 맥주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2년 체코의 양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선시에 맥주공장을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인 맥주 품질 향상 및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68] 이는 기호식품 등의 고급화 추세에 의한 것으로 이 같은 소비풍조는 맥주 등 주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북한의 주요 주류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품목명	맥주	포도주	에틴알콜1)	에틴알콜2)	합계
HS코드	2203	2204	2207	2208	
2007	2,937	525	4,024	1,339	8,825
2008	1,309	280	5,489	2,000	9,078
2009	1,643	231	6,866	947	9,687
2010	1,550	189	4,910	882	7,532
2011	2,129	581	6,964	2,051	11,725
2012	2,591	392	28,620	2,598	34,201
2013	5,289	427	23,198	2,829	31,742
2014	4,706	428	19,086	3,046	27,266
2015	3,908	373	6,581	1,945	12,807
2016	3,697	493	7,497	1,260	12,947
연평균	2,976	392	11,324	1,890	16,581
비율	17.9	2.4	68.3	11.4	1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1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주2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위스키류, 럼, 진,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등).

68) 『KOTRA 해외시장 뉴스-북한정보』, 2014년 12월 24일.

연도별로 보면 북한의 주요 주류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2년(3,420만 달러)이었으며 그 뒤를 2013년(3,174만 달러), 2014년(2,727만 달러)이 잇고 이후 2015, 2016년에는 수입액이 1,000만 달러 대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위해 사치품 품목으로 주류 등을 선정하면서 2015, 2016년 수입이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3장 3절 참고>

한편, 북한의 곡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비료의 수입액은 <표 4-17>과 같다. 지난 10년간 수입액을 살펴보면 특히 2010년에 대량의 비료를 수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비료 수입액은 2007년 979만 달러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1억455만 달러 정도였으며 이중 질소비료 수입액만 1억194만 달러에 달했다. 2011년은 비료 수입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량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해였다. <표 4-18>을 보면 2011년 북한은 38만1,287톤의 비료를 수입했는데 이는 2007년 6만5,156톤의 5.9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때에도 다른 종류보다도 질소비료의 수입량이 가장 많아서 37만5,826톤을 수입했다. 질소비료는 모든 해에서 그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총 비료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합 비료를 제외한 인산과 칼륨 비료의 수입량은 전체 비료수입량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료 가격은 인산비료< 질소비료< 복합비료< 칼륨비료 순이다. 인산비료가 질소비료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지만 질소비료의 수입량이 많은 것은 북한의 주요 비료공장인 흥남비료공장 등이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비료 수입이 2007년 이후 증가하는 것은 남한의 비료지원이 2008년부터 중단되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4-17> 북한의 비료 수입액

(단위: 천 달러)

품목	질소	인산	칼륨	복합	합계
HS코드	3102	3103	3104	3105	
2007	9,513	18	41	219	9,791
2008	21,768	0	12	162	21,942
2009	27,131	24	19	272	27,446
2010	41,441	82	204	1,023	42,750
2011	101,937	10	7	2,595	104,549
2012	62,760	48	88	7,086	69,981
2013	54,514	6	56	7,320	61,897
2014	28,839	2	237	3,123	32,201
2015	17,926	0	28	1,604	19,559
2016	33,114	25	67	4,589	37,795
연평균	36,268	20	69	2,545	42,791
비율(%)	84.8	0.0	0.2	5.9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18> 북한의 비료 수입량

(단위: 톤)

품목	질소	인산	칼륨	복합	합계
HS코드	3102	3103	3104	3105	
2007	63,811	115	132	1,099	65,156
2008	40,273	0	26	360	40,659
2009	126,644	121	10	317	127,092
2010	286,573	248	250	377	287,448
2011	375,826	48	7	5,405	381,287
2012	237,686	247	75	14,961	252,969
2013	189,944	54	66	17,269	207,334
2014	131,786	5	769	9,694	142,254
2015	67,381	1	48	3,650	71,080
2016	146,364	82	156	12,152	158,753
연평균	151,481	84	140	5,935	173,403
비율(%)	87.4	0.0	0.1	3.4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19> 북한의 수입 비료 가격동향

(단위: 달러/톤)

품목	질소	인산	칼륨	복합	합계
HS코드	3102	3103	3104	3105	
2007	149.1	154.7	313.8	199.3	150.3
2008	540.5	0.0	449.4	450.3	539.7
2009	214.2	200.8	1857.6	857.5	216.0
2010	144.6	331.7	814.1	2714.3	148.7
2011	271.2	216.8	966.1	480.1	274.2
2012	264.0	194.3	1167.1	473.6	276.6
2013	287.0	120.0	853.0	423.9	298.5
2014	218.8	350.0	308.4	322.1	226.4
2015	266.0	150.0	588.9	439.5	275.2
2016	226.2	307.7	427.3	377.6	238.1
연평균	258.2	202.6	774.6	673.8	264.4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톤당 가격.

제2절 에너지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주민생활을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생산에 차질을 주며, 수송을 마비시켜 안정적인 물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생산과 물류의 차질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북한 경제의 위축은 또다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경제난을 가중시킨다. 이 같은 경제의 위축은 국방력을 하락시키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게 해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체제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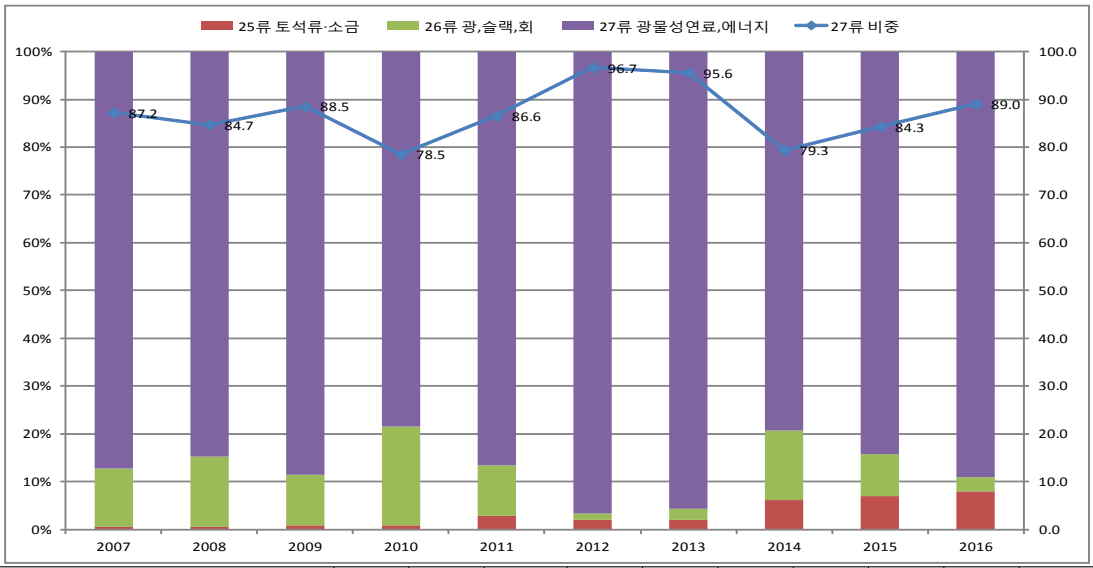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품목은 광산품, 석유·석탄제품, 전기에너지 등이다. 세부 분석에 앞서 에너지를 포괄하는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을 분석하고, 이후 광산품, 석유·석탄제품, 전기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 관련 품목의 수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석유 수입 분석을 위해 HS 코드 2단위로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 현황을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동향 분석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은 HS 2코드 기준 25~27류인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의 대부분(78.5~96.7%)을 차지하는 것이 27류인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이다.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의 수입액은 2007년 12억7,800만 달러에서 2008년 17억5,900만 달러로 27% 정도 늘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을 제외하고는 10억 달러 이하로 수입했으며 2014~2016년에는 수입액이 대폭 감소해 2억 달러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 등이 제한된 시기로 북한은 원유를 중국에서 100% 수입하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액을 거의 없음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4-20>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 현황(HS 2단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5류 토석류·소금	7	10	7	11	27	20	18	18	22	18
26류 광, 슬랙, 회	180	307	91	271	101	13	21	42	28	7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278	1,759	758	1,030	828	949	860	231	269	202
합계	1,465	2,077	856	1,312	957	982	900	291	319	227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21>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HS 2단위 기준)

(단위 : 천 달러)

품목 (HS 코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석유와 역청유: 원유로 한정 (HS 2709)	496,143	441,361	357,000	325,774	518,361	577,896	598,134	0	22	0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HS 2710)	753,771	1,013,840	307,443	554,644	229,929	196,209	201,988	180,203	186,240	117,361
석탄 (HS 2701)	23,269	75,347	24,099	58,449	52,956	58,106	43,206	26,536	52,986	68,518
석유코크스 (HS 2713)	819	483	513	2,319	3,144	1,399	2,167	7,345	8,299	3,282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북한은 원유 10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중국 세관 통계에는 북한으로의 원유수출을 0으로 보고하고 있음('14년 2만1,500달러).

<표 4-22> 북한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량(HS 2단위 기준)

(단위 : 톤)

품목 (HS 코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석유와 역청유: 원유로 한정 (HS 2709)	1,031,526	605,179	687,413	528,315	526,176	523,041	578,002	0	0	0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HS 2710)	1,114,564	1,155,108	529,960	804,124	229,790	186,050	207,208	197,224	309,132	278,916
석탄 (HS 2701)	292,919	691,865	235,740	453,543	276,337	350,393	307,717	265,950	1,078,549	1,452,430
석유코크스 (HS 2713)	3,094	2,330	3,284	5,745	7,064	3,128	4,174	11,085	11,580	11,965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북한은 원유를 100%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10년대 매년 50만톤 규모의 원유를 제공하였으나, 2014년부터 중국 세관 통계에는 북한으로의 원유수출을 0으로 보고하고 있음.

북한의 주요 광물성 생산품은 원유(HS 2709),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HS 2710), 석탄(HS 2701), 석유코크스(HS 2713) 등이며 원유와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가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유의 경우 수입단가가 2007년 대비 2008년 급격히 오르면서 수입량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수입액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원유를 구입해 가격호전으로 수입량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격의 오르내림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알려진 50만톤 정도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은 UN과 KOTRA의 원유수입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3> 북한의 원유(HS 2709) 수입

(단위 : 천 달러, 천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KOTRA	금액	281,979	414,310	238,554	325,774	518,361	577,896	598,134	500,000	280,000	230,000
	물량	523	528	519	528	526	523	578	500	525	525
UN Cometrade	금액	496,143	441,361	357,000	325,774	518,361	577,896	598,134	0	22	0
	물량	1,031	605	687	528	526	523	578	0	0	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KOTRA 북한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주 : KOTRA의 2014, 2015, 2016 원유수입은 추정치.

KOTRA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원유 물량만 반영했으나 UN의 경우 200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52만3,000톤 외에 콩고로부터 50만8,000톤의 원유를 수입한 것을 반영해 KOTRA의 원유수입량과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카타르에서 수입한 물량과 금액의 차이로 KOTRA와 UN 데이터간 차이가 있다.(북한의 원유 수입국은 <표 4-24 참조>) 그러나 2010~2013년은 북한이 원유를 중국에서만 수입[69]하여 서로 같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4년 이후부터 UN 데이터는 중국이 대북 원유수출량을 0으로 기입하고 있어 0으로 표기했으나 KOTRA는 추정치를 반영해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시설 가동률 비정상적 저하 등 원유공급 중단을 시사하는 정황이 없는 점, 유사규모의 수입선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 중국산 원유를 정제하는 봉화 화학공장 가동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은 중국에서 예년 수준으로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0] 이에

69)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원유공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봉, 콩고, 알제리, 예멘과 중동의 카타르, 남미의 브라질과 에콰도르, 동남아시아의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간헐적으로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교역실태 연구』(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 5.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중국에서만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70) 중국은 세관에 기입하지 않고 '조중우호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단둥 바싼 유류저장소에서 북한 평북 봉화화학공장까지 약 30km 길이로 연결된 이 송유관은 북중관계가 긴밀했던 1975년 완공되었는데, 시설 완공에 앞서 1971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중요물자 상호원조협의'에 의거, 현재까지도 매년 약 50만톤의 원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OTRA에서는 매년 제공되고 있는 약 50여 만 톤에 해당기간의 국제유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유수입 추정치로서 반영하고 있다.

<표 4-24> 2007-2009 북한의 원유(HS 2709) 수입

구분	금액(천 달러)			물량(천톤)			단가(천 달러/천톤)		
연도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중국	281,979	414,310	238,554	523	528	519	539.1	784.6	459.6
콩고	214,163	-	-	508	-	-	421.5	-	-
카타르	-	27,050	118,445	-	76	167	-	355.9	709.2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한편 북한의 원유 수입단가는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반적인 국제가격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역실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71]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의 상황에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어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도 2008년 예외가 있긴 하지만 2007년 이후 수입액과 수입량이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량의 감소보다 수입액의 감소폭이 더 커서 가격상승이 더욱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석탄은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은 2.9배 정도 상승했으나 수입량은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중 석탄의 수입비중이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꼽을 만큼 석탄을 많이 수출하기도 하지만 질 좋은 석탄을 수출하고 저급의 석탄을 수입해서 활용하는 식으로의 석탄무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코크스는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과 수입량의 증가가 거의 비슷하지만 2014년과 2015년을 보면 가격이 상승했다가 2016년 들어서 2007년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비 2016년에는 약 4배 정도 수입액과 수입량이 늘었으나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2007년 대비 수입액의 10배 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71) 이석,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226~227.

2. 에너지의 수입동향 분석

북한의 에너지 관련 품목은 HS 27과 HS 28 일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25>와 같다. 에너지원은 광산품, 석유·석탄제품, 전기에너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광산품은 천연의 제품으로 무연탄, 유연탄, 기타석탄류,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 우라늄 등이 속하고 석유·석탄제품은 연탄, 기타 석탄제품,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북한의 에너지 수입액은 2007년 11억1,700만 달러에서 2008년 13억6,700만 달러로 20%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2009년 6억2,100만 달러로 50%이상 급감했으며 2015년에는 4억6,000만 달러, 2016년에는 3억5,200만 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수입액 대비 에너지 수입액 비중도 2007년 35.4%에 이르렀으나 2007년 대비 수입액이 높았던 2008년에도 비중은 31.6%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20.7%로 간신히 2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20%대도 허물어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11.1%에 이르게 되었다.<표 4-26 참조>

북한의 에너지 수입액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우선 2014년 이후 원유의 수입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당국이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전원의 건설을 통해 핵심 산업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성과가 크게 미흡한 상황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소규모, 분산적 에너지원을 개발한 것이 어느 정도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72] 북한당국은 분산적 에너지원 개발로 에너지 공급의 우선순위가 낮은 주택과 소규모 산업시설에 공급하려고 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들지만 태양광 등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분산적 에너지 개발은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주요 에너지 관련 수입액은 다음 <표 4-27>과 같다.

에너지원 중 가장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원유로 전체 에너지 수입액 중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석유제품으로 36.5%를 차지해 실제로 에너지원 수입 비중의 90% 정도를 원유와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것이다. 나머지 10% 정도는 유연탄[73](7.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에너지, 기타석탄류, 무연탄 등이 3% 미만의

---

72) 이석기 외,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세종: 산업연구원, 2017), pp. 8~9.

73) 북한에는 유연탄이 부존하고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연탄 용도는 발전용, 철강산업의 코크스 제조용, 시멘트 공정의 소성용 열원 등이나 북한의 경우 수입 유연탄 용도는 주로 철강산업용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철강산업용 코크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나 일부 코크스 는 수입 유연탄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2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원유 수입액이 가장 많은 때는 2013년이었으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2007년으로 2007년 이후 원유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은 2007, 2008년에는 80만톤 정도의 수입량이 2009, 2010년에는 30만톤 대로, 그 이후는 10만톤 이하로 감소했다가 2015, 2016년에서야 10만톤 이상으로 소폭 상승했다. 석유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2016년 수입액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연탄은 2016년 수입액이 2007년 대비 191%, 수입량은 7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유연탄이 철강산업 등에 활용되는데 김정일이 '주체철' 개발을 독려하는 등 2010년대 이후 철강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과도 일치한다.

한편 액화 석유가스는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전기에너지[74]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13억6,729만 달러) 에너지 수입액이 가장 높았으며 2007년(11억1,749억 달러), 2012년(7억5,634만 달러), 2013년(7억1,355만 달러), 2010년(6억7,161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 수입액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16년에는 2007년 대비 70%가량 감소했다.

2007년에는 무연탄과 기타석탄류, 액화천연가스, 우라늄, 연탄 등의 수입액이 0이며 유연탄과 기타석탄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에너지 등의 비중도 낮아 대부분 원유와 석유제품이 에너지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2008년에는 석유제품, 유연탄, 기타 석유제품 등이 지난 10년 동안 품목별로도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한 해였고 전기에너지도 전년대비 8배 이상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액은 최고 정점을 찍었다.

2009년부터는 석유제품과 원유 수입액이 역전해 이전과 달리 원유가 석유제품 수입액을 앞질렀다. 이 시기는 석유제품과 원유의 수입액이 급감했고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원유의 수입액이 거의 없음으로 보고되는 2014년 이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입액(3억2,577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수입액이 급감했다. 그러나 비중은 낮지만 액화천연가스와 연탄의 수입액이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고 무연탄, 유연탄, 전기에

74) 북한의 전기에너지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북중 간 전기 교역은 송전망 연계를 통한 일반적인 전력교역과는 크게 다른 유형으로 공동하천인 압록강 수계에 북한과 중국이 공동운영 중인 4개 발전소(수풍, 태평만, 위원, 운봉)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양국이 발전량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물량 차이를 가격으로 정산, 이를 교역실적에 산입한 결과로 보인다. 근래에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50:50의 원칙과 다르게 북중 간에 합의하는 경우(북 전력지원, 다른 품목 수입금의 정산 등)가 있으며, 그 결과가 교역실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222.

너지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액도 전년대비 소폭 올랐다.

2011년에는 석유제품이 전년대비 73% 감소할 정도로 수입액이 줄었으나 원유의 수입액이 전년대비 60%정도 성장했으며, 기타석탄류의 수입이 이전에는 거의 없었으나 424만 달러 정도를 수입하면서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2년에는 무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액이 늘어났다. 특히 이전에는 원유, 석유제품, 유연탄이 수입액 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액화천연가스가 유연탄을 앞지른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2012년에는 소량이긴 하지만 우라늄을 5만 달러 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가운데 2012년 북한이 우라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핵실험의 원료로 사용을 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에는 무연탄 수입액이, 2014년부터는 북한의 원유수입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제한을 받는 가운데 2016년에는 철강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유연탄의 수입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최근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광석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에너지 수입량은 2013년까지는 원유와 석유제품이 가장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유연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의 수입량이 표기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최근 유연탄의 수입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보면 북한당국이 유연탄의 활용에 주목함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는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2008년이었으며 이때는 석유제품 수입량이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전기에너지의 수입량이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때는 원유의 수입량이 급감하고 대신 유연탄의 수입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원유가격의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원유 수입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원유의 수입량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의 수입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당국은 이때부터 무연탄과 기타 석탄류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석유제품과 전기에너지, 기타 석탄제품, 유연탄 등의 수입액이 급감했는데, 대신 이때는 전체 에너지 수입중 비중은 적지만 액화천연가스와 연탄 등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무연탄의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2010년에는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이 석유제품의 수입량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으며 무연탄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소량이지만 연탄의 수입도 최대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석유제품과 무연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량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타 석탄류의 수입은 급증했다. 이후 2012년에는 무연탄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수입액이 아예 없었다. 2013년에는 전기에너지의 수입량이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해였다. 2014년부터 원유는 수입량이 0으로 표기됐으며, 대신 2014년에는 무연탄이, 2015년에는 기타 석탄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원유의 수입량이 빠지긴 했지만 역시 유연탄 수입량이 지난 10년간 수입량 중 가장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14년부터는 원유의 수입량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50만톤 정도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유의 수입량을 포함한다면 전체 수입량도 상승할 것이다. 특히 KOTRA가 추정한 원유의 수입량을 넣어서 전체 에너지 수입량이 많은 순으로 꼽아본다면 2016년에는 지난 10년간 수입량 중 3위를 차지해 품목별 에너지 효율 등의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의 활용에 있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당국이 2000년대 후반, 거리 등에 전력 상황이 어려우면 하기 힘든 불장식(네온사인) 등에 신경을 쓰는 등[75] 전력상황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북한은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면서 전기,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대북제재에 대비해 에너지의 주체화, 태양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는 석탄들을 활용해 발전소를 가동해 전기에너지의 경우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76]

75) 북한에서는 2010년 10월, 평양시와 원산시, 함흥시에 이어 남포시에도 조명장식이 등장해 거리와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신보』, 2010년 10월 25일. 거리의 불장식 관련 기사는 이후에도 빈번하게 보도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일반 가정들에서도 집안의 조명에 각종 장식용 LED등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선신보』, 2017년 10월 20일.

76) 『YTN』, 2017년 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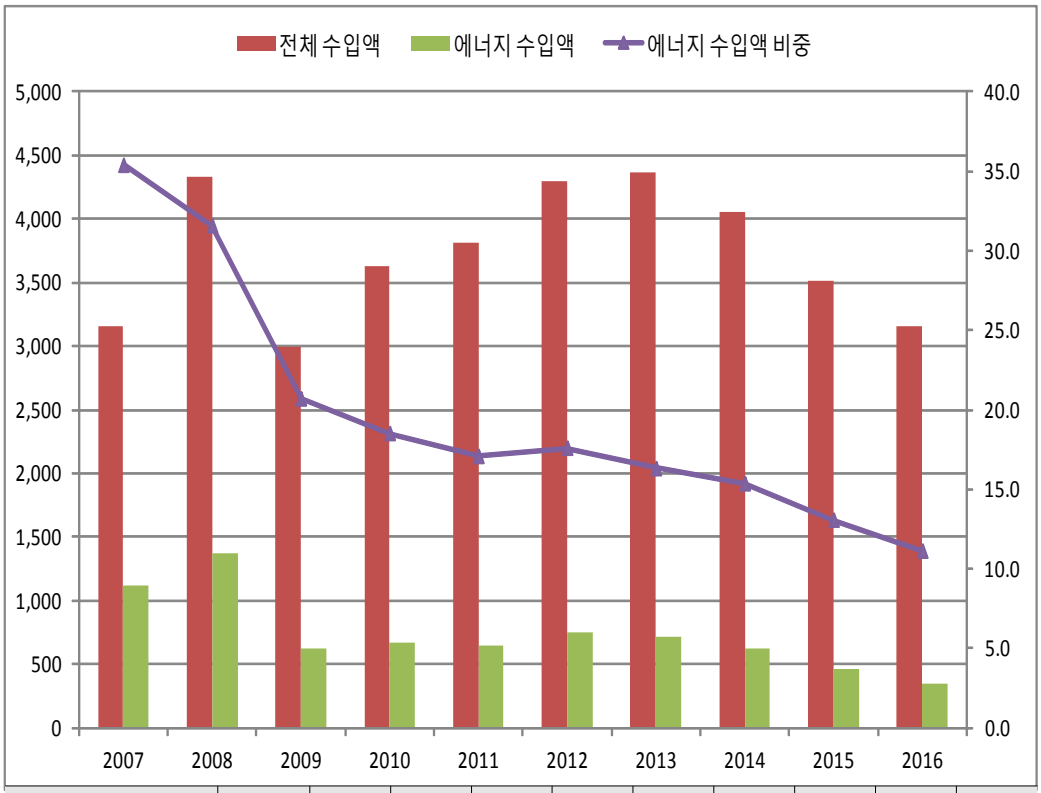
<표 4-25> 에너지 관련 품목 현황(HS 2007·2012, 6단위 기준)

구분		HS 코드	품목명
광산품	무연탄	270111	무연탄
	유연탄	270112	유연탄
	기타석탄류	270119	기타석탄
		270210	갈탄(비집괴)
		270220	갈탄(집괴)
		270330	토탄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
	액화천연가스(LNG)	271111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	271121	천연가스
		271129	기타 석유가스
	우라늄	284430	우라늄 235 열화, 토륨 화합물
		284440	방사선 물질
석유석탄제품	연탄 등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고체 연료(연탄, 조개탄)
	기타 석탄제품	270400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토르트 카본
		270500	석탄가스 등
		270600	광물타르(석탄, 갈탄, 토탄 등에서 추출한 것)
	석유제품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271091	폴리염소화비페닐(PCBs),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또는폴리브롬화비페닐(PBBs)을함유하는것
		271099	기타 석유 정제품
		271012[1)]	경질석유 및 조제품
		271311	석유코크스(하소하지 아니한 것)
		271312	석유코크스(하소한 것)
		271320	석유아스팔트
		27139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 잔재물
	액화석유가스(LPG)	271112	액화프로판가스(LPG)
		271113	액화부탄가스
		271114	액화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가스
		271119	기타 액화가스
전기에너지		271600	전기에너지

자료 :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p. 217의 표를 참고하여 HS 2007 및 2012 개정표를 검토하여 작성.
주 : HS 2012년 개정으로 경질석유 및 조제품은 2012년부터 HS 271011에서 HS 271012로 코드 번호 변경.

<표 4-26> 북한의 에너지 수입액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수입액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에너지 수입액[1)]	1,117	1,367	621	672	652	756	714	623	460	352
에너지 수입액 비중	35.4	31.6	20.7	18.5	17.1	17.6	16.3	15.4	13.1	11.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KOTRA 2014, 2015, 2016 북한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주 : 북한은 원유를 100%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10년대 매년 50만톤 규모의 원유를 제공하였으나, 2014년부터 중국 세관 통계에는 북한으로의 원유수출을 0으로 보고하고 있어 2014~2016년 3년치는 KOTRA의 추정치를 반영.

<표 4-27> 주요 에너지 관련 품목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구분	광 산 품						석유·석탄제품				전기 에너지	합계
	무연탄	유연탄	기타 석탄류	원유	액화 천연 가스 (LNG)	우라늄	연탄 등	기타 석탄 제품	석유 제품	액화 석유 가스 (LPG)		
2007	0	23,269	0	496,143	0	0	0	1,044	596,234	600	203	1,117,492
2008	1,070	74,250	28	441,361	0	6	0	2,111	846,463	339	1,666	1,367,293
2009	1,212	22,846	0	357,000	18,165	3	40	680	219,406	401	779	620,532
2010	2,549	55,853	2	325,774	59,975	0	47	927	225,585	500	403	671,614
2011	825	47,891	4,241	518,361	14,536	0	0	1,540	61,669	1,460	1,326	651,849
2012	6,493	51,613	0	577,896	52,954	50	0	1,377	60,890	3,471	1,594	756,340
2013	0	43,203	1,554	598,134	0	0	3	840	60,662	7,261	1,889	713,545
2014	586	25,946	1,233	0	0	0	3	550	83,189	6,532	4,943	122,983
2015	302	52,403	1,412	22	4,265	61	4	341	110,021	6,127	4,915	179,872
2016	905	67,601	3,466	0	0	0	13	319	43,222	3,247	3,188	121,960
연평균	1,394	46,487	1,194	331,469	14,990	12	11	973	230,734	2,994	2,091	632,348
비율	0.2	7.4	0.2	52.4	2.4	0.0	0.0	0.2	36.5	0.5	0.3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표 4-28> 주요 에너지 관련 품목 수입량

(단위: 톤, %)

구분	광 산 품						석유·석탄제품				전기 에너지[1)]	합계
	무연탄	유연탄	기타 석탄류	원유	액화 천연 가스 (LNG)	우라늄	연탄 등	기타 석탄 제품	석유 제품	액화 석유 가스 (LPG)		
2007	0	292,919	0	1,031,526	0	0	0	7,551	851,703	770	1710	2,184,469
2008	3,343	688,176	345	605,179	0	0	0	7,639	898,279	480	17937	2,203,442
2009	5,674	229,583	0	687,413	58,625	0	483	4,005	386,394	543	7841	1,372,720
2010	17,335	435,683	37	528,315	317,610	0	525	2,744	335,686	664	3345	1,638,599
2011	6,884	204,217	65,256	526,176	17,949	0	0	3,290	65,383	1,292	11366	890,447
2012	38,972	311,421	0	523,041	308,639	0	0	3,455	59,582	2,164	13146	1,247,274
2013	0	307,709	29,879	578,002	0	0	8	3,095	62,411	4,652	15420	985,755
2014	8,840	257,070	20,045	0	0	0	40	2,892	89,912	3,193	46421	381,991
2015	3,057	1,065,097	40,465	0	10,530	0	45	2,493	163,315	4,502	45583	1,289,502
2016	13,367	1,438,998	118,600	0	0	0	65	2,173	108,637	4,037	31804	1,685,877
연평균	9,747	523,087	27,463	447,965	71,335	0	117	3,934	302,130	2,230	19457	1,388,008
비율	0.7	37.7	2.0	32.3	5.1	0.0	0.0	0.3	21.8	0.2	-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1 : 전기에너지의 단위는 천키로와트시(thousands of kilowatt-hours)로 다른 에너지원의 양의 단위인 kg과 차이가 있어 비율에는 합산하지 않음.

주2 : 우리늄의 경우 HS 284430은 2015년 4kg, HS 284440은 2009년 39kg, 2012년 50kg을 수입.

제3절 사치품

사치품은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품으로 정의된다. 유엔 안보리 등은 2007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북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키며 북한에 대한 사치품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교역금지 품목을 설정한 바 있다. 사치품의 통제는 민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한 부유층 등 최고 권력 지지기반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재 때마다 사치품의 품목을 늘려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양에는 평양과 맨해튼을 합쳐 평양에 거주하는 북한 부유층의 생활을 일컫는 신조어인 '평해튼'이 만들어 졌을 정도로 북한 부유층의 소비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 부유층의 소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치품의 무역동향을 살펴보았다.

1. 사치품의 의미

사치품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품목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명확하기 구분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핸드폰 등은 주민들의 다수가 시장을 활용하고 시장의 발달로 상행위를 위한 정보교류 등을 위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핸드폰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이며 이는 핸드폰이 여전히 일반에 폭넓게 보급되진 않았다는 의미로 사치품으로 구분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계, 의류 등도 고가의 제품은 사치품으로 구분되나 고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제품의 수입금지와 함께 북한으로의 수출금지 품목을 정하면서 사치품이 명시되었다. 국제사회의 사치품의 수출금지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권력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유엔안보리결의에서 사치품(Luxury goods)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14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있었던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이다.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서는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규정하고 있다.[77]

그러나 사치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7일 발표한 유엔안보리결의 2094호로 보석제품과 이동수단 등을 예로 들었다. 이후 2016년 3월 3일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결의한 유엔안보리 2270호에서도 귀금속 장식을 한 고급 손목시계와 수생 레크레이션 차량,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탈제품 등의 운송품목을 예시로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 있었던 유엔안보리결의 2321호는 500달러 이상의 러그 및 100달러 이상의 도자기 등을 추가해 사치품의 총 예시품목이 24개 품목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별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목록을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도록 권고했다.[78]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회원국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북제재 이행을 총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국가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 받고 전문가 패널을 통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있다.[79]

우리 정부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지난 2009년 7월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 장관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한 사치품 목록 공고'를 통해 자동차나 전자기기, 가죽 및 모피제품, 화장품, 악기 등 사치품 13종을 개별 승인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80]<표 4-30 참고>

일본정부는 안보리결의 2321호가 채택되면서 대북수출 금지 대상이 되는 사치품이 추가되자 이를 반영하여 2017년 2월 17일,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고 정식 시행중이다. 여기에는 갖가지 색실로 무늬를 엮은 직물(つづれ織り, '쓰즈레오리')과 사기로 만든 식탁이 추가적으로 대북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다.[81] 새로 지정된 품목을 비롯해 기존에 일본

77) 유엔안보리 홈페이지(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78)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사치품의 정의 지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북한의 1인당 연간 소득이 외환으로 2009년의 경우 900달러에서 1,200달러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품목이 북한 주민에 제공 가능한 지,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 ② 이 품목이 특별하게 설계・제조되었거나, 특정 계층에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알려진 브랜드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 ③ 이 품목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범주를 넘어 고급의 특수고객 대상품목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형태・내구성・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④ 이러한 품목의 금지에 따른 인도적 영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품목이 주민들의 기본적 욕구, 건강, 복리에 필수적인지의 여부 등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p 40.

79) 유엔안보리 홈페이지(http://www.un.org/sc/committees/1718).

80)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에서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 품목은 총 27종으로 세부 목록은 <표 4-31>과 같다. 다만 이들 목록에는 HS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 각국이 고시하는 사치품 목록에는 HS코드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사치품의 수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치품을 HS코드로 선별해야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치품에 'high quality', 'high end', 'designer's cloth', 'luxury' 등의 표현이나 가격 얼마 이상(예, 100달러 이상의 접시) 등의 표현은 HS코드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표 4-36>의 스포츠용품(신발류)의 경우 국제사회가 사치품으로 규정하는 신발은 일반 신발이 아니라 스포츠용의 고급신발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HS코드로 구분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별로 제시한 기준이 국제사회의 평균적인 기준보다 높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기준이 낮아 일부 국가는 제재하는 품목이 일부 국가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제재이행의 의무가 있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주요 제재국들이 보고한 재재대상 사치품들의 목록을 그들의 제재품목으로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가정 하에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공개한 내용 중 사치품의 HS코드를 공개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재호 등이 분류한 사치품목록표[82]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일본세관 등이 공개한 사치품 목록을 KOTRA에서 공개한 것에 기준해 북한의 사치품 목록을 만들었다.<표 4-32 참고> 이 목록을 기준으로 UN에 보고된 무역통계에서 나타난 북한의 사치품 수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1)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2)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pp. 60~64.

<표 4-29>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나타난 사치품

유엔안보리 결의	발표날짜	주요내용	결의이유
1718호	2006. 10. 14	사치품(Luxury goods) 수출금지, 용어의 첫 등장	북한 1차 핵실험 규탄
2094호	2013. 3. 7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북한 3차 핵실험 규탄
2270호	2016. 3. 2	(a)고급 손목시계: 손목, 포켓 등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귀금속으로 장식한 경우 (b)다음과 같이 운송 품목을 포함한다. (1)수생 레크레이션 차량 (2)스노 모빌(2,000달러 이상의 가치) (c)납, 크리스탈 제품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2321호	2016. 11. 30	(1)러그 및 태피스트리(500달러 이상) (2)도자기 또는 도자기의 식기류(100달러 이상 상당)	북한 5차 핵실험 규탄

자료 :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표 4-30> 통일부 장관 고시 사치품 목록

번호	품목명	세부목록	HS코드
1	주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2204
		에틸알콜,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
2	화장품	향수	3303-10-0000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
3	가죽제품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11
		핸드백(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21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31
		기타(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420291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4203
4	모피제품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4303
5	양탄자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7
6	진주, 귀금속	천연 또는 양식 진주	7101
		다이아몬드	7102
		귀석과 반귀석	7103
		은	7106
		금	7108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	7109
		백금	7110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	7111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3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7114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한 금속의 기타 제품	7115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
7	전기기기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러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852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8528
8	자동차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10인 이상 수용용의 자동차는	8703

번호	품목명	세부목록	HS코드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실린더용량 50시시 초과의 것에 한정한다)	871120~ 871150
9	선박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
10	광학기기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651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	9007
11	시계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9101
12	악기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와 기타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
		취주악기(예: 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	9205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
13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과 표본	9705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9706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표 4-31>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세부품목 및 HS코드

No	품목	세부 수출금지품목	HS코드
1	소고기	소고기(냉동한 것에 한함)	0202
2	참치	생선 안심	030487
3	캐비어 및 이의 대체품	캐비어와 어란으로 만든 캐비어 대체품	160431, 160432
4	주류	주류	2203, 2204, 2205, 2206, 2208
5	담배	제조 담배 및 제조 담배 대용품	2402, 240311, 240319
6	향수	향수류 및 화장수류	3303
7	화장품	미용용, 메이크업용 또는 피부 손질용 제품, 매니큐어용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	3304
8	가죽 가방, 가방의류 등	트렁크, 슈트케이스, 아타셰 케이스, 서류가방, 통학용 가방, 기타 이와 유사한 가방, 핸드백, 지갑과 그 외 주머니, 핸드백에 넣어 휴대하는 제품 중 겉갈이 가죽 또는 합성가죽인 제품, 의류 및 의류 부속품	420211, 420221, 420231, 420291, 4203
9	모피	모피 외투, 그 외 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4303, 4304
10	카펫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용 깔개	5707
11	쓰즈레오리(つづれ織り) *갖가지 색실로 무늬를 엮어짠 직물	쓰즈레오리(つづれ織り)로 제작된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중 우측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	5007, 5111, 5112, 5113, 520849, 520949, 521049, 521149, 521214, 521224, 530919, 530929, 531090, 5311, 540710, 540720, 540730, 540743, 540753, 540761, 540759, 540773, 540783, 540793, 540810, 540823, 540833, 551219, 551229, 551299, 551331, 551339, 551430, 5515, 551613, 551623, 551633, 551643, 551693, 570210, 570220, 570250, 570291, 570292, 570299, 570500, 580500, 580620, 580631, 580632, 580639, 580710, 580900, 5901, 5903, 590699, 590700, 62, 6301, 630231, 630232, 630239, 630251, 630253, 630259, 630291, 630293, 630299, 630391, 630392, 630399, 630419, 630492, 630493, 630499, 6307, 6309
12	자기제 식탁용품	식탁 중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691110

<표계속>

13	크리스탈 및 유리제품	유리 제품	701322, 701333, 701341, 701391, 7117
14	보석	진주, 귀금속 및 특정 금속(은, 금, 백금, 이리듐, 오스뮴, 팔라듐, 로듐, 투테늄) 및 특정 금속을 붙인 금속 및 금속 제품	7101, 7102, 7103, 7104, 7105, 7116
15	귀금속		7106, 7107, 7108, 7109, 7110, 7111, 7112
16	귀금속 세공품		7113, 7114, 7115
17	휴대용 정보기기	휴대용 디지털식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중앙 처리 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것에 한함)	847130
18	영상 오디오 기기, 소프트웨어	마이크 및 마이크스탠드,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 마이크와 확성기를 조합한 제품, 가청주파수증폭기 및 전기식 음향증폭장치, 음성재생기, 녹음기 및 비디오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음성녹음기, 그 외 유사한 기록용매체, 비디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TV전파수신기기, 비디오 모니터, 비디오 프로젝터	8518, 8519, 8521, 8522, 8523(852352(스마트카드) 제외), 852580, 8527, 852849(컬러제품에 한함), 852959(컬러제품에 한함), 852869, 852871(방송용 제품에 한함), 852872(방송용 제품에 한함)
19	승용차, 스노모빌	승용차 및 설상 주행용으로 설계한 차량	8703(870310은 미화 2,000달러 초과 스노모빌 차량)
20	오토바이	모터사이클(모페드 포함) 및 전동자전거	8711
21	모터 보트 요트 등	요트, 그 외 오락용 또는 스포츠용 선박 및 카누	8903(나룻배 제외)
22	카메라영화용기기	사진기,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투영기, 사진확대기, 사진축소기, 영사용 또는 투영용 스크린	900651, 9007, 9008, 901060
23	손목시계 등	시계, 회중 시계, 기타 휴대용 시계	9101, 9102
24	악기	악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92
25	스포츠 용품	운동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6401, 6402, 6403, 6405 중 ① 스케이트화, ②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③ 레스링화 및 볼링화, ④ 스포츠용 신발
26	만년필	만년필	960830
27	미술품, 수집품, 골동품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7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및 일본세관,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57606).

<표 4-32> 주요 제재국 대북 사치품 목록

범주(Category)	제재품목(Item)	HS코드	주요 제재국가	비고
Live Animals	Pure-bred Horses	0101	EU	
Food Items	Beef	0202	Japan	
	Tooth fish	030268	New Zealand	
	Fillets of Tunas	30420400	Japan	
	Honey	0409	New Zealand	
	Truffles	7095960	EU	
	Salmon	160411	New Zealand	
	Tuna	160414	New Zealand	
	Caviar	1604	Switzerland	
	Caviar	160430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Crustaceans, Molluscs	1605	Australia, New Zealand	
	Lobster	160530	Canada	
	Abalone	1605901091	Australia	
	Chocolate	180620	New Zealand	
Alcoholic Beverages	Beer	2203	Canada, Japan, New Zealand, United States	
	Wine	2204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High-Quality(EU), more than 5,000 rubles(Russia)
	Fresh Grapes	2205	Canada, Japan, New Zealand	
	fermented beverages	2206	Canada, Japan, New Zealand	
	spirituous liquor	2208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more than 5,000 rubles(Russia)
	Cognac	2208201000	Russia	more than 5,000 rubles(Russia)

범주(Category)	제재품목(Item)	HS코드	주요 제재국가	비고
Tobacco	Tobacco	2402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United States	
	Cigar	240210	EU, Singapore, Switzerland	High-Quality(EU)
	Smoking Tobacco	2403010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United States	
Cosmetics	Perfume, Lotion	3303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High-Quality(EU, Switzerland), more than 5,000 rubles(Russia)
	Cosmetic	3304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Kore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High-Quality(EU, Switzerland)
Leather Items	Leather Goods	4202	EU, Japan, New Zealand, Kore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Australia	High-Quality(EU)
	Leather clothes	4203	Japan, New Zealand, Korea, Singapore, United States	
Fur Items	Fur Items	4303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United States	more than 250,000 rubles(Russia)
	Artificial fur Products	4304	Japan, New Zealand, United States	
Apparel	Woven Fabrics of Silk or Silk Waste	5007	United States, Japan	
	Shawls, Scarves of Silk	621410	United States	
	Designer's Clothing	61	Australia, Canada, EU, New Zealand, Switzerland	High-Quality
	Shoes	64	EU, Switzerland	High-Quality

범주(Category)	제재품목(Item)	HS코드	주요 제재국가	비고
Ceramic Tableware	Ceramic Tableware of Porcelain	6911	EU, New Zealand, United States, Japan	High-Quality(EU)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6912	EU, United States	High-Quality(EU)
	Drinking Glasses of Lead Crystal	701321	Australia, Japan, United States	
	Table/kitchenware (Exc Glasses)	701331	United States	
	Other Drinking Glasses	701333	United States, Japan	
	Table/kitchenware	701341	United States, Japan	
	Crystal Glassware	701391	EU, New Zealand, United States, Japan	High-Quality (EU)
Jewelry	Jewelry	71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Japan	
Electronic Items	Personal Digital	847130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Telephone	8517	New Zealand	
	Microphones	8518	Japan	
	Sound reproducing	8519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United States	
	recording	8520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United States	
	Video recording	8521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United States	
	Parts and Accessories	8522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United States	
	Magnetic media	8523	EU, Japan, New Zealand	
	Television, Digital camera	8525	Australia, Canada, Japan, Korea, Singapore	
	Monitor	8528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Kore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Electronic Games	95049020	Australia	

범주(Category)	제재품목(Item)	HS코드	주요 제재국가	비고
Photographic Items	Photographic Camera	9006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Korea, Switzerland	
	Cinematographic	9007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Korea, Switzerland	
	Image projectors	9008	Japan	High Quality
	Projection screens	901060	Japan	
Clocks and Watches	Watches	9101	Australia, Canada, EU,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Luxury(EU, United States), more than 50,000 rubles(Russia)
	Other Watches	9102	Australia, Canada, EU, Japan, Switzerland	Luxury(EU)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	92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High Quality(EU, Switzerland)
	Stringed Keyboard Instruments	9201	Korea	
	String Instruments	9202	Korea	
	Wind Instruments	9205	Korea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9207	Korea	

범주(Category)	제재품목(Item)	HS코드	주요 제재국가	비고
Automobiles	Motor Cars	8703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Korea, Russi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Luxury(EU, Singapore, Switzerland), more than 3,000,000 rubles(Russia)
	Vehicles of heading	870710	EU, Switzerland, United States	
	Motor cycle	8711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Switzerland	Luxury(EU)
	Cycl. Not Exceeding 50cc	871110	United States	
	Cycl. Not Exc 50cc, lt 250cc	871120	Korea, United States	
	Cycl. Not, Exc 250cc, lt500cc	871130	Korea	
	Cycl. Not, Exc 500cc, lt800cc	871140	Korea	
	Cycle Exceeding 800cc	871150	Korea	
	Other	871190	United States	
	Yacht, Moto boats	8903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Kore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Luxury(EU, Switzerland)
	Aircraft	8802	Canada, EU, New Zealand, Switzerland	Private Aircraft(Canada)
Sports Items	Sports Equipment	9506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United States	
	Ski	95061	EU	
	Water Sports	95062	EU	
	Golf	95063	EU	
Works of Art	Works of Art	97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Collection	9705	Korea	
	Antique	9706	Korea	
	Coin	711810	EU, Switzerland, United States	

범주(Category)	제재품목(Item)	HS코드	주요 제재국가	비고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57	Australia, EU, Japan, New Zealand, Korea,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Furniture	94	EU	Designer Furniture
	Play equipment	9504	EU	
	fountain pen	960839	Australia, Japan, New Zealand, United States	
	쓰즈레오리(つづれ織り)[1)]		Japan	

자료 :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pp. 60~64; KOTRA 해외시장 뉴스 등을 토대로 재구성.

주 : 갖가지 색실로 무늬를 엮어 짠 직물로 아래 HS 코드 중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HS 5007, 5111, 5112, 5113, 520849, 520949, 521049, 521149, 521214, 521224, 530919, 530929, 531090, 5311, 540710, 540720, 540730, 540743, 540753, 540761, 540759, 540773, 540783, 540793, 540810, 540823, 540833, 551219, 551229, 551299, 551331, 551339, 551430, 5515, 551613, 551623, 551633, 551643, 551693, 570210, 570220, 570250, 570291, 570292, 570299, 570500, 580500, 580620, 580631, 580632, 580639, 580710, 580900, 5901, 5903, 590699, 590700, 62, 6301, 630231, 630232, 630239, 630251, 630253, 630259, 630291, 630293, 630299, 630391, 630392, 630399, 630419, 630492, 630493, 630499, 6307, 6309)

2. 사치품의 무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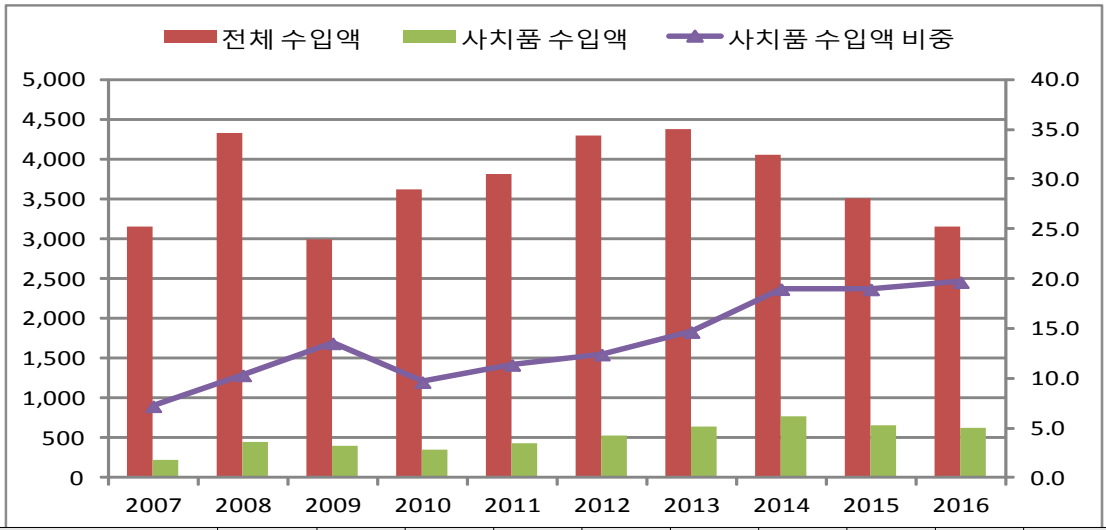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대북제재 등으로 일부 연도에서 감소하기도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사치품 수입액 비중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4-33>을 보면 사치품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해 2007년 2억2,900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2008년에는 4억4,800만 달러, 2012년에는 5억3,400만 달러, 2013년에는 6억4,200만 달러를 수입했고, 2014년에는 7억7,000만 달러로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억6,700만 달러, 6억2,300만 달러로 수입액이 감소하긴 했으나 전체 수입액 중 사치품 수입액 비중은 2007년 7.2%에서 2014년 19.0%, 2016년 19.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83)]

83) 이 표는 국제사회의 대북수출금지 품목의 HS 코드를 활용해서 사치품의 수입액을 구했으나 HS코드 특성 상 고가의 제품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일부 품목의 경우 일반제품들의 무역액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4-29>의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나타난 사치품에서 2016년 3월 2일 발표된 UN 안보리2270호의 사치품 예시 중 2,000달러 이상인 스노모빌은 HS코드에서 2,000달러 이하의 스노모빌과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스노모빌 수치로 환산해 사치품의 수입액이 일부 크게 추정되었을

<표 4-33>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수입액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사치품 수입액[1)]	229	448	406	350	435	534	642	770	667	623
사치품 수입액 비중	7.2	10.3	13.6	9.7	11.4	12.4	14.7	19.0	19.0	19.7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 중 금액이 한정된 것 또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구분이 어려워 사치품 수입액을 <표 4-32>에 명시된 전체 HS코드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실제 수출금지 사치품 기준 수입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사치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출 방법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치품과 관련해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17년 10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북한의 지난해 사치품 수입액 규모가 6억6,642만 달러(7,733억 원)를 기록해 2015년에 비해 9.8%(5천948만 달러)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치품의 수입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치품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른 것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2009년 7월 고시한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세관 무역통계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별도의 표로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주요 제재국이 아닌 일본이 공개한 사치품의 HS코드를 근거로 산출한 사치품 수입액은 2007년 1억300만 달러였으나 2014년 4억8,1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6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3억9,200만 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품 중 사치품 비중도 2007년 3.2%였으나 2016년에는 12.4%로 꾸준히 증가했다.

<표 4-34> 주요 제재국 대북 사치품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범주 (Category)	제재품목(Item)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Live Animals	Pure-bred Horses	6	16	0	141	0	0	139	51	192	6
Food Items	Beef	1,848	666	634	1,228	1,146	1,301	3,563	4,000	6,124	6,431
	Tooth fish	0	0	0	0	0	0	0	0	0	0
	Fillets of Tunas	28	0	0	0	0	0	0	0	0	0
	Honey	29	0	3	3	18	17	9	1	2	27
	Truffles	7	15	0	1	3	0	8	2	1	2
	Caviar	1,072	2,393	2,813	1,057	191	703	6,381	9,027	1,414	1,250
	Crustaceans, Molluscs	35,556	41,898	35,388	9,582	2,393	827	2,054	2,478	527	241
	Chocolate	5	64	0	33	8	20	384	882	705	493
Alcoholic Beverages	Beer	2,937	1,309	1,643	1,550	2,129	2,591	5,289	4,706	3,908	3,697
	Wine	525	280	231	189	581	392	427	428	373	493
	Fresh Grapes	4	0	0	0	0	4	1	1	0	0
	fermented beverages	36	0	35	8	0	4	2	7	1	2
	spirituous liquor	1,339	2,000	947	882	2,051	2,598	2,829	3,046	1,945	1,260
Tobacco	Tobacco	13,199	10,572	7,257	1,682	3,164	4,215	4,701	4,852	4,958	8,866
	Smoking Tobacco	0	0	0	0	0	0	0	0	0	0
Cosmetics	Perfume, Lotion	43	55	26	364	57	339	421	553	514	335
	Cosmetic	708	561	814	1,357	2,297	3,644	3,882	5,060	4,322	2,879
Leather Items	Leather Goods	2,082	7,381	4,811	3,588	3,367	5,109	6,583	8,504	6,200	3,323
	Leather clothes	383	12,976	4,960	1,542	611	1,565	1,017	2,198	1,347	1,424
Fur Items	Fur Items	2,454	486	2,375	2,976	5,436	7,238	7,223	4,380	4,957	4,294
	Artificial fur Products	209	6,428	58	540	440	326	160	511	902	1,384
Apparel	Woven Fabrics of Silk or Silk Waste	244	148	208	199	246	125	49	33	71	94
	Shawls, Scarves of Silk	11	31	59	22	9	6	15	4,860	7	1
	Designer's Clothing	25,655	91,451	97,981	49,394	53,365	66,430	87,450	115,393	98,279	120,318
	Shoes	10,398	10,280	11,422	19,730	28,066	39,229	57,778	64,780	35,341	28,009
Ceramic Tableware	CeramicTableware ofPorcelain	601	313	489	1,081	903	765	1,143	3,314	3,629	2,564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95	102	43	27	6	5	4	5	17	3
	Drinking Glasses of Lead Crystal	0	0	0	0	0	0	0	0	0	0
	Table/kitchenware (Exc Glasses)	0	0	0	0	0	0	0	0	0	0
	Other Drinking Glasses	4	1	9	4	15	26	25	36	27	5
	Table/kitchenware	0	1	3	5	12	33	27	25	0	0
	Crystal Glassware	61	23	209	415	58	57	14	19	9	2
Jewelry	Jewelry	33,232	41,892	8,954	1,681	199	524	4,168	7,387	1,668	129
Electronic Items	Personal Digital	1,444	2,062	4,527	6,791	7,617	12,909	20,173	23,311	35,939	38,298
	Telephone	7,297	23,328	31,461	71,646	89,182	100,482	75,435	113,272	73,776	65,880
	Microphones	1,648	2,372	2,276	4,690	4,241	3,317	5,785	11,918	13,778	16,680

범주 (Category)	제재품목(Item)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ound reproducing	60	25	462	21	3	266	39	20	524	611
	recording	2	0	0	0	0	0	0	0	0	0
	Video recording	6,205	6,287	4,350	3,750	2,293	2,416	3,080	4,410	1,818	2,094
	Parts and Accessories	47	54	50	184	88	44	23	1	8	1
	Magnetic media	2,580	946	1,135	1,204	720	2,044	1,107	915	941	1,844
	Television, Digital camera	2,716	5,638	6,938	4,521	7,821	8,759	2,688	2,298	1,680	2,871
	Monitor	17,933	18,683	21,366	19,629	20,038	29,684	38,827	77,818	59,683	60,958
	Electronic Games	106	76	45	6	36	37	19	156	31	17
Photographic Items	Photographic Camera	97	36	21	95	87	70	1,878	27	171	24
	Cinematographic	295	112	90	11	1	171	50	1	88	0
	Image projectors	186	73	33	60	106	51	211	338	90	25
	Projection screens	21	37	103	103	112	41	34	64	59	164
Clocks and Watches	Watches	6	49	4	10	4	0	9	0	0	0
	Other Watches	224	425	568	238	946	1,161	1,961	5,322	2,068	1,185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	1,310	2,727	2,768	1,691	2,169	2,809	2,003	2,382	2,008	797
Automobiles	Motor Cars	7,849	16,588	33,893	32,090	38,279	42,547	45,249	26,937	21,662	25,720
	Vehicles of heading	0	18	0	22	13	11	1	0	4	2
	Motor cycle	641	428	728	998	1,700	2,327	3,626	9,078	6,648	18,520
	Yacht, Moto boats	2,161	4,684	87	221	193	169	25	412	40	24
	Aircraft	330	0	0	0	0	705	22,736	580	22,743	0
Sports Items	Sports Equipment	980	5,335	1,111	523	1,774	2,069	7,128	6,903	3,676	2,285
Works of Art	Works of Art	2,210	49	46	23	585	30	19	16	47,920	1,510
	Coin	0	6	0	0	0	0	0	0	0	0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530	299	312	313	663	977	1,233	3,117	1,364	1,626
	Furniture	12,901	32,568	22,977	28,587	30,552	42,940	36,407	57,053	43,496	40,613
	Play equipment	516	672	896	506	487	940	1,812	3,265	2,322	1,874
	fountain pen	30	2,016	1	41	4	0	0	0	0	0
	쓰즈레오리 (つづれ織り)[1]	25,624	90,600	88,742	73,211	118,086	138,946	175,101	173,532	146,813	151,487
합계		228,670	447,535	406,365	350,467	434,562	534,016	642,404	769,680	666,793	622,64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1 : 쓰즈레오리로 지정된 품목 중 다른 품목과 중복되는 5007, 621410, 570210, 570220, 570250, 570291, 570292, 570299, 570500는 제외한 값

주2 :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 중 금액이 한정된 것 또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구분이 어려워 사치품 수입액을 <표 4-32>에 명시된 전체 HS코드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실제 수출금지 사치품 기준 수입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북한의 사치품 중 수입액이 가장 많은 것은 쓰즈레오리(직물)이며 2016년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들은 쓰즈레오리 외에도 Designer's Clothing 등이 있다. 또한 100만

달러 이상 수입한 제품들도 Telephone, Monitor, Furniture, Personal Digital, Shoes, Motor Cars, Motor cycle, Microphones, Tobacco 등 9개 품목이나 된다.

쓰즈레오리(직물)는 수입액이 2007년 대비 2013년에는 583%, 2016년에는 491% 증가했으며 Designer's Clothing도 2007년 대비 2014년 350%, 2016년 3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2014년 대비 2015년에 북한주민의 의생활에서 양적 개선이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10명 중 3명 정도가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매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0명 중 5명 이상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물과 의류의 수입액이 높았다는 결과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류 상품의 대부분은 국내산보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등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84]과도 일치한다.

Telephone과 Personal Digital, Microphones 등은 수입액도 상승했지만 특히 2007년에는 수입액이 높은 품목 순위에 Telephone 정도나 10위에 올랐을 뿐 나머지는 순위권에도 없었던 품목들인데 2016년에 들어서서는 Telephone은 3위, Personal Digital은 10위에 들 정도로 전체 사치품 수입액 중 비중이 늘어난 것도 특징적이다.

Telephone은 2014년 수입액이 최대로 늘었는데, 이때는 2007년 대비 수입액이 1,452% 증가한 것이며 2016년에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03% 늘어난 것이다. 또한 Personal Digital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수입액이 감소한 적이 없었는데,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2,55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Microphones도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은 912%까지 상승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5년에 북한주민의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분포를 보면, 집전화 47.3%, 손전화(핸드폰) 55.5%, 컴퓨터 27.4%, 노트텔 41.8%, 녹화기 66.4%, DVD 플레이어 45.2%에 이른다.[85]

Monitor의 수입액도 2007년 대비 2014년에는 334%, 2016년에는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영상기기의 보유율이 높기 때문인데, 북한 내 한류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

84) 장용석 외,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북한사회변동2015-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p. 46~47.

85) 조사결과 중 특히 손전화(핸드폰)의 응답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보다 핸드폰 보유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표본에서 나타나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 핸드폰 사용자가 북한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들(북한이탈주민)이 공식 등록된 핸드폰이 아닌 경우도 해당되는가를 조사원에게 질문하였다고 한다. 장용석 외,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북한사회변동2015-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76.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비공식적으로 등록된 핸드폰 때문에 현재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시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있는 남한 영상물들은 CD, DVD,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통해 거래되거나 공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매체들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영상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86]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Motor Cars, Motor cycle 등의 성장세도 눈에 띄는데 Motor Cars의 수입액은 2007년 대비 2013년 476%, 2016년은 222% 증가했으며 Motor cycle은 수입액이 2007년 대비 2016년 2,789%나 늘었다. 이 같은 Motor cycle의 성장폭은 북한의 사치품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이 외에 Furniture는 수입액이 2007년 대비 2014년 342%, 2016년 215% 늘었고 Shoes는 수입액이 2007년 대비 2014년 522%, 2016년 169% 증가했다.

반면에 Tobacco는 백만 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중 유일하게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obacco는 2007년 대비 수입액이 2010년에는 87%, 2016년에는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금연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 외에도 Beef, Chocolate, Perfume, Lotion, Cosmetic, Leather clothes, Artificial fur Products, Sound reproducing, textile floor coverings, Play equipment 등의 품목이 전체 사치품중 비중은 낮지만 성장세가 눈길을 끈다.

Beef는 2007년 대비 2016년 24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시장에서 소고기가 등장했다는 기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한에서 소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어 공동소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인 도살도 금지되어 있으며, 소를 도살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소고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87] 또한 주민들의 육류 섭취가 늘었다는 증언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88] 소고기의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북한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층이 늘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식생활을 향유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86) 장용석 외,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북한사회변동2015-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77.

87) 임강택, “2016년 북한 시장 동향”, 『북한경제리뷰』 4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07), p. 11.

8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3년 간의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단백질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는 고기 섭취 횟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거의 매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3.2%, 2013년 4.5%, 2014년 3.4%, 2015년 22.6%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015년에 19.2%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12년 21.6%, 2013년 23.3%, 2014년 24.8%, 2015년 30.8%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장용석 외,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북한사회변동2015-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41.

반면에 Crustaceans, Molluscs는 2007년 사치품 중 수입액이 1위였으나 2016년에는 순위에 없을 만큼 감소해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9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ewelry 역시 2007년 사치품 중 수입액 순위가 2위였으나 2016년에는 순위에 없었다. Jewelry는 2007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99.6% 감소했다.

이는 보석, 갑각류, 연체동물 등 기존에 수입액이 많았던 품목들 대신 옷, 핸드폰, 운송수단 등으로 수입품목이 바뀌고 있으며 사치품 수입액이 늘어나면서도 수입품목이 좀 더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사치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6억4,000달러~7억7,000달러 정도를 수입했다. 2016년도에도 6억2,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수입해 2007년 대비 172% 증가했으며, 2007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졌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액이 최대치였던 2014년은 Shoes, Telephone, Monitor, Furniture, Shawls, Scarves of Silk의 수입액이 지난 10년 동안 중 최대였던 것에 힘입어 전체 사치품 수입액도 가장 많은 해였다. 특히 대북제재가 가장 최대라고 했던 2016년에도 쓰즈레오리(つづれ織り), Designer's Clothing, Personal Digital, Microphones, Beef, Sound reproducing 등의 수입액은 지난 10년 중 최대치였다.

<표 4-35> 북한의 주요 귀금속 수입현황

(단위: 달러)

HS 코드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106	은	100	-	-	-	-	-	1,066,267	134,683	388,541	0
7108	금	1,260	-	56,138	19,431	5,825	342,076	2,332,174	-	-	0
7110	백금	-	35,700	-	-	-	-	-	-	-	0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360	35,700	56,138	19,431	5,825	342,076	3,398,441	134,683	388,541	0
합계		2,720	71,400	112,276	38,862	11,650	684,152	6,796,882	269,366	777,082	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한편, 일본의 대북제재 기준으로 북한의 귀금속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014년을

제외하고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귀금속 수입액은 2007년 2,720달러였으나 2009년 11만2,276달러, 2012년 68만4,152달러에 이어 2013년에는 679만6,882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감소하긴 했지만 2015년에도 수입액은 77만7,082달러에 이른다.

품목별로 살펴봐도 백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액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은은 2007년 100달러 수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수입액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3년 수입액은 100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수직 상승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3만4,683달러, 38만8,541달러에 이른다. 금의 수입액 역시 2007년 1,260달러였으나 2009년 5만6,138달러, 2012년 34만2,076달러에 이어 2013년에는 233만2,174달러로 급증했다.

북한에서 금과 은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핵심계층에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념품을 선물하는 등 김정은의 선물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귀금속과 보석이 들어가지 않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HS 7112(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수입량은 다른 귀금속(금, 은, 백금 등)의 수입량과 매칭하여 동일한 금액이 수입되고 있이 특징이다. 2007년 수입액은 금 1,260달러, 은 100달러였는데 HS 7112는 1,360달러였으며 2008년에는 백금과 HS 7112가 각각 3만5,700달러, 2009년에는 금과 HS 7112가 각각 5만6,138달러 등 매년 동일하게 귀금속과 같은 금액이 수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난 10년 동안 백금은 2008년에만 3만5,700달러를 수입한 데 그쳤다.

다만 2016년에는 북한의 귀금속이 전혀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사치품인 귀금속을 수입하지 못했거나 2) 다른 품목과의 물물거래 형식으로 구입하는 등 밀무역의 형태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4-36> 북한의 스포츠용품(신발류)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401	방수신발류	807	1,336	1,171	1,569	3,073	4,540	2,116	1,906	1,499	3,276
6402	기타신발류[1)]	2,069	1,049	1,323	4,055	4,252	6,745	7,408	12,273	10,819	5,382
6403	신발류	2,445	3,891	3,463	8,979	14,229	18,663	35,709	38,348	13,985	11,160
6405	기타신발류	1,788	1,304	1,473	428	77	268	212	1,131	950	2,053
합계		7,110	7,580	7,430	15,031	21,631	30,215	45,445	53,658	27,253	21,87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1) :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함, HS 6405는 HS 6402를 제외한 기타신발류임.

일본이 사치품으로 규정한 스포츠 용품은 6401, 6402, 6403, 6405 중 ① 스케이트화, ② 스키화 및 스노우보드부츠, ③ 레스링화 및 볼링화, ④ 스포츠용 신발이다. 그러나 통계만으로는 일반 신발과 사치품 신발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 전체 4코드 기준 수입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실제 사치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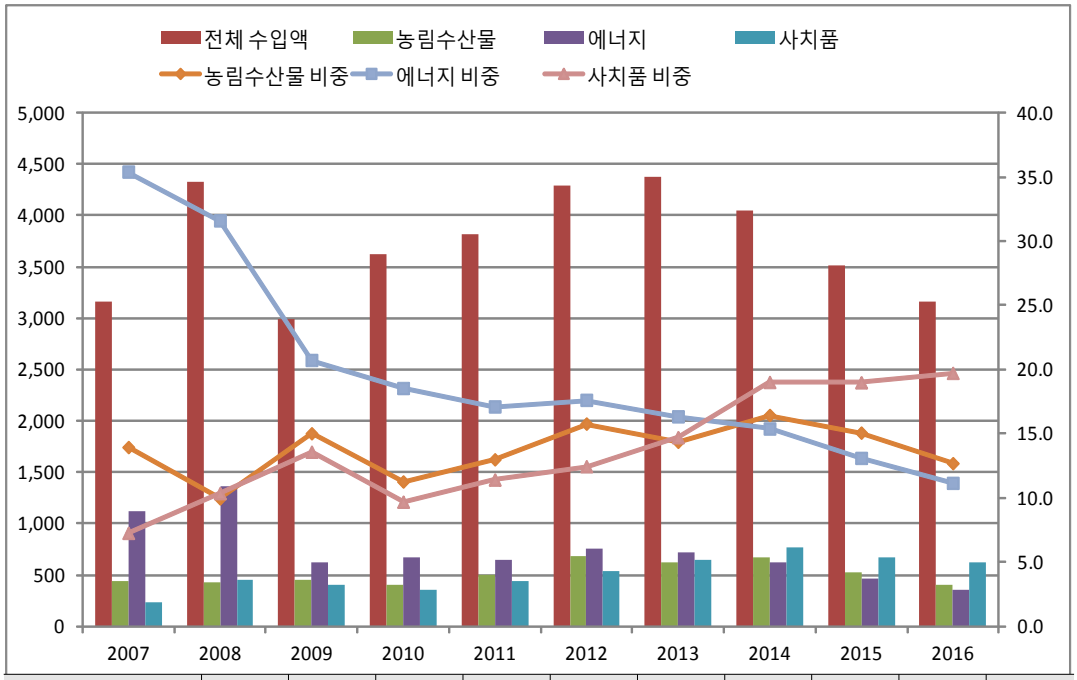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전체 스포츠용품 중 신발류들의 수입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신발류는 2007년 수입액이 711만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1,503만 달러, 2011년에는 2,163만 달러, 2012년에는 3,022만 달러, 2013년에는 4,545만 달러, 2014년에는 5,366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725만 달러, 2016년에는 2,187만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2007년 수입액에 비해서는 각각 283%, 208% 상승한 것이다.

방수신발류는 2007년 81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2012년 수입액은 463%, 2016년에도 306% 증가했으며 기타신발류(HS 6402)는 2007년 207만 달러를 수입한데 반해 2014년 1,227만 달러를 수입해 2007년 대비 수입액이 493%, 2016년에는 538만 달러를 수입해 2007년 대비 1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발류도 2007년 245만 달러를 수입했으나 2014년에는 3,835만 달러, 2016년에는 1,116만 달러를 수입해 2007년 대비 수입액이 각각 1,468%, 356% 늘었다. 이외에 HS 6402를 제외한 기타신발류(HS 6405)는 2007년 수입액이 179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20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5% 상승했다.

한편 <표 4-38>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북한의 농림수산물, 에너지, 사치품 수입액 및 비중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체 수입액 중 농림수산물의 수입액 비중은 9.9~16.4%에서 증감을 반복했으나, 가장 많은 비중으로 수입을 하는 에너지는 전체 수입액중 비중이 2007년 35.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11.1%까지 줄었다. 그러나 사치품은 2010년은 예외이지만 에너지와 반대로 2007년 7.2%에서 2016년에는 19.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사치품의 비중은 2014년부터 에너지와 식량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7년에는 식량 : 에너지 : 사치품의 수입비중이 13.9 : 35.4 : 7.2였으나 2013년에는 14.3 : 16.3 : 14.7로 세 품목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수입됐다. 이후 2016년에는 12.7 : 11.1 : 19.7로 2007년 대비 비중변화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치품의 수입이 에너지나 식량의 수입액보다 더 높을 만큼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37> 북한의 농림수산물, 에너지, 사치품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수입액	3,157	4,328	2,996	3,624	3,813	4,295	4,371	4,051	3,515	3,160
농림수산물	440	430	449	408	495	677	627	666	529	400
에너지	1,117	1,367	621	672	652	756	714	623	460	352
사치품[1)]	229	448	406	350	435	534	642	770	667	623
농림수산물 비중	13.9	9.9	15.0	11.2	13.0	15.8	14.3	16.4	15.1	12.7
에너지 비중	35.4	31.6	20.7	18.5	17.1	17.6	16.3	15.4	13.1	11.1
사치품 비중	7.2	10.3	13.6	9.7	11.4	12.4	14.7	19.0	19.0	19.7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 중 금액이 한정된 것 또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구분이 어려워 사치품 수입액을 <표 4-32>에 명시된 전체 HS코드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실제 수출금지 사치품 기준 수입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5장 결론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을 분석해보니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 중심에서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지향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자본재중 핸드폰, 노트북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중간재는 북중교역과 관련한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부문도 수산물, 과일 등의 수입액 증가로 단순히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고급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에너지원은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원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활용에 눈을 돌리고 사치품은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도 보석류보다 핸드폰, 자동차 등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주요 수입품목이 변화하고 있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경제개혁으로 사유화가 확대되고 억압정책을 펼치지 않아 북한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정책적으로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식량이나 에너지 같은 필수 물자 외에도 거의 모든 부분의 수입이 확대되었다. 또한 당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치품들도 시장에서 소비가 되면서 사치품의 수입도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수입품의 확대는 북한 산업과 주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쳐 이전 김정일 시대보다 더 정보화되고, 먹는 문제도 나아졌을 것이며, 생활수준의 개선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김정은도 중단됐던 당대회를 정권출범 5년만인 지난 2016년 5월, 36년 만에 성대하게 치루기도 했다.

실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확대되고 환율도 안정적이어서 대북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가 안정적일까'하는 문제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연구결과 역설적이게도 또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반응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압박을 가하지 못한 이유가 1차 핵실험 직후 일본의 금수조치 시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본과의 무역 대신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에 힘을 쏟았고,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한국과의 무역이 중단되자 중국과의 무역에 더욱 주력했기 때문이다.[89]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고 북중간 가공무역이 더욱 발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최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의류가공 관련 수입품 등은 북중 가공무역 확대의 산물이다. 또한 수송기기, 핸드폰 등의 수입증가도 물류네트워크가 약한 북한 시장의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막지는 못했지만 북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최근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안이 담겼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까지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이미 유엔 안보리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인 중국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납, 광물제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북한의 수출품 1위인 석탄은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0월부터 수출액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북제재는 북한무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교역을 위축시키고 외화획득에 차질을 주면서 북한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2007년에는 비중이 높지 않았던 의류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된 사례가 있는 만큼, 북한당국은 우선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철광석 수출을 늘였다. KITA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대북 철광석 수입액은 8,604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141% 상승했다. 이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석탄수입을 금지하자 북한이 철광석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수조치에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기 시작, 정부 관료의 관용차도 휘발유 공급을 제한하고, 시내 석유 공급이 줄어들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최근 대북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평양시내에 공유자전거를 도입, 버스 정류장과

89) 임수호, “최근 북한동향과 대북제재 효과”, 『제4회 통일금융컨퍼런스-한반도 안보위기 타개 및 남북교류 방안』 (연합인포맥스, 2017), p. 8.

지하철역 주변에 50여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90] 이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라면 북한당국이 의류산업 외의 다른 노동력 집약형 산업을 발굴해 대체산업으로 주력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 북한의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이 중심이었으나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지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이를 활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고위기술이나 고위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가공무역 등이 확대된다면 북한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원유에서 이미 그런 바 있듯, 중국에서 무역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교역을 이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북중간에 밀무역이 성행하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 동북3성의 주민들은 북한을 상대로 사업을 하며 먹고 살아가는데[91]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기 위축은 중국정부에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통계의 누락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무역이 위축되긴 하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필요에 의한 교역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무역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북한의 무역 등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제재에 있어 중국의 확실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지 못했고, 지금 같이 중국의 협조가 미미한 상황에서 교역금지 품목을 조금씩 확대하는 방식의 대북제재로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과 경협을 재개한다고는 했지만 여건이 만들어지더라도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중저위기술 차원의 사업 제시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협사업을 재개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북한에서 중저위기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중고위기술 위주로의 수입 비중 확대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북한과 교류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들도 예전과 같이 밀가루, 콩우유 지원 등의

90) 『KOTRA 해외시장뉴스-북한 정보』 http://news.kotra.or.kr.

91) 북한의 대중국 무역중 단둥 교역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특히 단둥에서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기업은 600여 개에 달했으며, 대북 무역액은 단둥시 전체 무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북한 정보』 http://news.kotra.or.kr.

단순지원 사업만으로는 교류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북한은 단순지원 사업 등이 퍼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되는 것을 경험해보았다. 또한 이제는 북한의 소비수준이 높아져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여전히 먹을거리 걱정이 최우선이었던 2000년대 초반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북한돕기운동'을 했었을 때와는 천지차이로 북한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북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변화 등 변화한 북한의 경제전반을 살펴보며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격에 맞는 교류와 협력을 제안해야하며 대북제재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협조를 이끌고 북한 상황에 꼭 맞는 것을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고일동 외, 『북한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서울: 산업연구원, 2007).

김현식,『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예일학교에서 보내온 평양교수의 편지』(서울: 김영사,2007).

심완섭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세종: 산업연구원, 2015).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_____, 『북한 사회경제통계 분석과 재구축』(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이정균 외,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접경 지역에서의 무역 거래 관행 변화』(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임호열 외,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장용석 외,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북한사회변동2015-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 대체 효과" 『KIEP정책연구브리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2006년 한중무역구조 분석 -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무역구조를 중심으로』(서울: 한국무역협회, 2007).

KERI, 『북한 농업동향』 4호(농촌경제연구원, 2006~2013년).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서울: KOTRA, 1997).

_____,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서울: KOTRA, 2006~2016).

나. 연구논문 등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남진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분석: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9호(한국개발연구원, 2016).
이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차 통일학세미나 발표자료집, 2007년).
이찬도,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이춘근, 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임강택, "2016년 북한 시장 동향", 『북한경제리뷰』 4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07).
임수호, "최근 북한동향과 대북제재 효과", 『제4회 통일금융컨퍼런스-한반도 안보위기 타개 및 남북교류 방안 발표자료집』(연합인포맥스, 2017).
홍민,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3호(한국개발연구원, 2017).
황정미,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2017. 8. 30) 발표자료집).

다. 언론, 기타

『연합뉴스』, 2011년 6월 22일.
『요미우리신문』, 2010년 12월 6일.
『유엔안보리 홈페이지』,(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조선일보』, 2017년 9월 20일.
『KOTRA 해외시장뉴스-북한 정보』,(http://news.kotra.or.kr).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www.unilaw.go.kr).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tat.kita.net/stat/guide/guide_14.screen).
『UN Comtrade data』,(https://comtrade.un.org/).
『YTN』, 2010년 8월 19일, 2017년 10월 15일.

2. 북한문헌

가. 단행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통계집(1946~1960)』(평양: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61).

나. 연구논문

김일성,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조선로동당 5차대회, 1980. 10. 10)”, 『김일성저작집』3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_____, “공산주의적시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85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최영옥,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다. 언론

『로동신문』, 2011년 6월 11일, 2011년 12월 7일, 2012년 5월 9일, 2013년 11월 24일, 2014년 1월 12일, 2017년 7월 2일, 2017년 7월 30일,
『조선신보』, 2003년 9월 22일, 2010년 10월 25일, 2017년 10월 20일.
『조선중앙TV』, 2012년 9월 1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9일, 2013년 3월 31일, 2014년 1월 7일.

3. 해외문헌

Eberstadt. N., “The DPRK’s International Trade in Capital Goods, 1970~1995: Indications from ‘Mirror Statistic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12 No.1, 1998.

Stephan Haggar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Redux?”,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20, ELSEVIER(2009).